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6호 2011년 10월 5일 수요일 (음력 9월 9일 · 불기 2555년 · 주간)

부처님 앞에 올 때는
마음의 빈 그릇을 가져오세요.
욕심으로 꽉찼으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팔달사 주지 혜광 스님



간화선 답 없어 답답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 불교중흥대토론회

간화선이 수행 중심 풍토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 병폐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화 · 세계화의 길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간화선 수행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진단을 쏟아냈다.

대중화하려면 사회대안을
시대정신 결여한 채 안주
지도법, 연구자 양성해야

스님은 "오늘날 선원에서는 간화선을 한다고 하면서 오직 편안한 가운데서 태평선만 추구하고 있다"며 "선은 고매한 인격과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를 계도하고 중생을 향해 깨달음의 메시지를 띄우고,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간화선 수행자가 철저한 간화선 정신에 토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깨달음에 목적을 둔 수행자들이 마치 사상적 전제가 필요 없이 화두참구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적정과 무사안일에 침잠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한국 선불교가 이론과 실참이 양극화 되면서 선원의 수선납자들은 선사상에 무지하고, 선학자들은 실수(實修)를 등한시한다고 지적했다.

월암 스님은 "이론과 실참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에게 간화의 선식(禪食)으로 삶을 풍요롭게 해야한다. 물질문명의 대안으로 선 문화를 고양시켜야 세계일화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 문화의 세계화 · 대중화를 위해 선 종지에 입각한 종도 교육, 간화선 전문인력 양성기구 설립, 선원의 특성화, 안거기간과 방식 및 내용의 차별화, 선지식의 역할 재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 이제열 유마선원장도 간화선 발전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특히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제열 원장은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 주장이 과연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선사들이 주장했기 때문인지 스님들이 체험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훌륭한 수행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수행법이 어렵고, 간화선 수행자 중 과연 몇 명이나 여래의 지위를 증득하는 경지에 도달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오늘날 간화선 수행자에게 인가를 내릴 만한 선지식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700공안 모두를 타파할 수 있는 화두 수행자가 몇 이나 되겠는가. 극소수만이 가능하다면 간화선의 대중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완 무심선원장은 조계종 종헌에 제시된 종지는 조사선인데, 조계종에서 가르치는 것은 간화선이라며 조계종이 선의 토양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제자로 나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불 스님은 명상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최상승법인 간화선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불 스님은 "선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도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상의 세계에 머무르는 정신문화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선은 상의 있음과 없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간화선 수행법을 제시하면 대중화와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불 스님은 "현실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간화선 수행과 생활의 일치와 조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다르지만 같은 이들의 만남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9월 29일 범기독교 수행단체인 떼제공동체를 방문했다. 떼제공동체 알 로이스 원장 수사(맨 앞줄 오른쪽)는 "너무 상이한 전통에서 살아온 우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고 대표단을 환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사들의 밝은 표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서 "독신수행자라는 동질감, 발우공양 같은 떼제의 정결한 식문화가 서로 같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떼제공동체는 1940년 로제 수사가 설립한 이래 매년 전세계에서 10만명 이상의 청 · 장년들이 찾고 있는 수행공동체이다. (차주상보)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종교평화선언, 종단 내실부터

불교사회정책硏 법응 스님 불교발전 5대 과제 제시해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선언' 초안 발표 후 시종일관 수정을 촉구해 온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이 이번에는 종정예하와 원로 대종사,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법응 스님은 종단의 원로 대덕과 주지 스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스님은 청원서에서 "총무원이 교단 내부의 병폐를 스스로 진단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할 때 한국불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은 계파가 장악하고 자성과 쇄신의 활발발한 현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가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세속적인 복이나 구원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화쟁위의 종교평화선언을 비판했다.

법응 스님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종단의 혁신, 종지 회복, 총무원장 직선제, 계파 타파, 정법의 파사현정의 5가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원로 도천 · 정무 스님 입적

조계종 원로 노스님들이 연이어 입적했다.

화계사 조실 도천 스님이 9월 28일 오후 1시 10분 주석처인 금산 태고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83년, 세수 101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월 2일 구례 화엄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29일 오전 8시 40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안성 석남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5년, 세수 81세. 영결식은 10월 3일 오전 10시 수원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으며 다비식도 같은 날 안성 석남사에서 거행됐다.



도천 스님



정무 스님

관련 기사 6면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동국대, 대학평가 전국 14위

동국대가 전국 대학평가에서 14위를 차지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9월 26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1 대학평가에서 총점 350점 만점에 196점으로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7위보다 3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동국대는 순위가 상승한 이유를 지난해에도 강세를 보였던 국제화부문의 추가적인 점수 상승과, 그동안 미진했던 교수연구부문 점수의 개선으로 꼽았다.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부문 전국 13위, 취업률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초 고층 COEX 건립 결사 반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가 봉은사 앞에 추진 중인 초고층 건물 건립 계획의 취소를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9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봉은사 앞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강남구 봉은사 앞에 높이 184m, 39층 규모의 한국종합무역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봉은사와 불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통문화 및 수행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저급한 문화적 안목에 답답할 뿐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심의 아름다운 사찰을 고층건물의 그림자에 가두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초고층건물 건립계획을 당장 취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박기범 기자

BBS불교방송 사장에 이채원 씨

4년간 공석이었던 BBS불교방송 새 사장에 이채원 前 강릉MBC 사장이 선출됐다.

BBS불교방송이사회는 9월 2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76회 이사회를 열고 총20명 중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진흥원이 추천한 이채원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6일부터로 4년간이다. 이채원 사장은 "회사 정상화와 미래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먼저 직원 개별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장에는 現 이사장 영담 스님이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856호 CONTENTS

승려노후수행마을 1차 낙성	2
특집 · 파리 한국불교문화체험	3
인터뷰 법타 스님(정각원 원장) 의륜 스님(일붕문도회 회장) 선암 스님(강화사암연합회 회장)	4
정무 · 도천 스님 입적	6
2011 빛고을 아카데미	11
청춘토크파티	23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 · 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선언과 관련,

불교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제1신 -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대중과 대한민국 불교도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 초안(이하 동 선언)과 관련, 위원장 도법 수좌 등이 주도한 94년 佛法沙汰와 반불교적 제도개혁 그리고 4대강사업 토론에서 언급한 '힘과 작심' 등 도법 수좌의 언행에 비추어 동 선언은 조계종과 한국불교계에 대재앙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노납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동 선언의 종교평화 : 최근 세계평화를 위한 5대 종교 간의 대화에서 발표된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미발표 원고 기독교의 평화관 등 그간 종교계의 평화관련 논문을 통해서 보는 한 종교마다 평화관이 다르고, 지난번 불교의 평화관에 관한 토론에서도 불교의 평화관도 발표자와 토론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평화에 대한 각 종교의 입장은 물론 불교계 내부의 합의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까지 아우르는 동 선언을 종단대표부의 동의도 없이 발표하고, 또 10월까지 완성하여 총무원장이 발표토록 하겠다는 것은 종단에 대한 투쟁선언이자 총무원장에 대한 압박입니다.

2. 동 선언의 이론적 근거 : 동 선언의 이론적 근거인 연기설을 모든 종교의 공존공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종교간 평화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종교간 평화 등에 대한 가르침과 그 구경이 어딘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도법 수좌의 생명평화운동의 이론적 근거인 연기설이 연기일반의 논리적 관계에 국한되고, 가치적 연기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불교에서 연기를 설시하는 목적은 가치적 연기 즉, 환멸연기의 열반적정을 밝히는데 있지, 다만 진리로서 현상의 움직임을 연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법 수좌의 연기설에 입각한 동 선언의 종교 간 평화 등은 불교와는 무관한 도법 수좌 만의 종교 간 평화 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동 선언의 불설 인용 : 먼저 동 선언은 부처님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하라고 했다는「사람이 아닌 법」은 네 가지 의지할 법 가운데 하나인 법에 의지하고 설법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위원장 도법 수좌가 <중앙일보> 와의 인터뷰(2011. 9. 1.)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나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세존은 法語者로서 여법히 말하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法, dhamma)이 진리와 동일시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지만, 참여와 투쟁을 일삼는 도법 수좌가 세존의 무쟁(無諍)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부처님에 대한 불경이자 매불(賣佛)로 비판되어 마땅합니다.

4. 동 선언과 관련한 문제제기 (1) : 화쟁위 위원장 도법 수좌는 상동 인터뷰에서 비구 · 비구니 간 차별과 관련, "비구는 부처님의 이치를 모르고 무지와 착각에 빠졌으니 불행하고, 비구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졌으니 불행한 거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조계종의 비구들에 대한 모독이자 종단을 매도한 것이며, 비구 · 비구니 간 갈등과 대립의 선동으로 비판되어 마땅합니다. 또한 "조계종 종헌 · 종법에는 사부대중(四部大衆)공동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찰운영에 재가자(在家者)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 사부대중 공동체란 주장은 승가와 사부중의 원어와 그 근거로 보아 잘못된 것이며, 역시 출가 중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재가 중 선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5. 동 선언과 관련한 문제제기 (2) : 승단의 생명은 화합이고, 승려의 분한(分限)은 곧 승려의 생명입니다. 94년 도법 수좌 등이 종단 화합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 · 승잔법 제10~ 제11)과 분쟁 해결의 기본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 · 칠멸쟁법)에 반한 불법행사(승려대회)를 통해 종단 화합을 파괴하고, 종단 최상위 징계규범이기도 한 칠멸쟁법에 반한 궐석심판으로 승려들의 생명(분한)을 박탈하였습니다. 한국불교사와 조계종단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반평화적 종단장악이며 반생명적인 승권박탈입니다. 지난 17년 간 종정예하의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 및 본사 주지들의 결의에도 주변승려들과 함께 화합을 위한 사면 반대를 주도한 자가 바로 도법 수좌입니다. 동 선언은 종단생명과 승려생명보다는 갯-벌의 지렁이와 도롱뇽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법 수좌의 생명평화에다 종교평화의 깃발을 하나 더 올렸을 뿐입니다.

2011. 9. 28. Ārāma 園頭 합장 (조계종 전 종정비서실장 겸 원로회의 사무처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선운사가 책임진다

승려노후수행마을 1차 낙성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한 스님들이 법만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불교계 최초의 전문 승려노후수행시설인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이 1차 체험관, 노후수행관 1동, 마을회관 등을 완공하고 현재 3명의 노스님이 거주 중이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노스님들이 안고 있는 소외 질병 빈곤 역할상실 등 현실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부터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조성·건립해 왔다. 승려노후수행마을이 모두 완공되면 노후수행관 7동, 차 체험관, 보은염 창고, 복지관, 마을회관, 정자 등 총12동의 건물을 갖추게 된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7일 간담회를 열고 승려노후복지마을 1차 낙성을 알렸다. 스님은 “비록 지금까지 완성된 건물은 3동에 불과하지만 완공된 건물들은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물들이었다. 때문에 절 반 이상은 완성됐다고 봐도 좋다”며 “2014년까지 다른 건물들도 모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운사는 앞으로 황토, 너와, 초가집 등 다양한 형태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게다가 노스님들의 소일거리를 위해 텃밭과 마당 등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승려노후수행마을을 건립을 비롯해 재정, 복지, 간병, 수발문제 등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법만 스님은 앞으로 노후수행마을이 단지 승려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불교 포교화 활성화를 위해 외부인들에게도 마을을 개방할 계획이다. 마을회관에는 문화프로그램실,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차 체험관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고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법만 스님은 재정확보에 관해서는 “승려노후수행마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사중의 부담으로 전가 시키지 않기 위해 승려 노후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의를 모으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만등불사’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등불사와 함께 보은염 판매,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법만 스님은 “2014년 4월부터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한 스님들에게 별도로 교구에서 수행연금을 보조해 더욱 안정된 노후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 사회복지사업을 아동·청소년 포교로 확대하고자 고창군에 ‘불교회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 문화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눈 감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노후수행마을을 입주한 前 선운사 주지 재곤 스님



승려노후수행마을의 노후수행관이 1차적으로 완공돼, 前 강천사 주지였던 재덕 스님, 前 선운사 재무국장인 종안 님, 前 선운사 주지이자 관음사 주지인 재곤 스님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재곤 스님은 개인사찰인 군산 ‘관음사’를 선운사를 공찰로 전환 후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했다. 관음사는 시가로 약 2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사찰로 수행마을 입주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재곤 스님은 “염주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 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내 것이 아니다”라며 “산천초목 눈 감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때문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길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법만 스님처럼 지역 내 포교활성화를 위한 원력이 있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라며 “법만 스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에 감동받아 그 보답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곤 스님은 “막상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하고 보니, 지난 날 안일했던 나의 과거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더 수행에 정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하지 못한 수행과 참회를 남은 시간 동안 노후수행마을에서 지내면서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박구원 만평





나라는 달라도 茶사랑은 같아요 천태종 상월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다도시연이 한자리에서 열렸다. 천태종(원장대행 무원)은 9월 25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국제차문화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운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총무부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중국 북경 영광사 방장 상장 스님,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박물관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공덕 헤아려 달라

운산 스님 상좌들 호소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멸빈 징계를 두고 前 총무부장 법현 스님 등 상좌들이 “총무원장 역임자에게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종단 모두의 일”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좌스님들은 ‘운산화상 문도회원’ 이름으로 9월 28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스님들은 “송구스럽지만 종단과 종단과 개인을 위해 그리고 종단 안팎의 따가운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간절히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은사 운산 스님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개진해 달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참회하고, 호법원 심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특별기고

믿음 갖고 쉬지 말고 나를 단련하자

금년도 예년처럼 불교계에 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만큼 우리 불교계가 안정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려는 마음이 정착되어간다고 생각된다. 부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인간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더욱 불교 본질의 중심 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변화’란 ‘살아있음’의 징표이다. 죽은 존재는 변화가 없다. 그러고 보면 결국 변화는 삶의 한 부분이자 또 중요한 속성이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파괴와 변화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죽은 존재는 변화가 없다
묵은 밭 돌보는 노력 있어야

한국 불교의 오랜 수행 전통 중의 하나는 참선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다.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불교계에 법상, 화엄, 선, 천태 등 다양한 종파가 있었지만, 고려 말을 거치면서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선종의 종문 계보만이 이어진다. 현재는 선종의 자손들만이 남아 있다.

요즈음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지금도 어른들이 계시는 문중들은 비구계를 받은 뒤, 나이를 먹고 일정한 수행을 거친 후에는, ‘입실’ ‘건당’을 한다. 이때에 스승으로부터 ‘계문’과 ‘조파’를 받는다. ‘조파’를 보면 제1세 가섭존자를 시작으로 자신이 석가세존의 몇 세손이고, 또 태고보우(1301~1382년) 국사의 몇 세손인지, 그 계대의 소목이 정연하게 적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이나 어디 다른 외국에서 법맥을 전수 받은 경우가 아니면, 현재 한국의 스님은 계보상 모두 선종의 자손이다. 그 분이 살아생전 경학을 연찬하셨던, 또는 염불 작법에 전념하셨던, 양공의 도편수가 되셨던, 또 참선을 하셨던, 그 전공에는 관계없이, 사후에 그 분을 칭송하여 부를 때는 모두 ‘아무개 아무개 선사’라 하고, 또 비문에도 그렇게 적어 드린다. 즉, 현재 한국 불교의 전통은 선종이고, 수행법으로는 간화선이 전통이다. 그것도 700 여년을 내려오는, 보조지눌(1158~1210년) 스님 때부터 치면 800년이 넘는, 긴 전통이다.

긴 전통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역사적 굴곡이 있다. 조선시대 500여 년 간은 철저하게 ‘탄압’했고, 일제강점기 30 여 년 간은 ‘왜색화’ 공작이 있었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긴 ‘분규’를 조장했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훼불’을 저질렀다. 그것도 정치의 핵심 권력에서 말이다. 우리가 못나서 그랬다고 뼈아픈 반성을 하지만, 역사란 사회적 정치적 등등의 여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잘 해야 한다.

6·25 전쟁이 시작되던 시절, 퇴옹성철(1912~1993년) 선사에 의해서 시작된 봉암사 결사를 계기로 선원(禪院)의 정신이 우뚝 섰고, 세월 속에서 차츰 총림이 정비되고, 돈오돈수의 간화선법이 선문의 정통으로 제 자리를 잡고, 또 최근에는 ‘조계종선원청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행자들의 자주적 내적 역량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전통을 회복해 가고 있다.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간화선은 굴곡의 역사 속에서, 비유하자면 ‘묵은 밭’이 되었지만, 이제 그 밭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간화선이 현대적 감각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설혹 있다 해도, 성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학술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연수회도 하고, 화두도 들어보고, 이렇게 말이다.

필자는 한문으로 된 중국의 선어록을 많이 읽는 편이다. 거의 매일 본다. 모르겠는 부분이 태반이지만, 또 보고 뒀다가 또 보고 그러다보면, 저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더러는 조금 짐작이 가기도 한다. 내가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신심(信心)을 가지고, 나 자신의 역량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 불경을 다 알아서 읽는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여래의 진실한 뜻을 아는 날 까지 쉬지 말고 노력할 뿐이다.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圓 寂

曹溪宗 元老 道天堂 道川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道天堂 道川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5(2011)年 9月 28日(陰 9月 2日) 午後 1時 10分 忠南 錦山 大芚山 太古寺에서 法臘 83年, 歲壽 102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明煽** 合掌

■ 焚 香 所 : 全南 求禮 華嚴寺
■ 永訣日時 : 佛紀 2555(2011)年 10月 2日(陰 9月 6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全南 求禮 華嚴寺
■ 茶 毘 場 : 全南 求禮 華嚴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全南 求禮 華嚴寺 ☎ 061)783-7600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道天堂 道川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조화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대안 스님(가운데)은 9월 28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에서 사찰음식 특강으로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사찰음식 만난 프랑스인들 "Trés bien!"
(트레 비엥 ; 좋아요)

조계종,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파리서 한국불교문화체험 행사 열어

"사찰음식은 평정심을 갖게 합니다. 사찰음식은 재료의 재배부터 시작되며, 모든 과정은 수행의 일부분입니다. 제철 채소의 뿌리부터 꽃까지 활용한 사찰음식은 육류와 마음을 들뜨게 하는 오신채(파 마늘 달래 양파 부추)를 사용하지 않는 해탈식입니다. 오늘은 드라이(Dry)한 음식을 선호하는 프랑스인들을 위해 능이버섯두부찜과 빈자적(빈대떡) 등을 준비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백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사찰음식이 문화의 도시 파리에 선보였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현지시각 9월 28일 오후 5시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주요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유럽에서는 처음 열렸다.

본 행사에 앞서 사찰음식의 대가 대안 스님(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운영관리자)은 특강을 통해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알렸다.

참가자들은 불어로 번역되는 스님의 설명을 토시하나 놓칠 새라 꼼꼼히 필기하며 스님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사찰음식에서 왜 고추는 써도 되고, 양파는 안되나요?" "사찰음식을 준비할 때 남녀의 구분이 있나요?" "계급 · 신분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른가요?" 강연 후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관심을 나타냈다.

대안 스님은 "오신채가 독신인 스님들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찰음식은 평등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참가자들의 웃음과 탄성을 이끌어냈다.

스님의 강연에 이어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동희 스님의 범패가 공연됐다. 참가들에게서는 천수바라 등이 진행될 때마다 박수와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다가가다' '만나다' '마주하다' '체험하다' '깨닫다'를 컨셉으로 기획돼 한국문화원을 찾는 이들이 일주문을 통해 들어오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홍보 공간을 넘어 프랑스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원형이 잘 보전돼 온 프랑스 문화,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의 양극의 문화적 감성이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흥신 주프랑스 대사는 "이번 행사가 한국불교문화 홍보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피폐한 정신사회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템플스테이 등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대표단은 프랑스 최대 동양 유물 전문 박물관인 기메(Guimet) 박물관을 찾아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올리비에 드 베르농 기메박물관장에게 "불교중앙박물관과 기메박물관 유물을 상호 교환 전시하자"고 제안했다. 베느롱 박물관장은 "상호교환 전시가 이뤄진다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문화원 등과 협의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계종 대표단은 29일 범기독교 수행공동체인 떼제공동체를 방문했다. 30일에는 파리7대학과 유네스코 본부 등을 찾아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했다.

이번 파리 방문 대표단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기획실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차주상보)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자승 스님의 기메박물관 관람 모습


한국문화원 행사에 몰두하고 있는 현지인

"한국사찰음식 세계인 입맛 사로잡을 것"

세계적 음식평론가 끌로드 르베 씨



"세계 최고라는 프랑스 음식도 채소만으로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찰음식은 채식만으로 맛난 음식을 선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에서 만난 세계적인 음식평론가 끌로드 르베(Claude Lebey · 88) 씨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2년 전 한국을 찾았을 때 우연하게 만났던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에서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르베 씨는 발우공양에서의 느낌을 '소박함, 편안함, 맛'이라 표현했다.

이날 끌로드 르베 씨는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운영관리자 대안 스님의 특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 강연 후 대안 스님과 르베 씨는 한국 사찰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끌로드 르베 씨는 "프랑스 요리의 미완을 해결한 답이 한국사찰음식에 있었다"며 "한국사찰음식을 세계화하려면 미디어 매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소로 만들었음에도 맛도 분위기도 모두 좋지만 정작 훌륭한 음식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따끔한 충고의 한켠으로 끌로드 르베 씨는 한국사찰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큰 조력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파리의 유명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에 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열리는 것도 르베 씨가 없다면 불가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라파예트 지배인 토머스 씨는 "끌로드 르베 씨를 통해 한국사찰음식을 소개 받았다. 한국사찰음식 전문점을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현지 반응이 좋으면 상설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한국, 사찰음식으로 채식종주국 확신"

칼럼니스트 미카엘 드 쌍쉐롱 씨



"학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게 됐고 사찰음식을 맛봤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9월 29일 프랑스 현지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에는 칼럼니스트 미카엘 드 쌍쉐롱 (Michael de Saint-Cheron) 씨도 참석했다.

쌍쉐롱 씨는 불교가 좋아 수년전 한국을 찾았고, 템플스테이를 3일간 경험하고 갔다. 그 후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변에 널리 템플스테이를 알리고 있다. 한국불교의 매력에 푹 빠진 것이다.

미카엘 드 쌍쉐롱 씨는 "나도 채식주의자이다. 채식만으로 이뤄진 한국사찰음식에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다"며 극찬했다.

쌍쉐롱 씨는 "채식은 유럽에서도 유행하면서 점차 확산 중이다. 한국이 사찰음식을 통해 채식종주국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2011년 불교 총지종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2011년 10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KBS 홀

주 최 : 불교 총지종 마니합창단, 금강합창단, 만다라합장단
사 회 : 김자영 (전 KBS 아나운서)
연 주 : 메디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별출연 : 주현미, 안치환, 추가열 최소리의 아리랑 파티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BTN 불교TV / BBS 불교방송 /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사 / 우리불교 / 불교플러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중연합 /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일 주 문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구미 도리사 주지 법등 스님은 9월 17일 도리사 경내에서 '솔바람 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신교와 세계평화 토론회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0월 6일 오후 1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신교와세계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02)445-8484



용주사 효문화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10월 8일 용주사 경내에서 2011 정조 효문화제를 개최한다. (031)234-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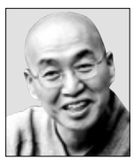
신흥사, 불교교양대학 수계식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9월 16일 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143명의 불교교양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개산 1412주년 대법회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0월 16일 오전 10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금산사 개산 1412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063)548-4441



조계사 오뚝이 걷기 프로그램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8일~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1회에 걸쳐 오뚜기 걷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02)720-1390



평화재단 제50차 전문가포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중·러 협력관계를 주제로 제50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02)581-0581



대관음사 참좋은인연 의료법인 설립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9월 30일 영천 중앙병원을 인수해 참좋은인연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10월 2일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했다.



강주연 첫번째 앨범 '촛불'
불교음악가 강주연씨는 9월 29일 크로스오버 찬불가 앨범인 '촛불'을 발매했다.

동국대를 불심 제일 도량으로

정각원 4주년 토요법회 여는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

"세상의 어떤 단 맛도 진실의 기쁨보다 더 단 것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정각원 법회를 통해 자기 절제와 참회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동국대 정각원이 9월 24일 토요법회를 개원하고 일반 포교당으로의 변모를 선언한지 4주년을 맞았다.

토요법회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 자리에서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토요법회가 불교와 사회를 소통하는 대표법회로 발전하도록 교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불교교리를 익히며 신행활동을 나누는 법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본사주지인 은해사 주지를 역임한 법타 스님의 동국대 정각원장 취임은 교계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스님의 정각원장 취임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스님의 모교 사랑도 있었지만 불심을 갖춘 참인재를 키워내고 싶은 스님의 원력이 더욱 컸다.

스님은 2009년 불자와 교직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토요법회를 시작했다. 특히 교직원 대상에서 인근 거주 지역 주민과 학생들로 포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정각원은 매주 200여 명 이상이 다녀가는 도심 속 포교당으로 성장했다. 정각원은 동국대 부속 종교시설에서 벗어나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조계종 사찰로 등록하는 등 사찰의 면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포교원이 인가한 정각원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장학생 선발, 복지시설 수탁경영 등 도심 포교사찰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정각원 포교활동의 성과를 여실히 드러냈다.

법타 스님은 "前 정각원장 종호 스님을 시작으로 정인악 신도회장을 비롯한 정각원 신도분들의 노고가 컸다"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없는 우리네 인생이 무의미하듯 더욱 발전하는 정각원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세상을 탐욕의 불이 타오르는 화택에 비유한 〈잠아함경〉 경전 문구를 들며 불자 대중의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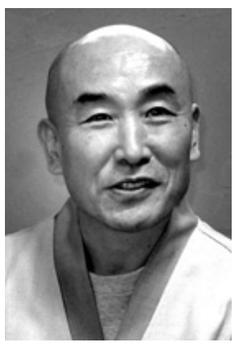
스님은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물질, 명예, 사랑으로 인해 못 뛰쳐나오고 있다.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이를 떨치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법회 식전 축하무대에서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예술단 '동국예소리'의 전통예술 공연과 정각원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02)2260-3016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수십년 간 증득 바탕 집필"

성남 무아선원 혜원 스님



"철거가 나를 좀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단대동 재개발 사업으로 법당이 입주했던 건물이 철거돼 어려움을 겪었던 혜원 스님이 최근 무아선원을 열고 9월 18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법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혜원 스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스님은 또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도 출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론〉은 특히 유식 30송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면서 수행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수행을 위한 5단계인 혼란기 안정기 관찰기 깨침기 수습기를 설정했다. 생각이 일어나 차별하면 습관 때문에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혜원 스님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돈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을,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1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을 중심으로 선(禪)불교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031)721-2148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일붕스님의 사상 선양에 앞장"

제40회 일붕문도의날 개최 일붕문도회 회장 의륜 스님

"결집대회를 시작으로 초대 세계법왕 일붕 스님의 대중포교 사상을 널리 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을 역임한 일붕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일붕문도의날 40주년을 맞아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의륜 스님은 일붕 스님의 대중포교 운동을 적극 계승할 것을 밝혔다.

의륜 스님은 "일붕 스님은 한국불교를 서구에 최초로 알리신 세계적인 포교사로 120개국에서 결집해 스님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일붕문도중앙회는 제40회 세계법왕 일붕문도회의날을 맞아 일붕계보를 발간하고, 일붕사상 강연 및 시낭송 대회, 일붕다큐기록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일붕계보는 그동안 일붕문도의 맥을 정리하는 최초의 시도다.

의륜 스님은 "그동안 종도, 문도간 결집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 계보 발간과 함께 흩어진 일붕문도와 각 불교단체간 연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륜 스님은 1971년 29세



의 나이로 전북 금산사에서 출가한 이후 청운사와 송산사, 동암사, 동해사, 운봉사, 송림사, 불탑사 등 전국에 사찰을 건립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한불교종단연합회 회장과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회장,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중앙회장으로 스리랑카 국립불교대와 태국 룽컨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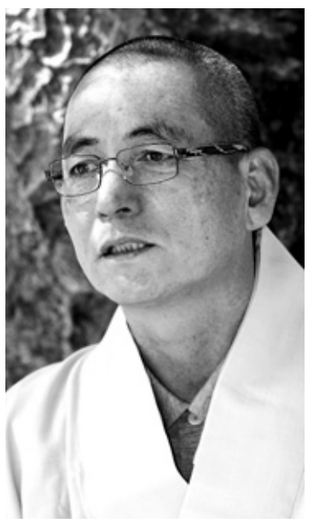
군장병 템플스테이 확대 노력할 터

강화사암연합회장 선암 스님(적선사 주지)

"역사적으로 국방의 요지였던 강화도는 문화적으로는 불법 홍포를 통해 세상을 편케 하려는 뜻을 지닌 땅입니다. 이런 강화도에서 군장병들이 호국정신을 기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국민을 위한 건강한 마음가짐을 길르길 바랍니다."

강화사암염합회 회장 선암 스님(강화 적선사 주지)은 9월 21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린 해병대 템플스테이에서 "부처님과의 만남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장병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의 전등사 템플스테이 참가는 전 군 최초로 군 장병들의 인성교육 및 심리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병대 기수열외 총기난사와 같은 군내 폭력사건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전통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가 군내 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번 제1기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강화사암연합회 후원 하에 매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스님은 "전방지역에는 군법사가 없는 법당들이 많다. 지역사찰과 연계를 통해 불자 군 장병들이 신행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군법사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암 스님은 9월 14일 강화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해 주민체육대회개최를 준비하는 등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동국대 동불연꽃제 성료

불교문화축제 '동불연꽃제'가 9월 21~22일 이틀간 동국대 본관 앞 팔정도 공원에서 1500여 재학생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인기 속에 성료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회장 유종우)가 마련한 동불연꽃제는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경체험, 염주, 만다라 책갈피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불교대 학생회장 유종우(불교학과, 3학년) 학생은 "학생들이 스님들과 차담을 나누며 불교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불교종립인 동국대 재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불교문화축제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온라인 무료 강원생 모집

본종 중앙승가강원에서는 포교일선에서 전법에 여념이 없으신 사문들을 위해 전학년 무료로 사이버 공간(온라인)을 이용한 강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사문들을 기다립니다.

▸ **모집학과 :** 승가학과 00명 (선착순)
▸ **응시자격 :** 승려, 법사(가입종단 상관없음)
▸ **교학과목 :**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 **교학기간 :** 3년 6학기
▸ **응시기간 :** 10월 6일까지 (10월 10일 개강예정)
▸ **응모방법 :** www.arahan.org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 → 종단기관 → 중앙승가강원 → 승가학과 아래쪽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031)753-3354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메일 :** nibvana@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륜불교조계종 중앙승가강원
043)848-7556 /031)753-7377

일상생활 가운데 간화선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수행자가 만 가지를 보고 듣고 정리하여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편이야기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저자 강의

1. **혼란기** : 종교에 귀의하지 않고, 나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사람.
2. **안정기** : 불법승에 귀의했지만, 방황 중에 있는 사람
3. **관찰기** : 내주변이 안정되었으나,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4. **깨침기** : 주변과 생활이 안정되고 좋으나, 깨달음이 무엇일까? 목마른 사람
5. **수습기** : 공(空)에 들었으나 혼침과 도거에 빠지는 사람,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사람,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고자하는 사람.



근본은 단계가 없고 보고 듣는 대로 알면 되지만, 생각 일어나 차별하면 습관 때문에 단계가 필요하다.

1700년 전 선(禪)불교를 일상생활 가운데 단계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유식30송, 대승육정참회, 서장)접목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첫 강의 시작됩니다.
3개월 : 150,000원 미리 예약하세요. (외환은행 620-185934-368 장홍관)

성남모란역 3,4번출구 사이길 직진 50M / **문의(수행접수) 031)721-2148~9**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 합장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창조할 수는 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 재학생에 첫 강연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국대 재학생들을 위한 강연에 나섰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9월 27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학인으로서의 삶' 을 주제로 교양강좌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강연에서 헌법재판관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동국대의 미래 비전과 대학생활의 좌표 등에 대해 강연하고 대학생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 콘서트' 는 동국대 2학기 교양강좌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주제로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명사를 초청해 매주 한 차례씩 진행된다. 강연은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과 이제범 카카오톡 사장, 오디시 공연가 금빛나 씨 등이 이어갈 예정이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나도 유한하고 남도 유한합니다. 무생물도 유한합니다. 법률상에서도 각종 권리는 생성되고 변경되고 또 소멸됩니다.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성주괴공(成住壞空)이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존재론으로 살펴봅시다. 생명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구상에는 170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를 합하면 약 500만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종의 평균 수명은 100만년에서 200만년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돌아보면 현재까지 300억 정도의 종이 살았으나 99% 이상 멸종됐습니다. 멸종은 생태계의 모든 생물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20만 년 됐습니다. 100만년에서 400만년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자체도 지극히 유한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어슬렁대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또 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존재론으로 봅시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속에 여러분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무엇에,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말했듯 우리네 유한한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진, 선, 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의' 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 외에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만의 삶이 아닌 이시대 사회속의 존재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치관이 정리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사인 볼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상대회 직후 우사인 볼트가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기록이 나온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인 우사인 볼트가 단순히 달리기만 잘하는 흑인으로 생각했지만 이 말을 듣고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이 우사인 볼트처럼 목표를 뚜렷이 정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정할 때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가진 정도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긍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비용이 금년 예산인 300조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학생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준비해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추세, 즉, 메가트랜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좁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제 자신은 누가 얘기해주지 않고 끌어주지 않았지만 젊어서부터 목표만은 뚜렷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법조인이 되자', '그 이후 모교로 돌아와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자' 는 것입니다. 비록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품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

목표를 가진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가 없는 삶은 성취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라' 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와 서두르는 것은 모순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할 때 서두르지 않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성취감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세속적 성취가 아니라도 자신이 보람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대학생 무렵의 미세한 차이는 향후 엄청난 차이로 다가옵니다. 일보, 아니면 반보의 차이지만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100보, 1000보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 서둘러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보, 반보 처진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한걸음 과감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한걸음 더 나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로에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그 뒤에 문구가 시방세계현전신(十方世界現全身)입니다. 한걸음 더 나가면 이 모든 시방세계가 본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가져야합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이는 실력이 있어야 나옵니다. 실력을 쌓으려면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집중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들고 천착하면 바위라도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법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다

로버트 루빈이란 미국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루빈노믹스로 세계를 금융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Rubinomics 루비노믹스로 읽음). 이 경제학자는 처음 프린스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더욱 노력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하버드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로버트 루빈은 훗날 프린스턴대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떨어뜨린 인재가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라고.

프린스턴대에서는 이와 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귀하와 같은 인재를 몇몇 낙방시켜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은 중요치 않습니다. 젊은 날의 좌절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인지, 또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승부는 시작된 것입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영속적이고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는 철저해 져야 하고, 만발의 준비가 돼있어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자기 고유의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궁구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학력 사회가 아닌 능력 사회입니다.

한국사회 대학진학률이 80%이지만 능력을 갖추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10년만 한 분야에 집중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Kultur, Schwarz auf weiß' 문화는 흰 것 위에 검은 것, 즉 문화는 바로 책이라는 독일 속담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책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e-북도 있고, 영상물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더라도 꼭 책 한두 페이지는 읽는 것이 습관화 돼있습니다. 능력은 책에서 나옵니다.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이 시야는 책에서 나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10년 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미래 우리 사회 지도자입니다.

인도 초대 수상인 네루 수상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간디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디의 인도에 대한 최대의 공헌은 인도인들에게 '아바야' 를 준 것이다."

아바야는 바로 용기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간디는 영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인들의 마음에서 열강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했습니다. 영국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 고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인도인에게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용기와 신념이 생기고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지금부터 하는 노력에 따라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열려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 과정에서 마치 누에가 누에고치에서 어둠을 뚫고 비단을 내놓듯 커 나가길 바랍니다.

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 준비하면 미래사회에 행복한 동국인이 될 것입니다.

봉안함이 물속에서도 안전하다고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직접 시험할 수 있고, 물 속에서 조차 안전할 수 있는 봉안함은
(주)태림원의 봉안함 안향(安享)이 유일 합니다.





3중밀봉 · 진공항 구조

3중밀봉함 제품소개



발명특허제품
• 발명특허 제품 (특허 제10-0768910)
· 재질 : ABS, 황토, 백토
습기, 결로방지 및 완벽한 수분차단 입증 제품
부산시 추모공원, 정관 주민자치회 지정 봉안함



습기,결로방지 입증 방법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결로 방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입증.
• 봉안함의 구조가 습기, 결로, 수분유입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내구성(ABS)
• 집어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증 결과 최대수직압 10.7톤



친환경제품
• "친환경 상품진흥원"에서 친환경 표지 인증 (2008.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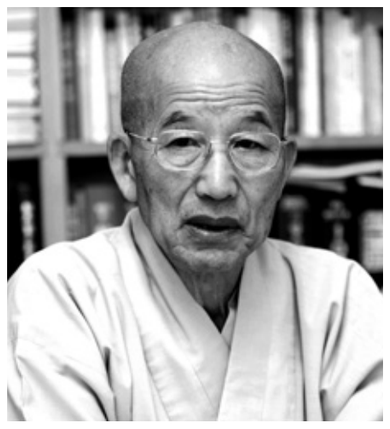
부산시 영락공원 장묘운영팀에서 함에 티슈를 넣어 땅속에 묻는 실험 시도
1년후 개봉결과 티슈가 원상태 그대로 보존 되어 있음을 확인

• 현장에서 직접 기능 검증을 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신뢰를 주는 유일한 봉안함.
• 물속깊이 함을 넣어도 함속으로는 단 한방울의 물은 물론 수분의 유입 마저도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함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뒤집어도 한방울의 물도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태 림 원 Mobile 010-2257-3887, 02)763-1305 Fax 02)763-1307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5-1 월드오피스텔 805호

“스님, 저희를 두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입적
9월29일 오전 8시40분 석남사서
10월3일 용주사서 원로회의장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9월 29일 오전 8시 40분 안성 석남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5년, 세수 81세. 영결식은 10월 3일 수원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으며 다비식도 같은 날 안성 석남사에서 거행됐다.

정무 스님은 1931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했으며,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후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지냈다. 1958년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김제 부흥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용주사 · 신륵사 · 영월암 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 법사를 역임했다. 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종정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포교대상을 받았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으며, 이듬해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정무 스님은 “내가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왔다가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간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우리 거기서 만나자”는 열반송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정무 스님 행장

1931년 전북 군산 출생
1958년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선사를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 수지
1963년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66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87년 속리산 복천암에서 3하안거 성만
1968년 영주 포교당 주지
1970년 3대 중앙종회의원
1971년 수원 용주사 주지
1974년 4대 중앙종회의원
1978년 5대 중앙종회의원
1980년 6대 중앙종회의원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관리위원
1993년 대구 법왕사 회주
1983년 여주 신륵사 주지
1999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
2000년 안성 석남사 주지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추대
2008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

조계종 원로의원 도천 스님 입적
9월 28일 오후 1시10분 태고사서
10월 2일 화엄사서 원로회의장



화계사 조실 도천 스님이 9월 28일 오후 1시 10분 주석처인 금산 태고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83년, 세수 101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월 2일 구례 화엄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나신 도천 스님은 19세에 “도를 이루겠다”며 금강산 마하연에서 수월 스님의 제자 묵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년 간 금강산 마하연 신계사 묘향산 유점사 법왕사 등에서 수행해 온 스님은 전쟁으로 금강산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자 남으로 내려왔다.

스님은 범어사와 내원암 칠불암 해인사 선방을 거쳐 금강산과 산세가 비슷한 대둔사 태고사에 방부들이고 공양주 소임을 지냈다. 태고사에 빨치산이 들어오자 묵언을 하고 7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태고사에서 나왔다. 스님은 ‘난리통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대로 도량을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6 · 25전쟁으로 불에 타 아무것도 없는 태고사에 1962년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태고사 터에 움막을 하나 짓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40년간 두문불출 불사를 계속 했다.

스님은 묵언을 지키고 계행이 청정하며, 철두철미한 보살행, 백장청규에 따라 오로지 일만 할 뿐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 ‘수월가풍’을 지켜왔다.

도천 스님은 “나는 깨친 것이 없어 수미산 주인집으로 머슴 살러 갈거여”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도천 스님 행장

1910년 평안북도 철산 출생
1929년 마하연에서 묵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 수지
1949년 금강사 마하연사 만회암, 묘향산 상원사, 해인사 퇴설당, 도봉산 망월사, 강화 보문사, 안산 내원사, 부산 범어사, 하동 칠불암 아자선방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
1962년 태고사 주지
1992년 천은사 방장선원 조실, 화엄사 연기암선원 조실, 태안사 원각선원 조실, 화엄사 선등선원 조실 지냄
2004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

“숲 · 생태체험 프로그램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어청위, 주5일 수업제 시행 앞두고 열띤 토론



“사찰 주변의 학교나 지원 센터, 수련원 등과 연계를 맺어 창의적 체험활동, 국제성취 포상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석두 동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총장)

“교회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5일제 활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찰은 산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동련 상임이사,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이하 어청위, 위원장 계성)는 ‘불교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9월 28일 불교중앙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수업을 활용한 포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전국 초 · 중 · 고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청위에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5일 수업제 활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어린이포교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석두 사무총장은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사찰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사찰에서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찰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면 기꺼이 찾아온다”며 “한문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해남 미황사의 ‘한문학당’과 청소년을 위한 집중명상법으로 인기가 높은 개포동 금강선원 등의 사례를 발굴해 사찰의 규모, 지리적 특징, 지도자 현황 등 조건이 유사한 사찰에서 적용 가능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찰과 종단이 해야 할 어린이 포교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찰은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 토요일 문화학교를 개설하거나 어린이 일요법회를 토요일 오후로 변경해 법회 후 불교신행, 인성교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종단은 정부법령이나 지원책, 타종교의 대응 방법 등을 신속하게 인지해 법회현장에 접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법회지도사와 특정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직접 어린이 포교현장에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줬다. 스님은 “각 사찰마다 예산은 천지차이다. 재정이 부족한 사찰은 매우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 가르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찰이 영어, 음악, 한문교사를 초빙해 가르치는 건 소용이 없다. 숲 · 생태체험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영 동대사대부여고 교법사는 ‘청소년 포교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법사는 동대사대부여고에서 2011년부터 시행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명상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주 수업내용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돼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상급학교 입시 자료로 활용 된다”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정명은 화계사청소년법회 지도교사는 사찰만의 매력도를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지도교사는 “명상을 통한 집중력 강화훈련,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의 연계로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지역 특색활동과의 접목 및 봉사활동 진행으로 사찰 청소년법회의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법구경’에 회사 살리고 키우는 묘법이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삶의 지혜와 행복찾기’ 강연



“스티브 잡스처럼 현대의 우상으로 떠오르는 성공한 기업가들에게는 바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상상력은 창조론의 가장 기본으로, 이런 창의성은 바로 선(禪)불교와 같습니다.”

지혜로운여성(이사장 김애주)과 여성인재개발센터(센터장 황수경)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9월 19~25일 인문학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모색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삶의 지혜와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릴레이 형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9월 20일에는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사진)가 ‘인문학과 현대의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필화 교수는 “기업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상상력’에 있다”며 “두바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시인이다. 이처럼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은 경영의 활력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빼어난 문학작품은 상상력이라는 보물 창고와 같다”며 “일리아드 오디세이 셰익스피어 만해 한용운 스님 마명의 붓다차리타 단테의 신곡 삼국지 열국지 등은 모두 경영에 영감을 주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며, 경영전략과 리더십의 교과서다”고 설명했다.

인간 상상력의 집대성인 문학작품 감상이 경영자의 삶과 경영을 더 넓고 깊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 교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는 깨달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영감이다”라며 “깨달음은 오직 인간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시대의 컴퓨터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를 구분 짓는 기준이 기업문화라고 말 할 만큼 기업경쟁력의 궁극적인 밑바탕은 최고영자의 철학이 스며있는 기업문화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성공적인 기업가 라인폴트 뷔르트 역시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동기유발이 되지 못한 직원들이 일할 때 보다, 비록 기계는 낡고 공장은 허름할지라도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때가 효과 효율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아함경〉 〈숫타니파타〉 〈법구경〉을 비롯해, 기독교의 〈신약성서〉 〈구약성서〉, 유교의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기업인들이 철학적 성찰을 생활화하고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책으로 꼽았다.

유필화 교수는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날이 더 중시해야 하는 현대의 경영자들에게 인문학과 인문학적 소양은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자비는 결국 내게 베푸는 것”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김태균



봉사 통해 삶의 행복 느껴
고마워 하는 사람 보며 보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태균 학생(사진)은 봉사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다. 그녀는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 함께하며 도움을 나누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부처님은 제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만물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자 합니다.”

김태균 학생은 현재 대불련에서 템플스테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다. 사찰이 낯선 사람들은 템플스테이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그럴 때도 그녀가 나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참가자와 사찰 관계자들의 수고했다는 한 마디를 들을 때면 그동안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

김태균 학생은 “참가자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도 느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템플스테이에 익숙한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서 서포터즈에 지원했을 만큼 타인과의 소통에서 행복을 느낀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참가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오히려 그곳 학생들에게 가슴 뭉클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고, 우리 나라보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균 학생은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김태균 학생은 “자비와 봉사는 결국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인드라망에 기대어 생각해봐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베풀고 있는 셈이다. 나로 인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내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깨달음이 불자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생각이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 해외 봉사 활동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에서 봉사활동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된 뒤에도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순수함과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제3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성료

제3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가 9월 25일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성료했다.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총 8개 국가에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이주민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700여 명이 모여 국가별 대항전을 펼쳤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부처님의 평등과 자비정신을 일깨워주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 장애물 경기 400m 계주 등을 비롯해 민속공연 및 장기자랑 경연, 각국 음식 장터 운영, 놀이마당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 우승은 몽골에게 돌아갔으며, 민속공연 및 장기자랑 경연은 네팔이 우승의 영예를 안아 눈길을 끌었다.

배광식 회장은 “이번 행사는 잠실보조 경기장에서 치러져 이주민들의 관심을 더 모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 포교에 헌신할 참신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10월 8일~12월 3일 ‘제23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접수는 10월 8일까지. www.idia.or.kr (02)722-2206

이은정 기자

“배고픔엔 국경도 종교도 없다”

JTS 북한 전역 식량 지원

한국 JTS(이사장 법륜)가 평양과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JTS는 북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배고픔과 영양결핍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며 ‘더 주지 못해 미안해’를 9월 27일 인천항 제1부두에서 열었다. 프로그램 사회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안철수 서울대융합기술대학원장과 함께 법륜 스님과 친분을 맺고 있는 방송인 김재동씨가 맡았다.

JTS가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밀가루 300톤을 포함해 두유 36만개, 이유식 10톤, 탈지분유 2톤, 전지분유 30톤, 영양강화식품 33톤 등 20피트 컨테이너 50여대 분량이다. 지원 대상은 북한 내 9개 시 · 도 53개 시설의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1만 2000명이다.

올해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은 가을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식량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밀가루가 북한의 전국 규모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TS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지원물품을 전달해왔다. JTS는 53개 시설에 물품이 전달되면 분배 후 직접 북한을 방문해 각 시설별로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JTS는 이를 위해 지원 후 아이들의 발육상태와 지원물품의 소모량 등을 점검한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이뭣고’ 계속하면 뇌가 트인다

우성일 박사, 불교수행과 뇌과학의 역할서 선사 뇌움직임 조명



불교가 뇌과학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불교는 심리학과 정신치료에 다양한 형태로 접목돼 새 패러다임을 열어왔다. 특히 서양의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의 사상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그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 특히 불교의 명상 수행 중 선사들의 깨달음 과정에서의 뇌에 대해 살펴본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성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정신과 박사(사진)는 9월 24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 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개최한 제2회 불교와 심리심포지엄에서 “선사들의 오도의 순간을 잡기 어렵지만 이미 오도한 고승들의 뇌에서 그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데이터를 얻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불교 수행 중 특히 출가한 스님의 경우 고도의 정신집중 과정이 있으며 하나의 화두에 몰입해 그 의미를 깨닫고자 했다. 수 많은 선사들이 화두 참선에서 망상과 졸음, 혼침과 산란의 과정에도 용맹정진해 홀연히 깨달음을 얻은 기록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 박사는 “현재 가능한 것은 뇌파를 측정하고 신체적 지표를 측정한 보고들로 이 지표를 보면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 극기심이 드러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과잉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자극들을 정리하고 뇌의 휴식과 집중할 능력을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그동안 화두수행에서 고승의 인가를 받는 주관적 체험의 영역이 서양에서 뇌과학 연구와 지표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불교 명상을 FA명상(집중방식)과 OM명상(마음기초 방식)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우 박사는 “FA명상은 불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집중이 흐트러지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숙련된 상태에서는 마음의 분산을 예리하게 파악해 집중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경쾌함과 활력을 느끼고 수면욕구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또 “OM명상은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떠오르는 어떤 것이라도 모니터링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숙련된 상태에서는 인위적 노력 없이도 자아 정체성과 정서적인 반응을 넘어선 예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 박사는 이어 최근 이탈리아에서 불교 수도자를 대상으로 FA명상과 OM명상 수행의 뇌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우 박사는 “평균 15750 시간의 FA명상과 OM명상을 진행한 남방불교 스님과 열흘간 하루 30분씩 명상을 시행한 초심자간의 가장 큰 차이는 교감신경계 각성과 내부인식 지각을 관장하는 변연 및 부변연계 활동성에서 나타났다”며 “전두-변연의 네트워크 활동성 강화는 장기기억증강 현상과 관련된다는 새로운 개념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우 박사는 “이를 통해 뇌과학으로 선사들의 오도를 설명할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장기기억이 증가되고 뇌의 변화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통찰하게 되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명상수행의 효과

불교의 명상 수행은 혈압, 맥박 등 심혈관계 기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키며 인터루킨과 감마인터페론 같은 면역지표를 정상화시키는 등 신체기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미국신경과학회’ 정기총회에 달라이라마가 초대되면서부터는 이와 더불어 명상 시 나타나는 정신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과학적 결과는 명상 자체가 주의 집중력, 단기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나 활력감 등 정서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팔만대장경 해인사서 조판”

대장경천년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서
기존 학설 뒤집는 판각지와 봉안시기 주장 나와



고려대장경 조성과정에서 해인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운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호 팔만대장경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천년 고려대장경, 세계인과 소통하다’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이 해인사를 포함한 강화도 이외의 여러 장소에서 진행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최영호 전문연구위원은 특별세션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해인사의 역할’에서 “팔만대장경판의 개별 경판을 직접 조성한 판각공간은 여러 지역적 공간에 분산적으로 설치 · 운영됐다”며 “해인사는 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이나 인적 · 물적 자원의 협력 사원으로 재편 · 흡수돼 적극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팔만대장경판과 기타의 해인사 소장 개별 경판 등에 새겨진 각수와 지 · 발문 자료, 팔만대장경판의 마구리에 장식된 금속 장식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도 ‘나무로 본 고려대장경판의 판각지 고찰’을 통해 “경판의 재질을 중심으로 검토해본 결과 새김 장소가 강화도라는 지금까지의 학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상진 명예교수는 “고려대장경판의 새김장소는 해인사 자체 및 인근 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더 범위를 넓혀서 검토하면 거제도 및 남해도를 포함한 남부 섬지방도 일부 새김 장소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에 대해 박상진 명예교수는 고려대장경판의 재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236년에서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강화도에서 경판을 새겨 보관하고 있다가 1398년에 해인사로 이운했다는 기존 학설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첫째 경판의 표면 상태가 먼 거리를 옮길 때 생길 수 있는 마모 흔적을 비롯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는 점, 둘째 경판 나무에 해인사 인근에 많이 자라는 거제수나무가 들어 있는 점, 셋째 경판을 주로 제작한 나무인 산벚나무와 돌배나무가 벌채된 지역이 해인사와 가까운 남해안 섬과 경남, 전남 일대의 남부 지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인사 보존국장 성안 스님은 ‘팔만대장경판의 해인사 봉안시기와 배경’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성안 스님은 “팔만대장경판 전체가 해인사에 봉안된 시기는 충숙왕 5년 11월 이후부터 공민왕 9년 윤5월을 전후한 인접 시기 이전까지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재 연구자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태조 7년 5월의 기록은 팔만대장경판의 해인사 봉안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필요충분의 근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가장 지배적인 학설 중 하나인 조선 태종 7년인 1398년에서 시작돼 1399년에 걸쳐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지천사로, 또 지천사에서 현재의 합천 해인사로 이운되었다는 것이지만, 조선 태종 때 지천사에서 이운되었다는 대장경은 다른 종류의 대장경이거나 고려대장경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학자뿐 아니라 루이스 랭가스터(버클리대 명예교수), 크리스틴 위튼(교토대 교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로슬린 러셀 위원장과 레이 에드먼스 위원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해 9월 28~29일 양일에 걸쳐 대장경을 재조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중앙승가대 불교학술원, 6일 학술세미나

중앙승가대 불교학술원(원장 종석)은 10월 6일 오전 10시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대강당에서 제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삼매 · 유가와 깨달음’이란 주제로 김치온 진각대학원 박사가 ‘유식경전에서의 삼매심소와 유가5도’, 법상 스님이 ‘정토삼부경에서의 삼매와 왕생’, 본각 스님이 ‘화엄경에서의 삼매와 깨달음’ 김호귀 동국대 외래교수가 ‘선어록에 나타난 깨침의 속성과 그 전승 고찰’, 종석 스님이 ‘밀교경전에서의 삼매 · 유가와 가지신변(加持神變)’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은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강동균 동아대 교수,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최동순 동국대 교수, 허일범 진각대학원 박사가 각각 맡는다. (031)980-7784 **노덕현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시민 아카데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9월 20일~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금강아카데미-인문학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지역민과 대학 간 문화 소통과 인문학 부흥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아시아 종교와 문화’를 주제로 금강대 교수 10명이 강연을 진행한다.

세부주제로는 종교 일반에서부터 인도와 실크로드 문화, 티베트의 삶과 종교, 일본의 신들을 비롯해 황산벌과 개태사 이야기 등 지역과 관련된 강의도 포함됐다. 첫 강연은 종교적 믿음을 주제로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진행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시민강좌는 최고 지성의 산실인 대학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탁마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됐다”며 “아시아 지역 종교와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대는 공주, 계룡,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도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041)731-3616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18일 월례발표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제15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월례발표회는 동국대 학술원장 인환 스님을 좌장으로 최경아 동국대 강사가 ‘떼비자숫따에 나타난 종교개념의 재정립’, 이희봉 중앙대 교수가 ‘동아시아 불탑의 최대오류에 대한 검토’를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안필섭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엄기표 건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문화재청 설립 50주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0월 16일까지 설립 50주년 기념 특별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1961년 10월 2일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독립하면서 역사를 시작했다. 출범 당시 직원 294명이 국가지정문화재 270건을 관리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 857명에 국가지정문화재 3349건, 등록문화재 476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기념 특별전에서는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문화재 탄생-발굴’ ‘문화재의 새로운 시작-보존과 복원’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문화재와 우리’ ‘디지털 문화재’ 등 7개 코너별로 실물과 사진 및 영상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또 꿀과 참기름 단지로 사용된 고려청자 등 충남 태안 앞바다 ‘마도2호선’ 인양 유물, 전북 익산 미륵사지석탑 발굴 자료, 경남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 발굴된 가야소녀 ‘송현이’ 복원품, 등록문화재인 1910년대 엄복동 자전거 등도 선보인다. 전시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QR코드로 제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특별전 개막 전날인 26일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프랑스 소르본대 자비에르 그레페 교수, 중국 칭화대 루저우 교수, 일본 문화정책연구소 가키우치 에미코 소장,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 등이 발제하고 청중들과 토론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공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입후보 등록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제 10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비서류
  1) 수행이력서 1통 (경력 포함)
  2) 10명의 추천서 (소정양식)
  www.kbiguni.org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3) 승적증명서
- 입후보 마감일 : 2011년 10월 7일 17:00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3411-8103

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 4장 제 11조에 의거, 제 7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금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비구니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기여해 주실 역량 있는 회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총회일자 :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13:00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 전국비구니회관 종무소 (02-3411-8103)

※ 총회 참석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선거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130년 만에 통도사로 돌아와

고종황제 하사 경운 대사 가사 특별전시
10월 한달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故 경운 대사의 가사.

故 경운 대사의 가사가 130여년 만에 통도사로 되돌아왔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9월 19일 통도사 주지실에서 재일교포 김건흥 씨(일본 동경)로부터 경운 대사의 가사 1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가사는 고종황제가 입고 있던 곤룡포로 직접 가사를 지어 통도사에 있는 경운 대사에게 하사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수연유가 적힌 글을 선친께 받은 뒤로 줄곧 이것은 통도사의 것이고,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유물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한 경운 대사 가사는 김건흥 씨가 부친 김정주 씨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해 온 것으로, 당시 서울 개운사 맹현우 스님이 가사를 조성했고, 경운 대사 입적 후 상좌인 최종호 스님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이래 가장 큰 경사로 고맙고 눈물겨운 일"이라며 "통도사의 보물은 반드시 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증자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며 영구히 성보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운 대사 가사는 은사로 쌍용문을 시문한 홍색직물을 사용한 9조 가사로 일부 얼룩과 훼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구름과 연화, 범자를 배경으로 해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와 삼족오를 자수한 원형장식판이 부착돼 있다. 가사의 사방 모서리에는 상단에 天(천)자, 하단에 王(왕)자를 자수한 방형직물을 덧대어 사천왕을 표현했다.

특히, 견사에 은사를 말아감아 사용해 문양을 표현한 점과 연화만초(蓮花蔓草)를 배경으로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두 마리의 용을 표현한 점은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쌍용문직은가사(雙龍紋織銀袈裟, 중요민속자료 제244호)'와 상당히 유사하다.

통도사 성보박물 관장 지준 스님은 "동일한 직물로 부분적 차이가 있지만 가사의 구성과 자수기법 등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이 두 가사에 사용된 직물의 문양에 쌍용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이 직물 자체가 황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직물 및 의류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문화재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받은 가사를 제1366년 통도사 개산문화대재를 맞아, 10월 1일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 역사실에 전시해 일반에 특별공개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고증을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증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통도사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5회 청주 보살사 괘불탱특별전 개막에 맞춰 기증자 김건흥 씨에게 기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중한 불교문화재의 기증·기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숨겨진 성보를 발굴하고 불교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5)382-1001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고객과 함께 짐 나르며 나눔 실천"

거제자원봉사자센터 오정림 센터장



"이 상은 전법의 길을 걷고 있는 도반들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 앞으로 부처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가르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제9회 대원상 수상자로 포교대상 재가부문 장려상에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장 오정림 씨(36, 불명 대원성)가 선정됐다.

대원상(大圓賞)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불교의 현대적 조명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한 불자와 단체에게 매년 시상된다.

오정림 씨는 경남 거제시의 사회복지와 봉사 기관 및 단체의 인드라망인 자원봉사센터장 소임을 맡으며, 사단법인 좋은벗 이사, 미소금융 거제지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오 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사회 저변에서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3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의 대표 소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청년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을 연 미소금융 거제지점은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사업으로, 대부분 이웃종교기관이나 종교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다. 불교계 최초의 미소금융으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도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수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 대출해주고, 성실한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고객과 함께 짐을 나르면서 나눔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돈만 빌려주고 받는다면 사채업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잘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정림 씨의 어릴 적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어릴 적 공부를 잘했던 그녀는 방과 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같은 반 친구들을 가르쳤다. 자신의 도움으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봉사하는 도반들과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한다.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지만 오히려 배우는 점이 더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언젠가 도법 스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함께 길을 걸어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개개인은 어느 한 구석이 부족한 미완성의 존재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콩 반쪽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겠죠."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국민 모두 지키는 불교문화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전통문화 속 불교문화' 세미나


응현 스님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 (주)태금정 회장)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9월 23일 조계종 부산연합회교육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속에 깃든 불교의 정신문화를 되짚어보고,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보존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응현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학술원장, 성암사 주지)의 '왜 불교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인가?'에 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희정 위원(문화재청 부산항 문화재감정위원)의 '한국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가치'와 최은령 위원(문화재청 김해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의 '한국의 불교전래와 불상의 조성' 등 주제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 하만경 교수(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전 부산교수불자회장)를 좌장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희정 위원은 "우리나라 국보 총 308건 중 불교문화재는 절반을 훨씬 웃도는 173건, 보물 총 1573건 중 989건이 각각 불교문화재이며, 유네스코에 등재한 총 27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불교관련 문화재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직지심체요절 해인사대장경판 및 경판 영산재 등 총 6건에 이른다"며 "불교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사명 대사 열반 401주기 추모법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호국성사 사명 대사의 열반 401주기 추모대법회가 부산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사명 대사 추모대법회를 9월 23일 부산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사명 대사 호국광장에서 봉행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호국의 대성(大聖)인 사명대사는 국가와 국민이 풍전등화로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는 납자의 몸을 던져 왜장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적군을 퇴치해 나라와 민족이 안심입명케 한 영웅"이라며 "임진난을 승리로 이끈 서산대사, 사명대사, 기허대사 등 큰스님들의 큰 뜻을 기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국정토로 만들자"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파계사 도로 단장

대구 팔공산 파계사는 올 2월부터 9억 예산으로 시작된 파계사 진입도로신 관계자 여러분과 그 동안 불 정비 불사 준공식을 9월 27일 마련했다. 준공식에는 파계사 조실 청운 스님, 주지 법광 스님, 이재만 동구청장, 최희철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파계사 진입로는 기존 폭 4m도로를 6m로, 800m 구간을 새롭게 확장해 아스콘 포장과 사면 울타리에 대한 석축시공, 전신주 정비, 일주문 앞 교량정비, 차선도색 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주지 법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원만히 준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파계사 사부대중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날 법회에는 환성사 주지 성담 스님과 금봉선원장 혜국스님 등 500여 대중이 모여 복원불사 낙성을 축하했다.

환성사 복원불사 봉행

16나한 이운대작불사 낙성법회도 함께

경북 환성사(주지 성담)가 복원불사 및 16나한 이운대작불사 낙성법회를 500여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9월 20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복원불사 경과보고와 주지 성담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후 혜국 스님의 법어와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 고 문



재단법인 만봉불교재단은 불교문화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8-1번지에 만봉사, 만봉불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사로서 재단운영에 도움을 주셨던 등인스님(박인숙), 등원스님(이성옥), 청하스님(이희진), 정우스님(홍혜정) 스님이사분들이 2011년 7월 11일 재단 이사직을 함께 사임하였기에 재단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오며, 이에대해 불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올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에 말씀을 전합니다. 혹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에 출연되었던 망경산사도 분리되어 본 재단과는 무관한 단체임을 공고하오니 불자님들에 혼동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5년(2011)년 9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8-1

재단법인 만봉불교재단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2 신원빌딩 7층 만봉불교재단 분사무소
| T E L : 02)333-5010 FAX : 02)333-9332
| 담당자 : 최광해 사무총장 010-8365-7595 / 최계식 사무장 017-744-596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참선만 잘하면 재벌도 되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

봉은사 선지식 법회 다섯 번째… 무여 스님(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

서울 봉은사가 매주 일요일 열어 온 선지식 초청 일요법회가 9월 25일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 무여 스님의 법회를 끝으로 원만히 회향했다. 이날 무여 스님은 주제법문 '선 수행의 공덕과 그 효능'에서 "모두가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수행에 정진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수행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무여 스님의 법문 요약이다.

정리=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옛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선(禪) 수행을 통해 성공하고 출세해, 세상을 움직이는 인류의 스승이 됐습니다. 오늘 법문은 선 수행으로 마음을 닦으면 어떤 공덕이 쌓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미국의 한 스님이 기사 하나를 스크랩해서 보내왔습니다. 어떤 정치인과 경제인, 학자가 레스토랑에서 점심공양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정치가가 경제인에게 "자네, 참선에 대해 아는가"라고 묻자 경제인은 "참선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치인은 "참선도 모르는가, 자네는 재벌이 못 되겠네"라고 답했습니다. 정치인은 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대는 참선을 아는가?"하고 물었습니다. 학자 역시 "나도 잘 모르네"라고 답했습니다. 정치인은 "자네도 노벨상 받기는 어렵겠네"라며 "자네들이 재벌이 되고 노벨상을 받아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참선을 하게"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제인 대부분의 꿈은 재벌의 아성을 쌓는 것이며 학자들의 꿈도 학문으로 대성해서 노벨상 같은 큰 상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는 참선을 모르면 크게 성공하고 출세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선불교가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선이라고 하면 마음 수행을 넘지 못 하고 있는데,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선을 대승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건 남보다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수행을 안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쉬고 놓으라

부처님이 깨치시고 난 뒤 첫 마디가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꼭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도 부처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훌륭하신데 나는 왜 부족하고 못났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본래 망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의 여러 생(生)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수백 수천의 생(生)을 살면서 온갖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업이 되면서 삼독심이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를 볼 수 없고 본래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먹구름이 끼면 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흐린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며 이것이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음을 쉬고, 비우고,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체 생각을 쉬고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어른들은 "천 번 쉬고, 만 번 쉬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도 "쉬면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임제 스님도 "쉬면 곧 청정법신이다"고 했습니다. 쉬면 부처님의 몸을 가진 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놓으면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고 비우고 놓아서, 쉬고 비우고 놓는 다는 생각까지 쉬고 비우고 놓아야 한다. 달마 스님은 "마음이 장벽처럼 튼튼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心如障壁 可以入道]"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무심지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요, 열반의 세계입니다.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육조 스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24살 노총각 때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한 짐 지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상점에서 누군가 금강경 중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을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말을 듣고 육조 스님은 깨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쉬고 비우고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쉬고, 비우고, 놓지 못 하는가. 이 중생의 삶 자체가 망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라실 때 어릴 때부터 책을 봤을 것입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중무장하고 책 속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마음공부에서는 본래망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 덕분에 인간이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점점 더 불행하고 괴로워지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식인일수록 수행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대체할 만한 최상의 수행법이 화두참선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화두선의 네 가지 효능

화두 참선은 화두에 의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입니다. 화두는 의정을 일으켜야 깨칠 수 있고, 마음을 온전히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선을 하면 어떤 효능이 있고, 공덕이 쌓이는가.

첫 째로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나는 누구인가하는 화두를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꾸준히 들다보면 진정한 어정에 통달합니다. 그러면 화두가 또렷해지면서 본래망상이 없어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즐거움의 극치가 극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도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그래서 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 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을 잘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화두의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일체 본래망상이 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화두가 더 힘차게 들어서 더 고요해지면 마음은 더 맑고 깨끗해집니다.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흐린 마음이 사라지고 근본 자성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 바탕은 부처와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와 같은 덕성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고,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얻는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참선으로 얻은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참선은 젊은 사람, 남보다 앞서가려는 사람,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 주리반특가는 저능아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는 쓸고 닦기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리반특가는 쓸다가 닦는 것을 잊어버리고, 닦다가 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념으로 쓸고, 닦다보니



깨달을 수 있다는 마음 중요
수행으로 본래망상 제거
쉬고, 비우고, 놓아야
진정한 행복은 '선(禪)'

어느 날 주리반특가는 진정으로 깨우침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화두나 염불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참선을 잘 하면 둔재가 천재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고, 범부가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두가 들려 있으면 좋습니다. 화두의 의정이 들어 순일 상태까지 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회사에 빨리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출근하자마자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게 하는 것이 화두선의 장점입니다. 주부들도 살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화두입니다. 무슨 일이든 정신을 집중하면 좋습니다. 세계적 기업 도요타 자동차의 표어는 '집중력을 키우라' 입니다.

네 번째는 참선을 잘 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던 건강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웬만큼 아픈 것도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도 수행을 하면 병약한 사람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생사를 초탈하기도 합니다. 동산 양계 화상은 큰스님 중에서도 큰스님입니다. 스님은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치시고, 스님들과 차 공양을 나누시다 일어서시더니 "나는 이제 갈라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이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라고 묻자 "잘 있게"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시더니 방에 들어가셔서 앉은 상태 그대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건강이 아직 열반에 드실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너무 당혹해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계 화상은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대중들에게 호통을 치신 뒤 7일간 안심법문을 펼치셨습니다. 7일 뒤 양계 화상은 "이제 가도 되지? 잘 있게. 난 가네"라고 말한 뒤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염불과 참선을 깊게 하시다보면 생사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

선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류의 꿈은 점차 현실화됐습니다. 외형은 성장했고,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괴로운 시대입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 인륜, 반 사회적 사건도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바빠 내면에 관심을 못 가졌던 것입니다.

화두를 하는 사람은 선정, 염불을 하는 사람은 염불삼매에 들어보십시오. 선정과 삼매에 들면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저녁이고,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절에 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진해야 수행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수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닦으면 밉던 남편의 얼굴도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남편이나 부인의 얼굴이 부처님처럼 안 보이면 불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평화로운 얼굴로 변하고 향기가 납니다. 수행을 깊이 하면 삼라만상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불자는 달라야 합니다. 절에 한 번만 와도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도 한 번만 해도 인생의 변화를 가져 올 정도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 많은 조사들도 엄청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불가의 선어록은 어떤 진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무수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실천만 하면 됩니다. 실천을 통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四柱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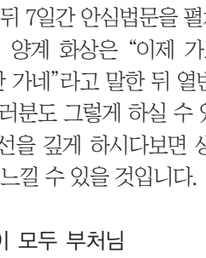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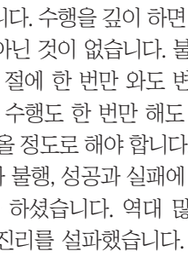
子平眞詮 精解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중화민국대의 대명학리자 서락오(徐樂吾)의 설을 인용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평진전을 읽고 난 뒤에 적천수를 읽어야만 적천수의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744쪽 /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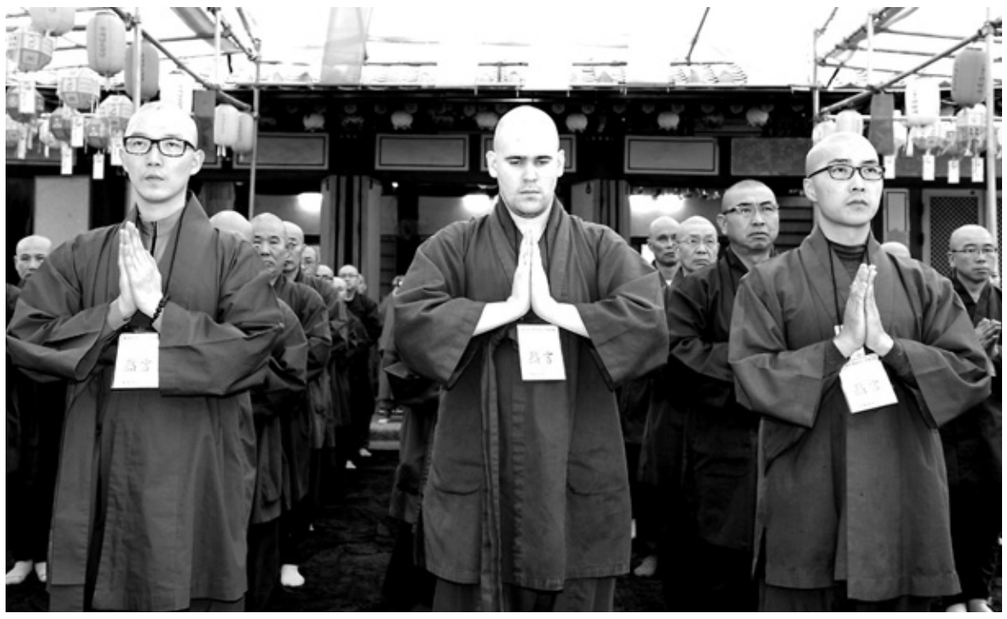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101명의 행자들 '부처님 품으로'

선암사 수계자 입제식 봉행



101명의 행자들이 합동득도 수계자 연수교육 입제식을 하는 모습

한국불교 태고종은 제36기 합동득도 수계자 연수교육의 입제식을 9월 2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입제식에 참여한 행자 101명(남 66명, 여 34명, 외국인 1명)의 출가자들은 입제식을 시작으로 21일간 연수교육을 받고 사미,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연수교육은 목우 스님(선암사 강주), 성암 스님(선암사 총무), 진봉스님의 지도 아래 예경의식,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아나빠나사띠 등을 이수한다. 특별 강의로는 태고종 종헌종법 포교와 사회복지 범음범패 사미율의 부처님일생 태고종사 불교의 리더십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과 정근 강의 운력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수계식에 앞서 18일에는 경내 중간부도탑에서 대웅전 앞 특설도량까지 1.2㎞를 일보일배로 진행한다.

연수교육을 마친 행자는 10월 19일 수계식을 봉행하고, 종단 교육기관인 선암사 전통강원과 동방불교대학, 보덕사 비구니 전문 강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뒤 정식 승려가 된다.

이날 입제식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큰스님은 법어를 통해 "출가자는 대신심과 대분심, 대의령, 입지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며 "원력을 갖고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어에 앞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수행자의 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진리를 실천하는 고행의 길이다"라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태고종의 수행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7년 만의 다시 서기 지켜봐주세요"

군산대 대불련 회장 이종헌



개교초창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며 재학생들의 신행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던 군산대학교 대학생불자회(이하 군산대 대불련)가 회원가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체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건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6~7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대 대불련을 재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이종헌 (경영회계학부 3)학생은 작년부터 몇몇 법우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포스터를 제작해 교내 곳곳에 부착하는 등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동국사 종걸 스님과 고선풍 명예교수(경영회계학부), 최강득 교수(회계학)의 적극적 후원으로 군산대 대불련 재창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대 대불련이 해체되고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수년간 공백이 너무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해체됐던 군산대 대불련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군산대 대불련 회장 이종헌 학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우선은 군산대 대불련의 존재가치를 교내외에 알리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홍보포스터를 교내 곳곳에 돌리고 홍보물을 학생회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많은 문의 전화를 받을 때 마다 다시 새로운 힘이 넘칩니다."

이종헌 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에 입문해 매주 열리는 전북불교회관의 어린이 법회에 참석해 왔다. 자연스럽게 불교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종헌 학생은 중학교 때 발견된 무릎부위 악성종양으로 다리가 불편하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여러 차례 수술로 학업에 공백이 생겨 2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군산대에 재학 중이지만 후배들을 챙기면서 대불련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종헌 학생은 "창립법회 후에는 성지순례를 겸한 MT나 산사체험을 통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통해 탄탄한 팀웍을 다질 생각이다.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동아리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적극적인 회원 유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대 불교학생회는 군산동국사 종무 종걸 스님, 고선풍 명예교수의 도움으로 군산대 학생종합회관에서 9월 24일 재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군산대 대불련은 종걸 스님을 지도법사로 고선풍 교수를 지도 교수로 추대했고, 재창립 법회에는 재학생과 동문, 허양 군산신도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걸 스님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했으나 현재 불교인구는 15억 명에 이르고 있다" 며 "선배 동문들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재학생과 동문은 학업과 신행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지역의 각 사찰, 신행단체 관계자들은 군산대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불련 동문회와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는 군산대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문화축제 봉행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나눔 공동체 실현과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문화축제 '선운,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를 꿈꾸다' 를 9월 24~25일 3000여 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지 법만 스님은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 를 낭독하고 "선운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적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제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음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도법 스님 초청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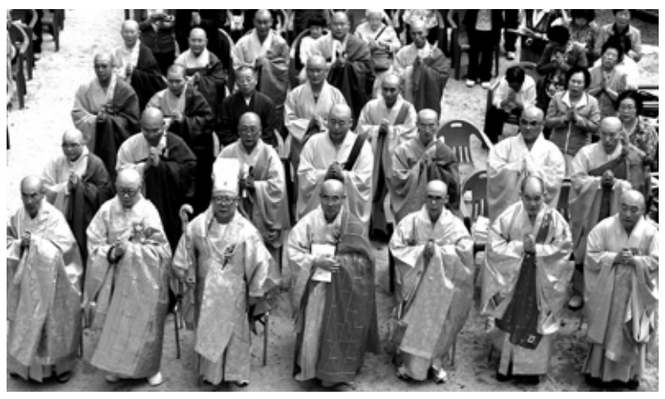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초청법회를 9월 25일 4층 큰 법당에서 봉행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종교란 대중 모두에게 안락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사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스님은 "마음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음' 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깨달음의 실천이요, 이것이야말로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혜국 스님은 "이웃종교로부터 공감 받고 환영 받는 것이 한국불교의 미래이다" 며 "불자들은 마음으로 진정한 부처 보살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항 안향사 창건, 낙성식 열고 나눔도량 다짐



9월 25일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안향사 창건 낙성식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포항 남구 장기면 월산 안향사(주지 조향)는 창건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산사음악회와 함께 9월 25일 열었다.

행사에는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 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포항승가연합회 혜봉 스님, 교계 스님 지역기관·단체장 및 영천 충효사 3사 순례단과 2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안향사 주지 조향 스님은 "포항 남구에 위치한 월산은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대자연인 영산으로 부처님이 상주하시고 하늘이준 복을 누리는 곳이라하여 안향사라 명명하고 마음의 쉼터를 창건하게 됐다"며 "불자님들과 이웃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모두의 쉼터이자 수행공간, 생태도량, 나눔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가꾸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심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주지스님의 법력과 신도 여러분들의 신심에 힘입어 국운이 융창되고 국민이 화합되어 국가와 사회, 가정, 개인이 불력과 법력으로 충만하길 삼가 분향 삼배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식순은 점안의식 집전, 2부 창건 낙성식 대법회, 3부 기념 산사 음악회 한마당으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무주상보시 실천 앞장"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종)는 불교봉사조직인 '연화공덕회' 창립대회를 9월 26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고 본격적인 지역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한 연화공덕회는 사암연합회와 함께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상종스님은 "연화공덕회는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도원사,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전남 화순의 도원사가 9월 24일 경내에서 사찰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도원사는 8가구 소년소년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김용님 정현 정주호 진주아 씨 등이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정암(선각종 종정권한대행), 진철 스님(도원사 주지)을 비롯해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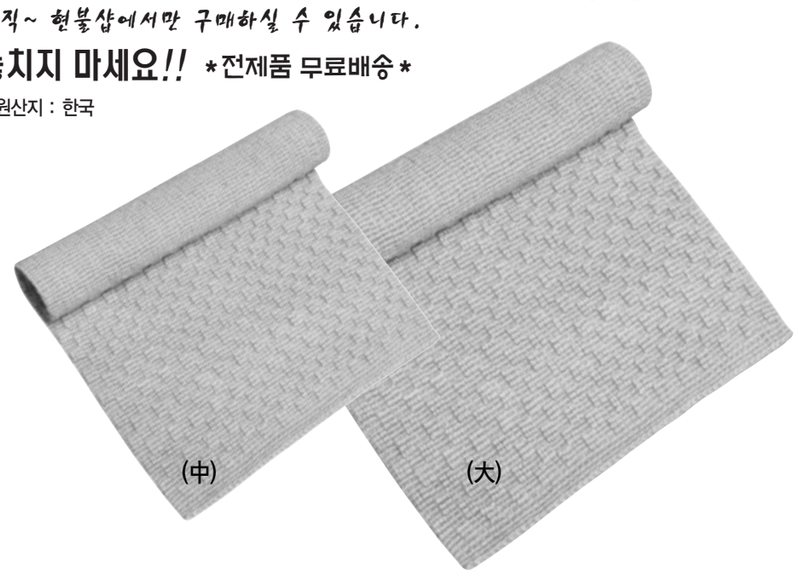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대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2011 빛고을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 –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불경은 쓸 데 없으니, 일본에게 다 줘버려라”

‘2011 빛고을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로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이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이라는 책을 통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오윤희 소장은 ‘만국무쌍(萬國無雙)의 선본(善本)’인 고려대장경이, 조성 천 년을 맞아 세상 밖으로 나온 의미와 대장경의 가치, 앞으로 대장경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등에 대해 의의를 밝혔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팔만대장경은 재조대장경

저는 오늘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생각과 의도에 대한 기억들을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결집의 소산입니다. 아난과 가섭의 시대에는 삼장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면서 기억들도 확장됩니다.

확장된 기억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그릇, 삼장보다 훨씬 큰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대장경이란 용어는 그런 요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확장될 수밖에 없는 기억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대장(大藏)입니다.

고려대장경은 한문대장경입니다. 목판인쇄술로 조성된 목판대장경입니다. 전면적인 교정을 거쳐 완성한 교정 대장경입니다.

현재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은 교정증보를 거친 고려재조대장경입니다. 고려 초조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한 연도는 1011년(현종 2년)입니다. 이 대장경을 천년의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우리는 몽고 침략 때 불타 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장경을 새긴 것이 재조대장경인 것입니다.

초조(初雕)라는 말은 ‘처음으로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목판에 도장을 새기듯 글자를 새기고, 도장을 찍듯 찍어서 책을 만드는 이른바 목판인쇄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에 새기기 시작했던 목판대장경으로 송나라 개보대장경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새겨진 대장경입니다. 이 대장경을 처음 새긴 대장경이라 한 까닭은 두 번째로 새긴 재조대장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인사에 보존돼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것입니다.



고려 초조대장경을 비장(秘藏)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초조대장경이 일본 교토에 있는 남선사라는 사찰 수장고 안에 감춰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선사의 비장에서 초조대장경의 일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산실돼 전하던 초조대장경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1965년 한국학자 천혜봉에 의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때까지 초조대장경은 공식적으로 ‘몽고군의 침략 때 소실된 대장경’이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초조대장경 인쇄본의 일부가 일본에 보존돼 왔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남선사의 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본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다 해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의 예처럼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론도 학문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초조본만 해도 300권에 달합니다.

고려대장경은 아름다움의 극치

〈사곡백련사인징화상행업기〉에는 “당·송·원 세 나라의 대장경들은 오래 전에 한국에 들어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채 여러 지역의 고찰에 남아있다. 이 경본들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세 나라의 20여 종의 대장경 외에 조선교정각판장본(校正刻板藏本)이 있다. 이는 지역 여러 사찰에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일뿐더러 완전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만국에 견줄 데가 없는 완전한 경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구절은 일본의 인징(1645~1711)이라는 학승이 남긴 말입니다. 정토종의 승려였던 인징은 〈심지관경(心地觀經)〉을 읽으면서 당시 일본에 유통하던 ‘황벽장(黃蘗藏)’에서 다수의 오류들을 발견하고 교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대장경의 대교(對校)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4년에 걸쳐 고려대장경과 명북장에 대한 대교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조선교정각판장본이 바로 고려대장경이자 재조대장경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입니다. 당·송·원 등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성됐던 어느 대장경도 고려대장경에 필적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징 스님 이전부터 일본에는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징 스님에 의해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은 전설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려대장경에 대한 인징 스님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징 스님이 고려대장경을 다른 판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무결한 교정본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日 인징 스님, 고려 대장경 극찬
조선 억불숭유 정책으로 대거 망실
쓰레기처럼 대장경 인쇄본 처리
천 년 만에 디지털화로 다시 태어나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평가가 있었기에 일본에서는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아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만국무쌍(萬國無雙)의 선본(善本)’이라는 말은 불교 문헌의 표준화를 뜻합니다. 당시 고려대장경은 국제 표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고려대장경에 대해 분명한 가치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려대장경이라는 명칭을 비롯해, 팔만대장경 초조·재조·속장경 등의 명칭이 있지만 모두 가치평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징 스님은 능소 양면에 걸친 고려대장경의 특성을 미와 선이라는 가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교정각판장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두드러진 의의입니다.

억불숭유로 대장경 남아있지 않아

고려대장경은 목판본이기 때문에 인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찍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들어 그 인쇄본들은 현재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대장경은 이단의 책이므로, 비록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가하다. 더욱이 인접한 나라에서 구하니, 마땅히 아끼지 말고 줘야 할 일이다.” “불경을 일본에 주는 것으로 말하면 국가에 쓸데없는 물건이라 해 다른 나라에 버리니, 이는 우리나라가 불교를 받들지 않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웃나라가 구하는 것을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찾아서 주니 교린하는 의리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경은 인징 스님이 찬탄해 마지않았던 고려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을 원하는 일본사절에게 대장경을 주는 일은 쓸모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교관련 문헌들을 일본이든 어디든 쓰레기를 처분하듯,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장경이란 키워드로 조성왕조실록을 검색하면 150여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대부분 조선 초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사들은 초기 몇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장경을 구하러 온 일본 사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성종 때에 가장 성행하다 명종 이후로 단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상 줄 대장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종 이후에는 대장경은 물론 변변한 불교 관련 서적은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려대장경 목판이 남아있지만 이후에 인출한 기록도 없습니다.

일본 사절들은 조선에서 얻어 간 대장경을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 모셨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만국무쌍’이라는 찬탄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그릇을 위해

목판은 타버렸지만 인쇄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 두 권의 분량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다는 300권의 존재도 기이할 뿐입니다.

디지털화 사업이 끝난 것이 천 년을 딱 한 해 남긴 때였습니다. 천 년 동안 숨어 있던 대장경이 천 년이라는 생일을 맞아 세상 밖으로 제 발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실존을 볼 수 없을 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초조대장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디지털로 화현한 숱한 초조대장경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 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러 2500년 전의 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시대, 그릇이 깨지고 뒤집히는 시대, 그릇을 밥 먹듯 깨트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잇습니다. 대장경의 꿈은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그릇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 담는 일은 깨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꺼내기 위해서 깨트려야 하기도 하지만, 담기 위해서도 깨트려야 합니다. 꺼내고 담는 일은 그릇의 모양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숭산당 행원대종사 사리탑비 건립 발원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으며 지구촌의 정신적 스승이셨던
故 숭산당 행원대종사님의 업적을 기리는 사리탑비 건립을 발원 합니다.



세계는 한 송이 꽃 ‘世界一花’ 임을 제창하셨던 만공 큰스님의 선지를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1966년 재일홍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 나라에 120여개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벽안의 납자와 제자들을 제접,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한 생을 바치셨던 대종사의 큰 뜻을 기리고자 열반8주기에 즈음하여 사리탑비 건립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표석으로 삼음은 물론 대종사의 행장이 후손만대 전승,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포교에 진력하시는 문도스님을 비롯하여 해외 포교 역사를 개척하시는 선각자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숭산당 행원 대종사 사리탑비 건립추진위원회
건립부지 : 화계사 부도전 02)992-1073



설계_숭산당 행원대종사 문도회 · 비문_숭산당 행원대종사 문도회 · 시공_금호석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삼국유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연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의 기록



인각사에 있는 보조국사 정조지탑. 일연 스님의 부도로 보물 제428호로 지정돼 있다.

역사를 보는 눈

우리는 직립이라는 사건을 통해 역사적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들은 언어의 발견을 통해 문화를 창안했고, 도구의 발명으로 문명을 탄생시켰다. 인간에 의해 변화 발전되어온 문명과 문화의 자취와 기록은 역사가 되었다. 문명과 문화의 흔적인 기록과 유물과 유적 등은 사료(史料)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온축된 사료들은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역사로 자리매김 된다. 역사 해석은 곧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남아있는 문헌의 총체인 사료들을 통해 해독작업을 시작한다. 이 해독작업을 우리는 '역사 해석'이라고 하고, 역사 해석을 지배하는 사가의 인식 체계 혹은 관점을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사관의 문제는 해당 철학 또는 해당 역사의 세계관이 된다. 붓다는 "나는 세간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데 세간이 나와 더불어 싸운다"고 말하면서 인간 중심의 철학사관을 제시했다. 나아가 붓다는 "나는 한결같이 이것을 설하니 이것은 말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할 것은 말한다"고 했다. 그런 뒤에 우리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할 진정한 길로서 사성제(四聖諦)를 제시했다.

사관은 역사를 보는 눈이다. 즉 사관은 하나의 팩트(사실)가 머금고 있는 시공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다시 말해서 사관은 역사기술의 주체인 인간(역사가)과 그 인간이 직면하는 세계(사실, 사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동서 고금의 사가들은 저마다의 관점 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해 왔다. 역사해석을 지배하는 사가들의 인식체계인 사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과거 한 시점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역사가의 현재의 관점 혹은 견해로서 지속적으로 해석 또는 평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관은 오늘 여기를 사는 역사적 주체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역시 이러한 사관에 입각해 기술한 저술이다. 거기에는 일연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중국의 고승전을 참고했으면서도 체재나 형식 그리고 내용면에서 종래의 승전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전시대 각훈의 〈해동고승전〉과도 변별되고 있다. 대다수 고승전의 찬자들이 같은 승려의 신분이고 그 형식이 고승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명, 편명의 성격, 편명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등에서 일연은 독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편명의 명명과 조목명에 투영된 언어 감각과 시인적 감수성, 찬시와 민요 및 향가 등 작품의 배치와 수록, 138조목의 분류방식, 서두의 「왕력」편, 비평적 시각에 근거한 명료한 할주(割註) 등에서 우리는 이 사서를 편찬하고자 했던 일연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

불교적 세계관

불교의 우주관은 수미산 중심과 연화장 중심으로 해명한다. 이 두 세계관은 모두 이 세계의 최저에 풍륜(風輪)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풍륜은 중생들의 공동업이 만들어낸 무명(無明) 업풍(業風)의 띠이다. 그 위에 수륜(水輪)과 금륜(金輪)이 있고 금륜의 한 복판에 수미산이 있고 그 주위에 7산(山)과 8해(海)가 있으며 맨 바깥의 철위산 밖에는 4대륙[洲]이 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업설(業說)에 기초한 연기적 세계관으로 요약된다. 업설이란 중생과 세계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만상은 모두 중생들 각자의 업력(業力)에 이루어진다는 담론이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뜻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동작과 말로 발표하여 업을 짓게 되고 그 업력을 심층의식으로 잠재세력화시킨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불러온다. 우리는 전생에서 자기가 뿌린 업력의 종자에 의해 지금의 과보를 받는다. 즉 죽음(死有), 죽음이후(中有), 태어남(生有), 죽어감(本有)의 차례로 업을 짓고, 업에 의하여 윤회 전생하며, 이 업력에 의해 국토도 물질의 원소들을 모으고 흩고 하여 세계를 이룩한다.

깨침[悟]의 세계에서와 달리 미혹[迷]의 세계 속에 사는 중생에게는 여섯 갈래로 나아가는[六趣] 차별이 있다. 모두 각각의 주체인 중생과 중생이 의지하여 사는 국토, 즉 자신의 업력에 의해 몸과 세계 사이를 끊임없이 윤회 전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업설에 기초한 업감(業感)연기론은 계속해서 다른 형식으로 변주되어 간다. 유식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뭇삶 각자의 아뢰야식으로 상속되어 그 아뢰야식이 우주만상을 변현시킨다는 (아)뢰야(阿)賴耶)연기설로 해명한다. 여래장에서는 우주 만상이 모두 일심진여(一心眞如)의 이체(理體)로부터 일어난다는 진여(眞如)연기설로 설명한다. 화엄에서는 법계(현상계)의 사물이 천차만별하지만 상호교섭[相卽]과 상호투영[相入]의 원리에 의해 무애자재하게 연기하므로 피차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법계(法界)연기설로 언표한다.

'서로 의존하여 함께 존재한다'는 '연기'의 개념에는 연생(緣生)과 연멸(緣滅)이 동거하고 있다. '의해서 생겨난다[緣生]'는 것은 무명에서 노사로 나아가는 고통 생성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반면 '의해서 사라진다[緣滅]'는 것은 '노사'에서 '무명'을 거쳐 '깨침'으로 나아가는 고통 소멸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무명의 업풍으로부터 연생한(成住, 生) 우주와 우리는 '괴공(壞空)'과 '노사'의 연멸로부터 본디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나의 역사는 나의 업의 흔적과 자취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업의 흔적과 자취의 연기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개인의 업과 공동의 업의 연기로 인해 세계와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해서 불교의 업설은 연기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무수한 인연들의 도움과 협동이 전제되었다. 해서 연기를 부정하는 브라흐만과 아트만과 같은 어떠한 고정 불변하는 존재로서 나의 자기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와 고(苦)인 나 역시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은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에 깊이 투영된 인물이다. 그는 출가자로서 종래의 일반사를 불교의 우주관에 입각해 오늘의 불교사로 재구성했다. 그는 전통적 하느님인 '환인'(桓因)을 '제석(帝釋)'으로 비정했다. 이것은 이 땅의 역사를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새롭게 기술한 것이다. 그는 안함(安含)과 자장(慈藏) 이래 비롯된 '과거불연국토설'을 이어 이 땅을 과거부터 부처와 인연이 있던 나라로 설정하고 있다. 불연국토설에 입각한 과거불국토사상은 신라의 왕통은 불타의 종성인 찰리종이고, 신라 고도 경주 황룡사에 남아있는 '가섭불연좌석' 자리는 전불(前佛)시대에 가섭불(迦葉佛)이 앉았던 터이며, 황룡사 장육상의 조성은 불국 유연설(有緣說)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역사에 대한 견해 · 입장이 사관
사료의 해독작업이 역사의 해석
사관 견해, 곧 역사의 세계관 돼

〈삼국유사〉 불교세계관으로 쓰여
일반사를 불교사로 재구성해 저술
일연은 곳곳서 보살적인간상 담아

불교적 인간상의 제시

불교는 연기성(緣起性)과 무자성성(無自性性)과 공성(空性)의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비행(慈悲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불교는 아라한상과 보살상을 통해 붓다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라한은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적 인간상이다. 그는 자기의 깨침과 구원에 힘쓸 뿐 타인의 깨침과 구원은 도외시한다. 반면 보살은 자신의 깨침과 구원은 괄호치고 타인의 깨침과 구원을 앞세운다. 그런 뒤에 그는 자각을 위한 노력과 구원을 위한 노력을 원만히 완수한다. 그리하여 그는 바라밀적 삶의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을 뿌리 뽑아주고[拔苦, 悲] 즐거움을 건네준다[與樂, 慈]

일연의 화두는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生界不減]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는다[佛界不增]"였다. 어떻게 해야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해야 중생이 스스로 부처임을 각성하고 부처의 세계를 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연은 평생을 출가 수행자로 살았다. 출가자는 집이 있는 곳[信家]에서 집이 없는 곳[非家]을 향해 집을 벗어나는[出家] 사람이다. 일연은 몸의 출가만이 아니라 마음의 출가에 철저한 수행자였다. 그의 화두에는 '중생과 부처의 이분'을 없애기 위한 절절함이 배어 있다. 원나라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고려 백성들을 보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는 육당(崔南善)의 언급처럼 "석교홍통(釋教弘通)의 역사적 사실을 철합(綴合)하기에 주력(主力)을 주(注)한 김부식의 독단적 괘오를 정정(訂正)하고 전반적인 편파를 광구(匡救)하려"고 했다. 또 "〈삼국사기〉의 주관적 자고(自錮)와 무단적(武斷的) 천폐(擅廢)에 반(反)하야 고기(古記)의 유주(遺珠)를 원형대로 수철(收綴)하야 박고(博古)와 아울러 전기(傳奇)의 자(資)를 삼으려"고 했다. 때문에 일연은 〈삼국사기〉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사료를 "귀[耳]와 눈[目]과 손[手]이 미치는 것이면 문득 채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삼국유사〉 찬술이 개인의 애국심을 넘어 대승의 보살심으로 이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여러 조목에서 보살적 인간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자장의 아상을 깨어주기 위해 있었던 문수보살의 현신 이야기를 싣고[慈藏定律], 효소왕의 아만을 일깨워주기 위해 진신 석가의 화신인 승려를 등장시키고 있다[眞身受供].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모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옷가지를 다 벗어주고 거적풀로 긴 겨울밤을 떨면서 보낸 정수대사의 보살행을 수록하고 있다[正秀師 救氷女]. 뿐만 아니라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소한 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며, 한 세계에서는 한 부처만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경설과 달리 한 세계에 두 부처의 존재를 제시하기도 한다 [南白月山 二聖努肹夫得 怛朴朴] 뿐만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경설과 달리 여인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한다[郁面婢 念佛西昇]. 나아가 도가 계통의 인물로 언급되는 선도성모 조차 끝내는 산신이 되어 나라와 국토를 진호(鎭護)하고, 한 가난한 여인(智慧 비구니)의 소원을 들어 불상 조성을 성취시킴으로써 민중을 위한 제도의 길을 열어놓는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호의존의 속성을 지닌다. 동시에 상호의존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참모습을 통찰하게 되면 상호존중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붓다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여래는 법을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고 개발하여 드러내 보인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이 연기의 바다는 참으로 깊다. 감히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머리의 앎'과 '가슴의 함'을 넘어 '온몸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연은 "중생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평을 살았다. 그에게 중생과 부처의 통로는 보살적 삶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삼국유사〉의 찬술로 표출된 것이 아니었을까? 나아가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살피며 〈삼국유사〉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미얀마 연방 공화국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대표부 승격
한국주재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승격



새 롭 게 태 어 났 습 니 다

한국에서의 단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관광청과 문화원 대표부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관광청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고 보니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얀마 문화를 알리는 양국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연방 공화국 호텔 및 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신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의 개척 으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성스러운 곳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전국 각종단과 불교 단체 큰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성지순례에 따른
설명회와 각종 불교 행사 및 봉사활동, 인간방생 법회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열락주시면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성실하게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문화원 : 02)733-5665. 관광청 : 02)733-5670 팩스 : 02)733-5671

타 단체 및 여행사에서 한국내에서 미얀마 관광청 및 관관청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잘났는데 자애로워 모함 줄 잇던 다산의 숨결 가득

강진 백련사

동백 숲에 꽃 없어도 절이 있어 아름답다

동백 숲의 짙푸른 잎들이 비에 젖고 있었다. 지혜장은 무심한 빗줄기너머 동백 숲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다. 우산을 든 부부는 어느새 요사채 앞마당에 도착했고 비에 젖은 배롱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두 사람을 반겨주었다. 동백 숲에 꽃은 없어도 이렇게 절이 있어 아름다움은 더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진리의 아름다움은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니까.

백련사 만경루. 그 앞에서 구강포 쪽을 바라보니 경치가 일품이었다. 커다란 느티나무와 축대 모서리에 홀로 선 큰 키의 부도 하나, 그 너머로 동백 숲을 지나 희뿌연 운무가 오르는 곳이 바다일 터. 다시 그 너머에는 고려청자 생산지 사당리가 있을 것이다.

종무소와 찻집으로 나눠진 누각 아래를 거쳐 법당 앞에 서니 찌뿌드드하던 몸이 가벼워졌다.

알맞게 빛바랜 단청이 팔작지붕의 공포를 찬연하게 장식하는데 중앙에는 두 개로 나눠진 현판에 '대웅' '보전'이 써져 있었다. 앞으로 튀어나 온 익공(翼工)을 피해 걸려 있는 현판의 글씨는 인근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서체. 뒤 돌아 보니 누각의 중앙에 걸린 '만경루(萬景樓)'도 같은 솜씨다.

현판 옆의 기둥 윗부분에 조각된 황룡과 청룡은 목을 S자로 움츠리고 있어 여차하면 앞으로 돌진 할 것 같은 포즈다. 많은 절집 건물에서 어간 기둥에 용머리를 조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전통목조건물에는 기둥사괘에서 보 방향으로 나오게 한 부재가 끼워져 있는데 이를 안초공(按草公)이라고 한다. 안초공은 기둥머리에서 밖으로 빠져 나와 평방과 주두 등을 일체화 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일반 건축에서는 꽃잎 끝이 말려들어 간 파련화(波蓮花) 모양을 쓰고 절집 건물에서는 용을 조각한다. 용을 조각하는 이유는 그 전각이 바로 극락세계 서방정토로 중생들을 인도하는 반야용선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네 귀퉁이에 곧은 기둥(活柱)을 받친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문아래 댓돌이 유난히 널찍했다. 대웅전 내부는 그윽했다. 중앙 수미단에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여래가 오른쪽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닫집은 생략되었고 지붕까지 커다란 불화가 모셔져 있는데 근래에 모신 듯 했다. 안쪽의 공포와 들보 기둥의 단청 역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선명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 신비감과 고색을 더해 주었다. 수미단의 양 기둥 위쪽에 눈에 띄는 동물 형상이 있는데, 바라보기에 오른쪽에는 사자같이 생긴 놈이 기둥 밖으로 툭 튀어나와 허공에서 흘낏 쳐다보고 있다. 반대쪽에는 토끼처럼 생긴 놈이 날개를 달고 기둥 밖으로 점프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정면의 탱화 위와 좌우의 보에서는 크고 작은 용들이 머리를 내놓고 참배객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 중 하나는 뭘 입에 가득 물고 머리를 위로 쳐드는 중이다.



대웅보전의 기둥 윗부분에 조각된 황룡과 청룡은 목을 구부리고 앞으로 돌진할 듯한 기세를 뽐낸다.

'결사'로 시간을 초월해 지키는 한마음

"이것도 두 쪽으로 나눠진 현판이네."

나팔수씨가 가리킨 두 쪽의 현판에는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社)'라고 쓰여 있었다.

"어, 그런데 절 사(寺)자가 아니고 회사 할 때 사(社)자네. 이 사자는 단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맞아. 단체라는 뜻이야. 불교에는 결사(結社)라는 전통이 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행 모임을 운영했다는 뜻이지."

백련결사는 원묘국사 요세(1163~1245) 스님이 결성한 수행과 신행 운동이었다.

원묘 국사가 결성한 백련결사는 법화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참회의 생활화를 통해 문수보살의 지혜를 닦고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본받자는 취지였다. 원묘국사는 당초 고려의 흐트러져가는 불교계를 수행을 통해 일신하고자 했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국사의 정혜결사(定慧結社)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배운 천태교의에 입각한 참회와 염불 수행으로 돌아와 백련사를 결성한 것이다. 이 결사에는 관료와 서민 할 것 없이 두루 동참해 당시 정혜결사와 양대 맥을 이루었다. 원묘국사는 철저한 수행 실천가였다. 50년 동안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매일 〈법화경〉을 읽고 아미타불을 1만 번씩 염불 했으며 53불에 예배하며 참회하기를 12번씩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결사의 대표적인 예는 만일염불결사야. 만일동안 끊이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집단 수행 체제라 할 수 있어.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만일염불결사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이런 결사는 직접 수행을 하는 스님이나 신자가 있고 그를 지원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따로 있지. 조직을 꾸리고 기도와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마련하는 팀도 따로 가동됐대. 상당히 조직적인 신행운동인 셈이지."

"아, 불교 역사에 그런 튼튼한 전통이 있는 줄은 몰랐네. 시간을 초월해 대를 이어 그렇게 한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자, 이만 나가요. 동백 숲을 거쳐 다산초당까지 다녀와야 하니까 시간이 빠듯하겠네."

부부는 대웅보전 옆 현판이 없는 건물(삼성각)과 강당을 살펴본 뒤 동백 숲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장전은 해체복원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안에 모셨던 지장보살님과 시왕들은 녹사 판관과 역사들을 데리고 만경루로 잠시 이사를 와 있었다. 백련사 서쪽 마당의 비각 안에는 사적비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


대웅보전 내부

조선 숙종 7년(1681)에 세워진 이 사적비는 옛 고려시대의 귀부와 이수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의 귀부와 이수는 다름 아닌 백련결사의 창설자 원묘 국사의 비였을 것이란 말과 함께. 그 옆에는 최근에 세운 우람한 비가 서 있는데 나팔수씨가 첫 줄을 읽었다.

"전불심인 부종수교 조계종 정화주도 말세법등 동산당 혜일대종사비명"

동백숲 지나 다산(茶山) 만나러 가는 길

동백 숲은 과연 깊은 그늘을 안으로 감추고 빗물을 말리고 있었다. 어둑한 숲에 깊은 침묵으로 앉아 있는 부도의 형체는 분명하지 않은데 숲 너머 빛을 배경으로 근엄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었다. 어느 것도 주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백련사의 부도들은 축대 위와 법당 앞, 동백 숲에 흩어져 있지만, 그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지식의 자태를 오롯이 연출해내고 있다.

숲길은 좁았다. 토끼길 같은 숲길을 따라 다산초당까지는 800m. 다녀오려면 최소한 한 시간은 걸릴 듯했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가 몇 권쯤 될 것 같아?"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백련사 지척에 있어
연못의 석가산 남아 옛 주인의 정취 일러줘

"글쎄, 엄청난 저서를 남겼다는 것은 아는데,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같은 몇 가지 밖에 아는 게 없어서 말이야. 한 300여권 되려나?"

"노우, 틀렸습니다. 1930년대에 사후 100주기를 맞아 다산의 저서 500여 권을 묶은 〈여유당전서〉 76책이 발행됐다고 하는데, 시(詩)만해도 2500수에 이른대. 다산의 학문은 철학 정치 법률 경제 문학 등에 두루 통했고 심지어 의학과 농학에도 깊은 조예를 보였대. 만물박사였다는 얘기지. 진짜 만물박사."

그렇지만 정조와 콤비를 이루며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너무 잘난 게 죄가 되고 너무 자애로운 게 탈이 되어 모함과 탄핵의 중심에 서기 바빴던 게 다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사람은 세상의 어지러운 인연을 초월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법이다. 유배지에서 승화된 그의 사상과 정신은 정치판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유배라는 형벌은 그것을 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이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삶의 문이다.

길은 외길, 부부 외에 어떤 인기척도 없는 좁은 산길이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다산초당은 언제 나오려는지. 백련사 혜장 선사와 교류하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일까 생각하는데, 길 아래로 언뜻 기왓골이 보였다. '드디어 집이 한 채 나오는 군' 하고 생각하는 동안 왼쪽에 멋진 정자 하나가 나타났다. 천일각(天一閣)이라는 이 정자는 다산이 바람을 쏘이며 돌아가신 정조 대왕과 흑산도에서 유배생활 하는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던 곳이라 하여 근래에 세운 것이다.

천일각에 잠시 올라서보니 과연 경치는 그만이었지만 멀리 저물어 가는 마을이 보여 마음이 급해졌다. 부부는 동암과 서암 연못 그리고 다산초당과 다산이 유배를 마치며 새겨 놓았다는 '정석(丁石)'이라는 글씨까지 둘러보았다. 초당 앞마당에 있는 밥상 같은 편편한 돌이 다산이 차를 달여 마신 곳인데 '차 부뚜막'이란 뜻의 '차조'라고 부른다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물소리기 졸졸 들리는 연못은 어둑어둑해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물을 길어 차를 달이고 밥을 지었을 청빈한 선비를 생각하니 한 끼 밥도 한 잔 커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연못 중간에 막돌을 모아 만든 석가산(石假山)은 옛 주인의 정취를 일러주는 듯 했다. 이렇게 정석, 다조, 연못의 석가산에 초당 뒤의 샘물(藥泉)을 합해 다산사경(茶山四景)이라고 한다. 맑고 향기로운 선비, 그러나 시대의 불운을 피할 수 없었던 다산의 유배지는 한국인의 정신 속에서 더 이상 유배당해서는 안 될 성역이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법당 및 사무실 임대

불교 신행단체의
법회, 불교공부, 모임 공간으로 적격
(면적 : 약 50평)

◐ 시 설 : 학습용 좌식책상,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냉난방
좌식 테이블(책상, 식탁 겸용)과 방석 완비
◐ 월 임대료 : 상담후 결정
저희 총동문회와 공동 사용하므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환영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HSBC은행 빌딩 4층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바로 앞)
연락처 : 02)720-1963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불교 승가대학원 종도모집

僧正 (종사)之 儀法. (품광교육)
승정(종사)의 사위법, 점안식시 증명법사의 법행,
천도의식시 법행, 수계식시 존증사 법행,
건당식시 승정(종사)의 장실 법행
종사의 행주좌와, 점찰법 전수 등 신청자 한하여 교재 무료제공.
수료후 수료증 발급 및 승정(종사)법물 증정예정.

◇일 시 / 불기 2555년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개원입교식 및 1차 교육
◇장 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
한국불교 승가대학원 각황사
◇전 화 / 053)325-0400
◇자 격 / 각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각 원장 (대종사, 종사급)
예비승정(차기 대종사, 종사품계 받으실분)
대덕 품계이하 승려는 사절합니다.
◇수 강 료 / 50만원
◇신청마감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교육인원 / 승정(대종사, 종사급) 이상 30명 제한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2매(교육시 신분증발급)
최종 법계증 복사본 1부 첨부.
◇보 낼 곳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 각황사
◇신청문의 / 053)325-0400. 053)325-5288.
팩스 053)325-4848. 010-3900-3050.

한국불교 승가대학원
대학원 원장 / 묘각 · 승정학 처장 / 운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원각사 10층 석탑

종로 원각사(圓覺寺)

1970년대 종로는 젊은이의 거리였다. 이곳에 많은 학원이 있어 사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넘쳐 났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이곳은 대학생들의 주무대였다. 1980년대 들어서 학원이 4대문 밖으로 이전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종로는 조금씩 나이가 들었다. 아직도 강북의 청년들에게 종로는 젊음의 발산지이지만 종묘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해가는 세월을 느낄 수 있다.

현재 탑골공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원각사의 옛터이다. 원각사 이전에는 흥복사(興福寺)였다. 고려시대부터 이곳에 흥복사가 있어 한양으로 천도한 태조는 기우재와 신덕 왕후의 대상재(大祥齋) 등 많은 국행불사를 이곳에서 봉행했다. 국가를 위한 국행불사 관례는 불교배척이 심했던 태종과 세종 때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배불의 영향으로 흥복사의 사격은 점점 축소됐고, 도성 안에 있었던 탓에 국사시책에 필요한 장소로 이용되는 일이 많아졌다. 세조 3년(1457) 경에는 이곳에 관습도감청(慣習都監廳)이 들어섰고, 세종 4년 8월에는 이곳에 진제소(賑濟所)를 두어 굶주리는 자를 모아 구휼했다. 지금으로 보면 무료급식인 셈인데 그 덕분에 생명을 보전하여 살아난 자가 많았다 하니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이곳은 도성 안에서도 요충지였던 까닭에 각 관청이 탐을 내면서 사찰의 경계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자 세종 7년 호조는 이곳을 중부(中部)로 하고 관리자를 두어 얼마간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0년(1464)에는 악학도감(樂學都監)이 들어섰으며, 11년(1429) 1월에는 중국 사신들이 오면 묵는 태평관을 고쳐 지으려 할 때 이곳이 거론되는 등 수난은 계속됐다.

흥복사의 수난이 끝난 것은 효령대군 이보 덕분이다. 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 법회를 베풀 때 여래가 출현하고 감로가 내렸다. 사리가 수백 개로 분신하는 이적도 일어났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세조가 10년 5월 2일 승정원에 명하여 이곳에 원각사(圓覺寺)를 세우고자 했다. 다음날 종친과 주요 대신들과 원각사를 창건할 일을 의논하고 그들을 조성도감의 도제조 삼았다. 세조는 때때로 이곳에 가 공사의 진행을 살필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흥복사가 터가 좁아진 탓으로 인근 민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세조와 영의정 신숙주는 도성 안에 있는 곳을 감안해서 가격을 세 곱을 쳐서 지불했다. 이때 땅을 매입하고 재목을 나르는 총 액수가 정포(正布)가 4천 4필(匹), 쌀이 수백 석(石)이고 보리가 100여 석이었다고 하니 중창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세조는 원각사를 크게 세우면서 사격을 갖추기 위한 불사를 함께했다. 먼저 11년(1465) 1월 16일 5만근이 되는 종이 먼저 조성됐다.

한양에 있는 동이 부족해 개성부 경기 충청, 경상 전라에서 동을 보내와 조성할 수 있었다. 그해 4월 7일 원각사가 낙성됐고, 12년 7월 15일에는 백옥의 불상을 조성되자 함원전에 모셔와 점안식을 했다.

마지막 남은 불사가 탑이었다. 불탑조성은 13년(1467) 3월 6일 이전에 완성됐다. 일본의 승려 도은(道誾) 등이 세조를 뵙고 "원각사 탑이 천하에서 제일이라 하니 원컨대 오늘 구경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세조는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예조에 명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 탑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3년 4월 8일을 기해 원각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베풀고 탑의 조성을 대대적으로 축하했다.

이렇게 세워진 원각사였지만 오래지 않아 수난을 당하게 됐다.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윤씨는 죽으면서 성종에게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나 내가 죽은 뒤에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게 버려두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성종 14년(1483) 8월 사람의 출입을 전혀 금지하지 않아 불좌(佛坐)의 채단(彩段)이 많이 도둑맞고 찢겼다.

연산군 11년(1505) 2월에는 이곳에 장락원(掌樂院)을 두어 기생을 양성했고, 중종 1년(1506)에는 도성 안의 절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명에 의해 중창되기도 어려웠다. 인근 백성들이 원각사의 기와는 가져다 쓰고, 관청에서 목재를 가져다 쓰면서 사격은 급속도록 쇠락해졌다.

사격이 쇠하자 대종도 수난을 당했다. 중종 28년(1533) 성 밖에 사는 관리들의 집이 도성에서 멀기 때문에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조정에 출근할 때 지각을 하게 되자 정릉의 종을 남대문에 옮기고, 원각사의 종을 동대문에 옮기고 새벽과 저녁에 쳐서 들리도록 했다. 그 후 두 종은 중종 36년(1541) 6월 1일 남대문의 종은 군자감, 동대문의 종도 둘 만한 곳이 없어 훈련원에다 옮겨 놓았다. 그렇게 방치되다가 명종 18년(1563) 11월 두 종을 내수사로 보냈다.

지금 원각사 터인 탑골공원에 가면 10층 석탑이 유리창에 갇혀 있다. 불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백색 대리석으로 조성된 탑신은 비바람과 새의 분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에서도 해마다 부식되는 탑을 보호하기 위해 쓴 고육지책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탑이 국보 2호라는 사실이다. 일반인이야 불교에 무심해서 그런다 해도 불자들은 앞으로 잘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은 탑골 공원이 된 원각사지

원각사 10층탑은 높이가 12m에 이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탑이다. 대리석으로 조성한 까닭에 탑신에 표현된 변상도가 정밀하다. 기단과 탑의 3층까지는 아(亞)자 모양을 하고 있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각 층마다 지붕과 공포를 표현하여 목탑 형식을 띠고 있어 조선 석탑의 백미이다. 그래서 조성과 함께 중국과 일본에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조선에 오는 승려들은 이 탑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탑이지만 10층탑의 가치는 1층에서 3층까지 동서남북과 4층 남쪽에 조각된 13회의 변상도에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쪽 1층부터 삼세불회, 2층 화엄회, 3층 소재회, 그리고 4층 원통회이다. 동쪽을 보면 1층 미타회, 2층 다보회, 3층 약사회이다. 북쪽은 1층 용화회, 2층 법화회, 3층 능엄회이며, 서쪽은 1층 영산회, 2층 원각회, 3층 전단서상회이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부처님과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탑골공원은 원각사 옛터
고려때는 흥복사였던 곳
기우재 등 국행불사 지내

조선시대 대표탑 원각사
대리석 새긴 변상도 정밀
비바람 · 새똥 피해 유리각에


새 똥 등으로부터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곽으로 보호되고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런 13회 변상도 가운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외에 좀 특별한 것은 먼저 3층 소재회 변상도와, 4층 원통회, 북쪽 3층 능엄회, 서쪽 3층 전단서상회를 들 수 있다.

남쪽 3층 소재회는 모든 어려움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먼저 죄를 멸하고 삼재팔난과 일곱 가지 어려움을 없애 궁극에는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밀교적 의식인 네 가지 호마의 하나로 신라 말에 들어와 고려시대 크게 유행한 의례이다. 이런 소재회에 의해 10층탑은 현교와 밀교를 아우르는 탑임을 알 수 있다.

남쪽 4층 원통회는 관세음신앙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원통교주라 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탑의 13변상도 가운데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원통회가 들어간 것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관음신앙의 중요성 때문이다. 현재 관음신앙이 한국불교신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쉽게 수긍되는 점이다.

북쪽 3층 능엄회는 〈수능엄경〉을 설하는 법회이다. 일체의 선정을 깨닫기 위해 정진하는 선종에서는 대중의 안거를 기원하기 위해 아침에 능엄회를 행했다. 그런 까닭에 〈수능엄경〉은 진위여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종에서 중요시 했던 경전이다.

서쪽 3층 전단서상회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할 때 지상에선 부처님의 행방을 몰라 제자와 신도들이 우왕좌왕했다. 그러자 우다야나왕이 전단향 나무로, 파사닉왕이 자마황금으로 여래상을 조성하면서 진정됐고, 이것을 인도에서 불상제작의 시초라 한다.

이런 13회의 변상도를 품고 있는 10층탑을 보면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가 태평하기를 기원했던 세조의 생각이 세월을 넘어 우리 가슴속에 전해진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불교전적 수집 위해 입송(入宋)한 의천

대각국사 의천 ㊦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의천의 입송구법은, 송나라에 그가 입국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고려와 송 그리고 거란의 3국 외교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3국의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불교전적의 수집이라는 애초의 목적만이 아니라, 불교전적을 수집하기 위한 그의 행보가 낳은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의천이 입송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시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던 송나라의 문물과 고려불교의 원천이었던 중국의 불교를 직접 접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화엄종의 승려로서 당시 송나라의 화엄학 대가였던 정원(淨源; 1011~1088)의 초청에 응해 화엄대교를 더 폭넓게 배우고 싶었던 이유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고려에서 송의 불교전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으로부터 고려로의 대장경 수입은, 초기부터 고려가 사신을 통해 요청하고 송이 이에 대응하여 기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송의 〈개보칙판대장경(開寶勅版大藏經)〉이 983년에 완성된 이래 1022년까지 일곱 차례 정도가 확인된다. 그 중 반 이상은 고려 사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나마 다양한 판본을 구한다거나 승려들의 저술 곧 주석서류의 교승(敎乘)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송의 서적 수출 금지령 때문이었는데, 당시 거란·고려·송으로 얽힌 삼국의 정세에서 점차 수세로 몰리게 된 송으로서는 국방상의 보호를 국내 상황과 관련되는 자료가 적국인 거란과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고려의 손에 들어가 변방에 위협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은 민간에서의 전사(傳寫)와 조인(調印)까지 금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조인(調印)이 적지 않게 이루어질 정도였다. 송의 불교전적을 구하기 위한 고려 혹은 의천의 노력에 적잖은 장애로 작용했던 듯하다. 또 삼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와 송의 외교적 접근을 거란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 역시 장애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장경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한 상황에서, 의천이 요와 송의 전적들을 일장(一藏)으로 모아 유통하기를 발원한 것이 19세 때였던 1073년이었다. 그러나 의천의 오랜 바람과는 달리,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입송(入宋)하던 1085년 무렵까지도 의천은 만족할 만큼 교장을 수집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송구법은 여러 종파의 장소(章疏)를 구하려는 의천이 본인의 굳은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고려·송·요 삼국 간의 미묘한 정세에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의천의 입송구법 요청을 고려조정에서 여러 차례 거부한 것도 이러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보물 제189호) 팔공산 끝자락에 자리하는 송림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544년 창건하고, 고려 선종 때인 1092년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중창됐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들을 도외시한 의천의 이 무모한 결단은, 교장을 간행하려는 의천 본래의 의도에서 보든, 이후 고려 조정(왕실)과 의천이 동일한 행보를 걷게 되는 외교적 행위로서 보든,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점 때문인지 의천 당시에 고려와 송을 왕래했던 고려의 사신단 혹은 고려 조정이나 의천의 의뢰를 받은 송의 상인들이 불교전적을 송에 공급했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반면 고려와 요를 왕래했던 쌍방의 사신단은 양국의 장소를 지속적으로 교환한 사례가 발견된다.

여하튼 11세기 중반 무렵부터 12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고려 조정에서는 교장을 통한 외교 공세가 지닌 효용성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6년,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을 주동으로 한 고려의 사신들이 사명(四明, 오늘날의 영파 지역) 연경사(延慶寺)의 범광(梵光; 1064~1143)을 방문해 법의(法衣) 1점과 원효가 찬술한 논소(論疏) 200권을 전하여 중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고려인들이 의천의 사후에도 한동안 고려 교장에 포함된 불교전적들을 외교관계에 활용할 정도로 고려불교가 동아시아 세계에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려불교 전성기의 중심에 대각국사 의천이 서 있었던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홍파 스님 자백하면 최연은 간첩 됐다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사원화운동'으로 최연과 법우 스님만 검거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한 홍파 스님 역시 연행되어 고초를 겪어야 했다. 대불련 선배인 홍파 스님은 최연의 부탁으로 묘각사를 중심으로 야학운동을 위한 장소 이용을 허락했다. 홍파 스님은 본래부터 진보적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이 묘각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 때문에 홍파 스님은 야학활동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 홍파 스님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인데 수사당국은 활동자금도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만일 홍파 스님이 돈을 대줬다고 자백한다면 최연 등은 간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다.

"대불련 후배들 다 잡혀가고 서울서도 그 후배들 다 잡혀 대불련 애들도 다 잡혀가고 조사받고 나가고 조사받고 나가고 구속은 세 명이 됐지만. 그래서 홍파 스님도 고생을 하고 부산에 있는 그 대불련 걔들도 우리 고기 야학 시작할라 그랬으니까 거기도 잡혀가서 전부 대공분실 그 다음에 전주 서울 세 곳에서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대공분실에 인제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그 홍파 스님하고 우리 세 명하고 그렇게 해가 됐는데 홍파 스님이 끝까지 고문 속에서도 돈은 뭐 대준 게 없으니까…."

최연의 구술에 따르면 불교야학운동은 서울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부산과 전주 등 여러 곳에서 거점이 있었다. 야학연합회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노동문제나 농민들의 현실문제에 개입했음을 알게 한다. 야학 운동의 배경 역시 최연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된다. 1975년 대불련 기획국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조사국을 적극 지원한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의식과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앙케이트를 시도했고 이를 토대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듬해 대불련 회장이 된 최연은 전북 송광사 여름 수련대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민중불교이론'을 정립하게 된다. 그러한 역량이 80년대 초 대불련 중심의 야학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불련이 야학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증언이 없지만 이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대불련 회원들이었다. 묘각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 옆에 위치한 칠보사와 안암동의 개운사를 중심으로 또 다른 성격의 불교운동이 있었다.

"주도를 대불련 출신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칠보사 팀이 있다는 그게 칠보사팀이에요. 그리고 개운사가 생겼는데 개운사는 인제 묘각사가 이렇게 하니까 어 자기들도 어떤 실천적인 뭐를 하나를 만들어서 단위를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일차적으로 사찰에 모였어요. 개운사에 그래 고대(고려대학교) 중심이에요. 고대가 개운사에 가깝잖아요."


칠보사

최연이 일으킨 묘각사 야학운동보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시도한 곳이 칠보사 학생모임이었다고 구술한다. 칠보사팀에서 이희선이 활동했고 당시 신상진(현 국회의원)은 야학운동과 관련돼 있었다.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계율 부흥의 주창자
해탈상인(解脫上人) 죠케이(貞慶) ㊦

남도 불교 부흥을 꿈꾸다


석가여래 좌상, 12세기 작, 코후쿠지 소장

당시는 남도의 구족계와 천태의 법화원돈계가 서로 승렬을 주장하기도 했다. 죠케이는 이에 대해 설사 보살이라고 하여도 먼저 비구계를 받아 비구중(比丘衆)에 속하고 난 뒤, 그 위에 보살계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천태의 승려들은 계상(戒相)에 어두워 남도의 비구계를 받지 않으면 비구승이 아닌 재가인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남도 계율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원래 율종의 근거지였던 흥복사를 중심으로 한 남도 불교의 부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죠케이는 이처럼 단지 불교의 쇠퇴를 바라보고만 있던 은둔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불법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우미발심집(愚迷發心集)〉을 통해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범부로서 어리석은 무명 가운데에 헤매는 자

용화회를 열어 미륵신앙 고양
카이쥬센지서는 관음신앙 매진

신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신불의 가호로 도심을 발해 불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삼가 시방세계 일체의 삼보, 일본국 가운데 대소 천신지신 등에게 아뢰기 위해 제자는 5경(새벽 3~5시)에 잠에서 깨어나 적막한 마루 위에서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곰곰이 생각에 젖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저 무시의 윤회 이후 여기서 죽어 저곳에 태어나는 순간, 어느 때는 영원히 3도8난의 악취에 떨어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중에 이미 발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는 가끔 5계를 지녀 인도(人道)에 태어나는 선과를 느끼지만 전도몽상으로 아직 해탈의 씨앗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쁨이 함께 합니다. 낙루가 소매에 젖어 넘치는 중 삼보에 아룁니다. 이 계약으로 금생은 무명이 끝나는 저녁이 되며, 미래는 각증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뜻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퇴굴심이 나서 세간에 걸리고 무상의 도심에 태만할 때는 이 서원문을 돌이켜 보고 잘 지켜 이 마음을 격려할 것입니다. 이 서원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본의를 잃고 왕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모든 불자들이 자신과 함께 발심·서원하여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불도를 걸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죠케이는 또한 〈용화회원문(龍華會願文)〉을 짓고 용화회를 열어 미륵신앙을 고양하기도 했다. 그가 은둔한 카사기데라는 거대한 마애불의 미륵불상이 있어 미륵신앙의 영장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미륵강식(講式)을 비롯해 지장·관음 강식을 지어 이들 신앙을 더욱 고취시켰다. 미륵불은 말세의 중생을 구제하도록 석가모니로부터 의탁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히 석가에 대한 신앙심도 발현되어 석가염불회를 열고, 불사리를 안치하여 이를 숭배하는 등 석가모니에 대한 추모의 정이 깊어져 갔다. 54세 때에는 카이쥬센지로 옮겨 관음신앙에도 매진했다. 〈불사리관음대사발원문〉을 지어 부처님의 사리에 예배함으로써 불과를 얻음과 동시에 관음의 신주를 외움으로써 4근본죄를 멸제하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그대로 보타락산에 태어나기를 발원했다.

그는 미륵·석가·관음의 3존은 일체라는 신앙을 고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다양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불법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만큼 죠케이의 시대는 신불교의 탄생만큼이나 전통불교에 대한 회귀 열망도 강렬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힘든 이 돕더라도 스스로 이룰 가능성 열어줘야

서울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



송강 스님은 … 범어사에서 한산화엄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부산 선암사, 묘관음사 등에서 수선하고 범어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과 재정국장을 역임했으며 제주 천왕사, 서울 미타사 주지를 거쳐 개화사를 창건했다. 불교방송의 '교리강좌'와 '자비의 전화' 불교TV의 '송강스님의 기초교리강좌'를 진행하며 매체포교에 앞장섰고 〈금강경강설〉〈반야심경강설〉 등의 책을 발간 보급했다.

서울의 서쪽 끝자락 개화산에 한 도인이 살고 있었다. 일찍이 이 산에 들어가 도를 닦은 그는 평생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매년 9월 9일에 동자 두 세 명이 찾아와 그에게 공양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주룡(駐龍)선생'이라 하고 산 이름을 '주룡산'이라고 했다. 주룡선생은 이 산에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죽은 자리에 이상한 꽃이 피어 그때부터 개화산(開花山)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그가 살던 곳이 지금의 개화사(開華寺) 자리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얘기다. 산 이름의 '화(花)'와 절 이름의 '화(華)'는 꽃을 의미해 2004년 창건한 개화사와 천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인연으로 닿아 있다.

깨질 듯 푸른 하늘을 이고 행주대교를 건너 개화사에 도착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을 비켜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 산과 마을이 만나는 경계에 절이 있다. 주룡선생이 살 때는 깊은 산중이었을 곳. 지금은 산이 마을로 내려왔는지 마을이 산으로 올라갔는지 서로의 경계를 껴안고 원융의 도량을 일구었다. 오후 2시의 가을 햇빛은 찬연한데, 무량수전 안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의 얼굴이 그 빛을 닮아 있다.

개화사는 100일 만에 지은 절이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정갈한 도량 하나를 열었다는 것을 쉬 믿을 수 없다. 별난 비결이라도 있었을까?

"여러 사정이 있긴 했지만, 승속이 둘 아니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듯 매달리니까 가능하더군요."

송강(松江)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합심이 비결이었다. 작은듯하면서 크고 큰듯하면서 포근한 당우들, 좁은 땅을 넓게 쓰면서도 동선(動線)을 합리적으로 배치한 지혜는 덤이었을까? 건물만 지어 놓는다고 도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량은 외형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찾아와도 저절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기운이 느껴져야 한다. 개화사 무량수전 마당에 서면 그런 기운이 온 몸을 감싼다. 안방 같다.

한 달에 15회 이상 법회가 열리는 절, 언제나 대문과 법당 문이 열려 있고 주지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절이 개화사다. 상담실에는 언제나 엷은 전단향이 서려 있다. 하지만 코끝에 맴도는 향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마음에 법향을 쏘여주는 송강 스님의 말씀이다.

스님의 말씀이 향기로운 이유는? 불교방송과 불교TV에서 강의를 하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던 이력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객(客)의 입장을 헤아려 듣고 말하는 수단 때문도 아니다. 어떤 경우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거(準據)한다는 원칙. 그 하나의 원칙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법향의 발원은 송강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이라 해야 옳겠다.

"종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가장 종교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철칙이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니까요. 그렇다고 과학기술이나 문물제도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복지를 예로 든다면, 종교가 복지 일선에 나서는 것보다는 기업이나 재벌들이 복지에 힘쓰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불교가 아닙니다. 소위 방편이라는 것을 빌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도입하여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방편도 가르침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 스님은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경전공부와 선어록이 중심이지만 교리문답이나 다도 같은 소프트한 모임을 통해 어렵지 않은 불교,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 준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근기와 자질이 다른데, 특정한 곳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의 자질에 따라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하는 곳이 절이고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주지(住持)의 소임 아닙니까?"

주지의 소임. 참으로 어려운 말이다. 수행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이(理)에도 밝아야 하고 종무행정을 비롯 사찰 운영 전반의 업무도 잘 처리해야 하는 일이 주지의 소임이다.

세상에서는 이판과 사판을 나누지만 원래 둘이 아니다. 이판과 사판은 한 판이다. 그 하나를 가장 잘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주지인 것이다. 법회 때마다 법문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여 쌓이고 쌓인 느낌들이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한다. 선어록 공부로 스스로 의심을 일으키게 한다. 의심이 있어야 답도 있다. 재일 법회에서는 기도를 통해 자기 변화의 힘을 얻고, 예참을 통해서는 아만심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한다. 송강 스님은 그 모든 법회를 주관한다.

바깥출입 자제하며 강좌 신행상담에 전력
불자들과 원력모아 100일 만에 도량 창건
한달 15회 이상 법회 열고 법당 개방해
부처님 가르침에 준거한다는 원칙 지켜

"주지의 주(住)는 머문다, 거처한다는 뜻이고 지(持)는 가진다, 지킨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등의 뜻이지요. 주지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절에 머물면서 도량과 대중을 지키고, 수행과 신행을 견지시키고, 의식과 의례를 유지 보존하는 소임입니다. 요즘은 절에 있는 시간 보다 밖으로 나다니는 시간이 더 많은 주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바깥일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에 주지합니다. 개화사 주지니까 개화사에 주지해야지요."

개화사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면서 안방 같은 느낌을 받은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심 사찰(포교당)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전법보다 경제적 타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돈 앞에 원력이 굴복 당했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올곧게 정법을 전하는데 몰입하면 도량이 지켜진다는 것을 개화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가르침에 입각한 공부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항상 절을 지키며 불자들과 소통해 온 주지 스님이 그 중심에 있다.

"불자들이 공부하는 것은 꺼리고 기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에 관심 없는 사람이 종교를 찾아오겠습니까? 힘들고 답답한 사람에게는 우선 그 힘들고 답답한 것을 풀어 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짐을 벗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3천배를 시킨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였어요."

결국은 방법의 문제다. 성문승과 연각승, 보살승이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단계처럼 각자의 근기와 자질에 맞게 공부하고 느끼고 깨달아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자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송강 스님은 "가장 불자다운 삶은 가장 부처님다운 삶"이라고 정의 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서 그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없이 복잡다단한 세상일들을 어떻게 풀어 낼 수 있겠습니까?"

도심 사찰의 주지는 1인 10역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중생이 부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일일 것이다. 법연(法緣)을 맺어주는 일보다 요긴한 소임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 전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선을 통해서, 염불을 통해서, 경전공부를 통해서, 사경을 통해서 등등의 방법으로 중생과 부처님이 즐거이 만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세속의 모든 논리는 욕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을 벗어 놓고 그 이전의 자기를 만나라고 강조한다. 6조 혜능 대사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듯이. 송강 스님이 강조하는 불자의 삶도 바로 욕망 이전의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에 귀 기울이는 사람보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물욕의 충족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점차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종교인들의 삶마저 물질만능에 젖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마음의 고향'이 되지 못하면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발달해 가는 세속의 쾌락을 제어할 힘을 잃으면 종교의 기능은 마비되고 세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교도 잘 살펴보면 이미 많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미얀마 관광청 승인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 양곤 | 바고 | 짜익티오 5일 1,400,000 (추가경비포함)
★ 양곤 | 헤호 | 바고 | 짜익티오 6일 1,690,000 (추가경비없음)
관광청 승인 이벤트
겨울 성수기 미얀마 조기 예약 할인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가이드+기사 팁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 인도 골드트라이 앵글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 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 부탄 왕국 시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가르침 벗어나면 불교 아니다



송강 스님이 개화사를 찾은 이종남 신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송강 스님이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에는 불교도 가톨릭도 구분이 없다.

은 부분에서 세속화 되어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속화. 오늘날의 모든 종교가 간과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가 가치를 상실하고 외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단어에 들어있다. 이제라도 모든 종교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단어다.

송강 스님은 "절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세속에서 탈속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절의 기능이기 때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다보면 어느새 높은 가르침은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편만 남는다는 것이다. 따끔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무쇠는 제 몸에서 나온 녹으로 쇄하고 사자는 제 몸의 벌레로 인해 죽습니다. 불교가 종교로서 몫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다 불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는 달려가서 안길 엄마의 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아이를 혼내면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불교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달려가 안온하게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불자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품이 되어야 한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는 사람.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보살이다.

세속의 쾌락을 제어하는게 종교 본질
오늘날 종교 가치 하락 원인은 세속화에
부처님처럼 살기는 따뜻한 인심에서 시작
도심사찰은 불자들 보듬는 엄마품 같아야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는 신념 하나만 있어도 보살행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본래 없는 것이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탐욕과 집착도 없을 것입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란 집착하여 고가 생기고 정도를 행하여 고를 멸하는 길을 밝힌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청정한 자신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보살의 상구보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화중생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판과 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사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혜와 자비의 구조이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본래무일물, 청정자성의 진면목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송강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처럼 살기'는 바로 청정자성의 깨침이다. 그것이 행위의 신념으로 표현된 말이 본래무일물이다. 탐욕을 일으킬 그 무엇도 본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닦고 또 닦아 점차 나아가기를 거듭해야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

절마다 주지는 있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소임에 충실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그 원력만으로도 도량에는 신령한 기운이 넘친다. 어느새 사각(斜角)으로 비치는 햇빛에 무량수전 앞마당이 그윽한데, 그 마당 어귀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다. 인근에 위치한 발산성당의 라이문도(이종남) 신부님이다. 가끔 만나는 사이지만, 무척 오랜만인 듯 아주 환하게 인사를 나눈다. 안이 청정하면 바깥도 밝은 법. 주련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송강 스님과 그 뜻을 경청하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본래무일물'의 한 단면을 읽었다.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 옛날 이 터에 살았다는 주용선생도 저렇게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을 가졌을까?'



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오로봉(五老峰)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전철을 이용하다 보면 일반석과 경로석으로 대별이 된다. 비단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해도 경로석은 빈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 아마 노인 인구의 증가에 연유하기도 할 것이다.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 임신부 자리까지 허용하다 보면 자리는 더욱 모자라기 쉽다. 그 자리에 표기된 영문을 보면 Senior men 이라고 쓰여 있다. 연세 든 분들이 노인이란 말을 꺼려 한 나머지 이렇게 붙인 것으로 안다.

노인의 늙을 로(老) 자는 늙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어른을 높이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익숙하다' 던가 '노련하다' 는 뜻도 있으며 '신하의 우두머리' 를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라는 말이 별반 어색하지 않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잡마경(雜摩經)〉 권상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특징 있는 열 명이 나온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에서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에 이른다. 유독 이 제자들에게 존자(尊者)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있다. 범어로 존자를 sthīvira라 한다. 노인이란 말이다. 남자는 70세부터이고 여자는 50세부터 존자라고 부른다. 90세가 되면 마침내 이런 호칭은 끝난다. 그 후에는 varshīyas라 부른다. 발시야스는 세 살된 아기를 말한다. 덕이 있어 존경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단순한 경칭으로 쓰기도 하고, 연하의 사람에게도 사용하였던 것이다.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도 우리나라만의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말에도 선생이라고 하면 교단생활을 하지 않았다 해도 상대에 대한 경칭으로 곧 잘 부르기도 하는 말이다.

〈벽암록〉 제34칙에 양산선사가 여산에서 왔다는 한 객승에게 "그럼 오로봉(五老峰)에는 가보았겠군"이라 묻고 있다. 이 오로봉은 양자강의 아홉 개 지류가 합하고 있는 여산의 오로봉을 말한다. 혜원(慧遠)스님이 백련사(白蓮社)를 세운 이래 불교사상의 요람이 된 산이다. 시선(詩仙)이라 불리는 이백(李白)이 망오로봉(望五老峰)이란 시를 남길 정도로 풍광이 좋고 조망이 뛰어난 곳이다.

여산동남오로봉	廬山東南五老峰
청천삭출금부용	青天削出金芙蓉
구강수색가람결	九江秀色可攬結
오장차지소운송	五將此地巢雲松

여산 동남쪽의 오로봉이여
푸른 하늘에 금색 연꽃이 불쑥 솟아 있구나
구강에 빼어난 경치를 모두 모아 놓았으니
내 장차 이곳에서 구름과 소나무를 벗 삼아 살으리

물론 앙산선사는 단지 오로봉의 경치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았다. 완전한 불성(佛性)을 갖춘 경지인 오로봉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다섯 개의 늙은 봉우리는 각하(脚下)의 참된 세계를 말하며, 선의 입장을 오로봉에 빌어 말한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등산하는 사람들을 본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 한다. 걷는다는 것이 오직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건강은 형이하학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의 문제는 제쳐둔 처사가 아닐까. 아프리카는 고대 이집트어로 고향이라고 한다.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걷기를 잘하는 것은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형이상학적인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주변을 해치지 않고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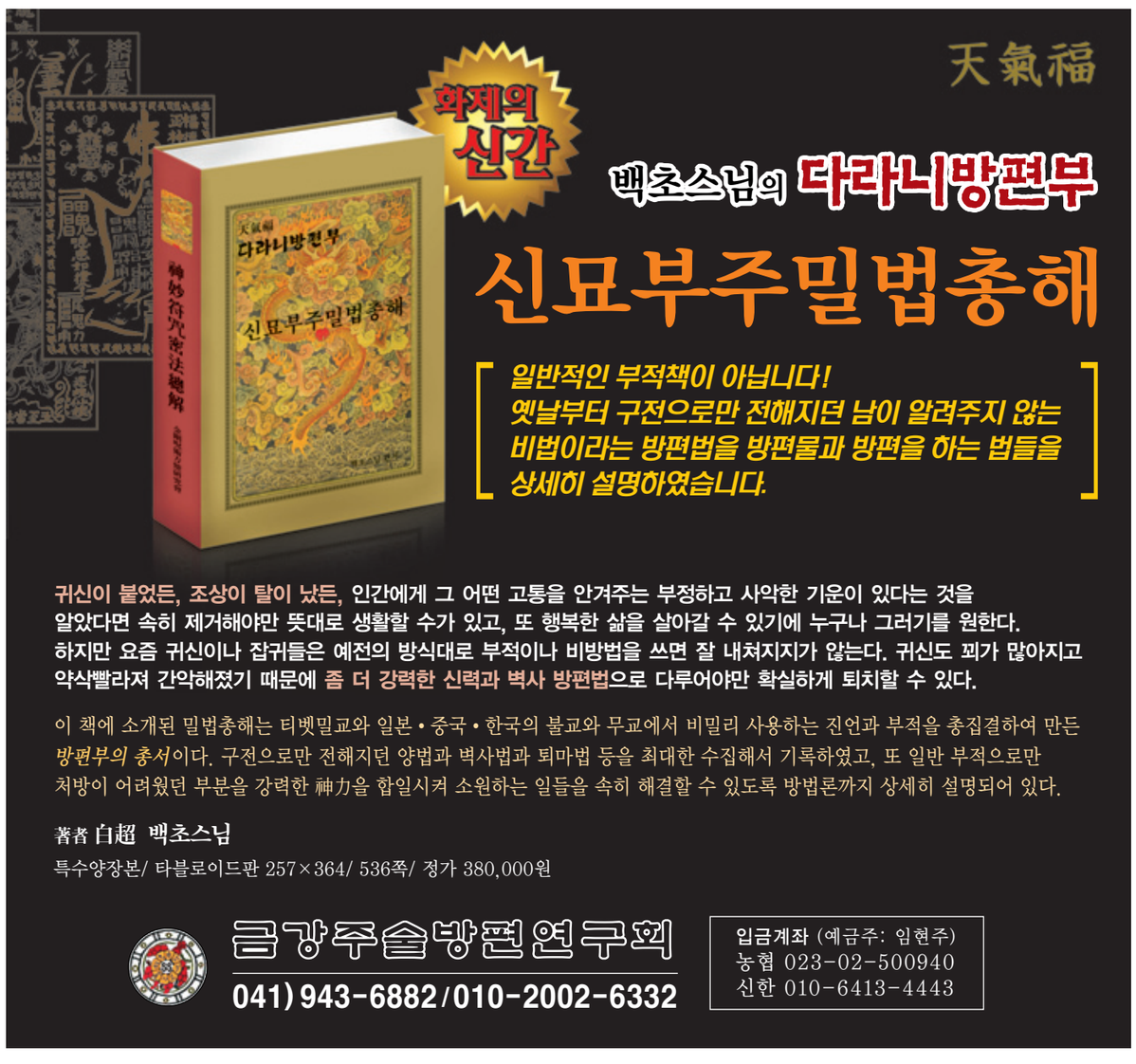
늙을 로(老)는 노련함을
존자의 의미는 노인
〈벽암록〉의 오로봉은
완전한 불성의 경지

파괴자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았고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아프리카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다. 상대의 대상은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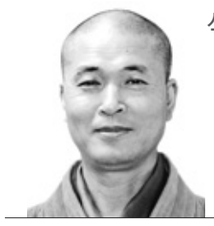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남산 걷는 길에는 인공수로가 있어 청아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좋다. 수로에는 조약돌을 깔아 놓았다. 깎아 놓은 생밤 같기도 하고 어린시절에 빚어 보았던 주먹만한 송편마냥 친근감이 간다. 저 돌들은 고향을 찾아 왔구나. 태고적엔 깊은 산에 있다가 세월의 다정한 설득에 굴복당하여 계곡에 머물다가 마침내 강으로 흘러갔다. 이제 누군가의 주선으로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산은 옛산이련만 조약돌에게는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하다. 산이 그 높은 가치를 잃지 않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산의 변함없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던 것들도 세월의 다정한 유희와 설득 앞에서 퇴색되고 굴복당하고 만다. 서슬이 퍼렇던 경색된 이념도 탈냉전의 종식 앞에 무기력 해지고 말았다.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전통문화도 세계문화의 교류 앞에서 탈색되기 일쑤다.

오로봉의 참된 세계에 들기 위해 헝클어진 영혼에 빗질을 하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알았어도 단정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제방의 선지식은 모두 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노스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교시하십니까?"
조주 스님은 발뒤꿈치로 화로를 툭 쳐 보였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었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흡사 노승의 발뒤꿈치를 아는 것 같구나."

問 諸方盡向口裡道 和尚如何示人 師脚跟打火爐示之 云莫便是也無 師云 恰認得老僧脚跟

조주 선사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발뒤꿈치로 화로를 툭 친 것이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왜 발로 화로를 툭 쳤을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이것 역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 화두는 조금만 들고 궁리해보면 금방 조주 선사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조주 선사의 뜻을 안다면 황벽 스님이 임제 스님에게 내렸던 방(榜)의 뜻도 알 수 있다. 만일 나에게 조주의 참뜻을 묻는다면 "꿀 속에 칼을 감추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하겠다.
그런데 화두 참구 끝에 설사 그 뜻을 알았다해도 '그것이로군요' 하고 단정하지 마라. 단정하면 상(象)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선사의 발뒤꿈치를 아는 것에 불과해진다. 선사의 뜻과는 천리만리 멀어진다.
학승이 물었다.
"대도를 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소금을 암거래로 파는 놈아!"
학승이 물었다.
"그럼, 대도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의 통행증을 돌려다오."

問 不行大道時如何 師云 者販私鹽漢 云卻行大道時如何 還我公驗來

승려가 되어서 수행자에 맞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부처를 팔아서 겨우 밥이나 얻어먹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하니 승려가 대도를 가지 않으면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설사 누가 대도를 간다고 해도 그 또한 틀렸다. 대도는 도를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대도를 갈만큼 참 도를 깨달은 자가 있는가? 있다면 그는 절대 "나는 대도를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도는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공험(公驗)은 통행증을 말한다. 여기서 공험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은, 대도를 가고 있다면 너는 자격이 없는 자이니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증한 통행증을 도로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본래 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놈은 다르지 않아."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화상과 멀어진 생애를 가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생(今生)뿐만 아니라, 천생 만생에도 노승을 모르는 거야."

問 如何是本來身 師云 自從識得老僧後 只這漢更不別 云 與麼即與和尚隔生去 非但今生 千生萬生亦不識老僧

참된 선사(禪師)라면 단 한 번의 방문에도 방문자를 깨닫게 해준다. '나는 누구인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찌 상다리인가?' 등의 궁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해준다. 누구든 선사를 방문하면 즉시 부처가 된다. 방문 전에도, 방문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방문자는 그 후 부처의 길을 간다.
그렇게 즉시 부처가 되고, 대스승이 된다면 더 이상 선사를 찾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한 방면의 대가된 그가 어찌 또 스승을 찾겠는가? 이런 걱정을 조주 선사는 하지 않았다. 원래 조주를 몰랐으므로 앞으로도 조주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그가 알아주고 모시는 것 따위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나옹혜근 詩



청화산화안대산
우신하 전지하
묘대
추지
안
전

羅: 벌일 라, 그물 라
復: 회복할 복, 다시 부
塵: 티끌 진
剎: 절 찰

산하대지가 눈앞의 꽃이다

山河大地眼前花 萬象森羅亦復然 自性方知元淸淨 塵塵剎剎法王身(산하대지안전화 만상삼라역부연 자성방지원청정 진진찰찰법왕신)
산하와 대지가 눈앞의 꽃이요 삼라만상도 또한 그러하네. 바야흐로 자성이 원래 청정한 줄을 알았으니 먼지마다 세계마다 법왕의 몸이로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능가경

달마 대사가 중요시 여긴 경전

중국의 선법은 보리달마의 중국도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달마도래 이전의 숱한 선법이 실천되고 전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승된 모든 선법은 달마 후손들에 의해 형성되고 전개되며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달마의 위상은 직접적으로는 중국에 도래한 사실로부터 찾을 수 있지만, 그 사상적인 배경으로는 달마가 중시했던 〈반야경〉과 〈능가경〉 등 기타 대승경전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 〈능가경〉은 혜가한테 정법안장을 전법하면서 부촉한 소의경전으로서 전승되어 왔다. 이후로 〈능가경〉은 소위 능가선 내지 능가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초기선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종의 종지로 언급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말의 사상적인 배경은 곧 〈능가경〉으로부터 계승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상품'에서 설해진 내용이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깨침을 터득한 밤부터 입멸하는 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설법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말한다.

'불립문자' '교회별전'은
능가경으로부터 계승
실천과 선적체험 강조

그러나 설법이 없다는 말은 삼세제불과 완전히 동일하게 설했다는 의미로서 삼세제불의 설법에 대하여 한마디도 더하여 설했다든가 빠뜨리고 설했다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수행하여 증득한 내용은 일체의 언어나 문자를 떠나 완전히 스스로의 내면에서 직관된 것이므로 범부 중생의 언어나 문자로써 표현하거나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로지 실천, 곧 여기에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선적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능가경〉에서는 이 비유를 계승하여 불도를 설하고, 그 진리의 소재를 표현하려고 했다.
달마는 곧 거기에 일체의 언어 및 문자를 초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석존은 그저 고인의 행적에 어긋남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오직 자신의 신심으로써 나타냈을 뿐 어떠한 언어나 문자를 빌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달마는 일자불설(一字不說)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 불립문자 및 교외별전의 진의가 있음을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석존의 내면에서 깨친 자내증지(自內證智)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래청정선 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곧 깨침을 터득한 이후의 선에서만 불교의 진의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수하는 것 외에 개오의 길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능가경〉에서는 선을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 관찰의선(觀察義禪), 반연여선(攀緣如禪),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의 네 종류로 설명한다. 우부소행선은 성문 · 연각 · 외도들의 경우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공하며, 마음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임을 관찰하는 선법이다.
관찰의선은 인 · 법의 무아(無我) 및 제법의 무성(無性)을 관찰하고 점진적으로 경론 및 선론의 도리를 터득해 나아가는 선법이다.
반연여선은 반연진여선으로서 무아법의 도리를 여실하게 알아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선법이다.
여래청정선은 불지를 터득하여 자증성지(自證聖智)에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부사의한 경계를 드러내는 선법이다.
또한 여래가 일체중생의 경우 번뇌를 정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돈 · 점을 각각 네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네 가지 점법은 다음과 같다.
1) 망고가 점으로 익어가는 것이지 돈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2) 도예공이 그릇을 만드는데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3) 대지가 점으로 만물을 생기시키는 것이지 돈으로 생기시키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4) 사람이 음악, 서화, 갖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네 가지 돈법은 다음과 같다.
1) 명경이 돈으로 일체 무상(無相)한 색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정제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돈으로 무상(無相)하여 무유소유의 청정경계를 드러낸다. 2) 해와 달이 돈으로 비추어 일체색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래가 중생의 과환을 없애주는 것도 그와 같다. 곧 돈으로 위한 까닭에 부사의한 지혜의 경계를 현시한다. 3) 장식(藏識)이 돈으로 분별하여 번뇌의 원인과 그 경계를 아는 것과 같다. 저 모든 법성불 혹은 법신에 의하여 드러난 부처인 화신불도 또한 그와 같다. 돈으로 중생이 처하는 바의 경계를 익히게 하여 그로써 수행자로 하여금 저 색구경천에 안주하게 끔 한다. 4) 법신불이 시현한 화신불이 광명으로 비추는 것과 같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태고종 어른스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귀의삼보 하옵고 법체청안하신 가운데 불사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는 총무원장을 역임한 운산스님의 어리석은 제자들로서 저희 스님과 종단의 어른 스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종단과 개인 그리고 앞으로 종도들의 바람직한 수행과 교화 및 종단 안팎의 따가운 여론을 바로하기 위해서라도 어른 스님들께서 바르게 하여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먼저 저희 스승이신 전 원장스님께 올립니다.

지금까지 재임 중 잘못에 관해 여러 번 참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참회하시고 종단 사정기관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현 총무원장 스님께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옛 정을 생각하셔서 문제 푸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듣기로 운산스님은 검찰의 무혐의가 떨어졌을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종단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화해를 제안하셔서 연등축제 전날 화해의 악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지기와 화해를 하신 그 마음으로 다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거듭 청원드립니다.
운산스님은 천중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시고 천중사에 동방불교대학을 옮겨가면 어떻겠느냐와 전승관 나머지공사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대학교 문제도 머리를 맞대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3. 종단의 어른 스님들께 올립니다.

지금의 방향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앞뒤에서 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종단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서 종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도들은 제대로 살피기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모든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문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다툼의 소용돌이와 퇴보의 상태를 벗어나는 좋은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호법원장 스님과 위원스님들께 올립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규정적용의 문제가 있었던 하급심의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그리고 심리절차에서 전 원장스님의 진술을 차분히 받으시고 종헌 종법에 따라 심리하시되 과실보다는 공덕을 더 살피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피시는 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총무원장을 역임한 이가 징계를, 그것도 최악의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 본인의 일만이 아닌 우리 종단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 역사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른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 법체청안하신 가운데 불사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5년 9월 22일

운산화상 문도회원 일동 돈수 구배 합장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우물 하나로 한 마을 사람을 모두 살립니다

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식수개발, 우물 관리법 전수 등 자원봉사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현대불교신문사는 미얀마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3월부터 미얀마 불자 지원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일환으로 미얀마문화원 소속 붓다자비봉사단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현지 극빈지역 마을에 우물을 비롯한 식수 개발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앞으로도 미얀마 후원에 관심있는 불자와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모금된 후원금은 미얀마 양곤에 건설 중인 종합기술대학 건립과 극빈지역 공동우물파기, 극빈지역 고아원 및 학교, 불우가정 지원, 미얀마 신뿌의식(재가출가의식) 등에 사용된다. 특히 미얀마문화원 붓다자비봉사단 현지 방문으로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후원: 예금주)국제불교지도자협회 농협 301-0016-0537-01 (02)733-5670



흘라잉따야 마을의 열악한 환경



미얀마 승가회 종정 우-꾸마라 스님의 감사편지



순수함을 간직한 잉깐쥰지 마을 주민들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수질전문가를 포함한 붓다자비봉사단 10여 명은 8월 27일~9월 1일 미얀마 흘라잉따야 지역을 비롯한 극빈지역을 방문해 식수개발에 착수했다.

붓다자비봉사단은 흘라잉따야 지역은 마을은 크지만 우물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오염된 식수는 각종 수인성 질환을 유발해 이 지역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런 미얀마 극빈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얀마문화원은 1998년부터 우물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50여 곳에 우물파기를 진행했다.

붓다자비봉사단은 한 지역에 우물을 하나를 파면 아이들 1000여 명이 혜택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붓다자비봉사단은 우물 착공과 함께 초등학교도 건립해 문맹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붓다자비봉사단의 활동에 미얀마 종정 우-꾸마라 스님은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미얀마 우물파기 운동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의 공동 캠페인으로 후원자님들의 정성을 모아 우물파기 운동은 ▲극빈층이 모여 살고 특히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식수로 사용 할 수 있는 우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각 가정마다 주 소득원이 일용직 근로를 하여 발생하는 곳.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서 정부의 복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아동들이 수인성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곳.

우물 1개소 사업비는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US $1,200~$1,500이 소요됩니다.

우물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후원자님들께서 매달 후원해주시는 후원금과 우물개발에 단독으로 참여하시는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처리돼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자비 보시행을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우물 하나 파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해

이번 봉사활동의 목적은 극빈마을에 식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사였다. 봉사단은 그동안 우물을 개발해 기증한 마을을 방문하여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돼고 있는지, 또 오염이 되지는 않는지를 측정했다. 특히 이번 봉사단 일행에는 수질전문가가 함께 동행해 우물 관리법을 전수했다.

자비봉사단은 먼저 한국기술종합대학이 건립되고 있는 흘라잉따야의 극빈지역을 방문했다. 항상 그렇지만 방문하는 지역마다 죄송스러울 정도의 환대를 받는다.

흘라잉따야의 모습은 미얀마 수도인 양곤 인근 지역이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마을을 지나는데 집집마다 큰 드럼통이 몇 개씩 있는 것이다. 어떤 드럼통인지 궁금해 확인한 결과 비가오면 그 빗물을 받기 위한 통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빗물을 받은 물로 먹고 씻는 등 모든 생활을 한다고 했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을을 둘러보니 초라한 오두막은 돼지우리와 같이 붙어있었고 아이들은 그 우리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아이들보다 돼지가 더 대접받고 있었다. 돼지 한 마리가 한 가정의 전재산일 정도였다.

이 지역 아이들은 수인성 질병 외에도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불교사원에서 제공하는 기초교육에 근근이 의지해 글씨만 깨우치는 실정이다. 한국기술종합대학교가 빨리 완성돼야 함을 느꼈다.

기본적인 삶의 터전 제공하는 불자 돼야

봉사단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얀마 밍갈라동시에 있는 띵간쥰지 마을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습한 지역으로 인근에는 농장들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은 농장의 일용직 잡부로 일하고 있었다. 농장의 주인들은 이 지역이 아닌 수도 양곤에서 산다고 한다.

대규모 농장으로 인한 배설물로 마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방문했을 당시에는 우기철이었다. 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 발목까지 진흙에 덮여있었다. 신발이 진흙 속에 잠겨 걷는 것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띵간쥰지 1호 우물을 설치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띵간쥰지 마을은 지표 오염이 심각해 우물 착공시 100미터 넘게 파내려가 펌프를 사용해야 물을 길를 수 있었다. 이들의 임금은 하루 일당이 2000짯 정도다. 우물이 설치 되기 전에 이들은 물을 사먹었는데 5리터에 200짯 정도 였다. 씻는 물 조차 쓰기 힘든 실정이었다.

띵간쥰지 마을에서 한 아이가 다가와 머리와 팔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마을 우물에서 깨끗한 물로 씻고 마시고 해서 머리와 몸에 있던 부스럼이 사라졌다는 감사를 표했다.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올랐다.

미얀마는 원래 농촌 지역이 많아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지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띵간쥰지 마을처럼 대규모 농장이 들어서며 미얀마 환경은 심각히 오염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농지를 잃고 일용근로자로 전락한 극빈층 농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오고 있다.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들, 이런 농민들에게 직업학교의 기술 교육과 우물파기 등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이 불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최정연(42 · 붓다자비봉사단 회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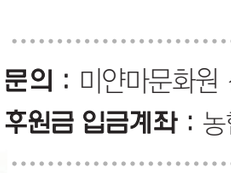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은둔제국의 황제 청송 주산지(注山池) 왕버들



왕버들 이야기

네팔 지도에서 티벳 쪽으로 튀어 나온 부분이 무스탕 왕국이다. 현재 25대 왕(Raja)인 지그메 팔발 비스타가 통치하는 네팔 내 자치왕국이다. 인구 1만 5000~2만 5000명의 산악지역 소국(小國)이다. 1830년대에 아마 팔(Ama Pal)에 의해 세워졌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자 무스탕 정부는 네팔 정부에게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네팔의 영토가 되었다.

한적한 시간, 주산지는 은둔 왕국 무스탕 같다. 야생화가 다소곳한 궁녀들처럼 손 모아 머리 숙이고 있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수국(水國), 주산지가 나온다. 물의 나라엔 왕정을 고수하고 있는 왕국의 왕들 같은, 어린 황제를 옹위하는 고명대신들 같은 왕버들이 늘어서 있다. 고졸하고 창연한 모습에 걸음이 조심스럽다. 아이들마저 뜀박질을 멈추고 잠시 소승불교 수도승이 된다.

주산지는 경북 청송 주왕산에 있는 산중호수다.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이 인공저수지는 조선 경종 원년(1720년) 8월에 쌓기 시작하여 이듬 해 10월에 완공했다. 길이 100m, 너비 50m, 수심 7~8m이다. 주왕산 계곡물이 모여들어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아래 마을 이전리에서는 해마다 호수 주변을 정리하고 동제를 지낸다.

주산지 풍광의 백미는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30여 그루 왕버들이다. 갠지스강에 몸을 담그고 수행 중인 힌두교도 같은 왕버들이 물속에서 참선 중이다. 더러는 부러지고 고사목 되어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있다. 뿌리인지 줄기인지 알 수 없는 나무둥치는 물과 뭍을 분별하지 않는다. 젊을 시절의 풍모를 잃지 않고 온전해 보이는 몇 그루도 한결 같이 묵언수행 중이다.

버들은 물을 좋아하는 나무여서 물속에서도 잘 자란다지만, 볼수록 그저 장엄하다. 150년 동안 허리춤까지 물에 담근 채 살고 있다. 시인, 묵객, 사진가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하다. 주왕산이 위치한 경북 청송은 예로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찾아가기가 수월하다. 청송에는 교도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산지 왕버들

-반 칠 환

누군들 젖지 않은 생이 있으랴마는
150년 동안 무릎 밑이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피안은 바로 몇 걸음 밖에서 손짓하는데
나는 평생을 건너도 내 슬픔을
다 건널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은 왜 낙타로 하여금
평생 마른 사막을 걷도록 하시고,
저로 하여금 물의 감옥에 들게 하신 걸까요
젊은 날, 분노는 나의 우듬지를 썩게 했고
슬픔은 발가락이 문드러지게 했지만,
이제 겨우 사막과 물이 둘이 아님을 압니다
이곳에도 봄이 오면 나는 꽃을 피우고
물새들이 내 어깨에 날아와 앉습니다
이제 피안을 지척에 두고도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슬픔이 나의 꽃인 걸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산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다. 주위는 주왕산 영봉에서 뻗어 나온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움을 더한다.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진작가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주산지의 절정은 해뜨기 전 저수지 한 가운데 우뚝 선 수중 왕버들 수십 그루가 물안개와 어우러진 모습이다. 특히 주변이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새벽 풍경은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불러들인다. 이미 많은 이들이 다녀갔지만 이곳에는 언제나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따라서 가을에 주산지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서둘러야 한다. 새벽 1~2시쯤 도착해도 삼각대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버드나무과 큰키나무 왕버들
습지 · 냇가서 20m까지 자라
한국 원산지나 일본에도 서식

왕버들은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갈잎 큰키나무이다. 원산지는 한국이며 일본, 대만, 중국에도 서식한다. 키는 10~20m까지 크며 주로 습지나 냇가에서 자란다. 주왕산 주산지와 함평 자연생태공원 호수에 서식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물 속에서도 썩지 않고 살 수 있다. 줄기가 굵고 몸집이 커서 마을의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이거나 긴 타원 모양이며 새로 돋을 때 붉은 빛이 돈다. 암수 딴그루이고, 4월에 잎과 함께 꽃이 핀다. 잎겨드랑이에 기다랗게 꽃이삭이 달리는데 비스듬히 위를 향한다.

잠시나마 왕버들 곁에 서서 물의 나라 신하가 되어 '나는 누구인가' 를 생각한다. 왕버들은 물과 뭍을 분별하지 않는다. 얼음 어는 겨울에도 그대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다. 방안에 앉아서는 밖이 궁금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삶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주산지의 절정은 해뜨기전 저수지 한가운데 왕버들과 물안개가 어우러진 모습이다.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 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네비게이션 찍고, 사찰 축제로 가면 행복이 보인다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이다. 이맘 때면 전국 사찰에서는 산사음악회, 영산재, 괘불탱화 등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소재로 문화축제를 연다.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을 모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강화 전등사, 영산재 · 글쓰기 대회 등

현존하는 최고(最古) 사찰인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에 들어서려면 성(城)을 지나야 한다. 단군의 아들인 부소, 부우, 부여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랑성(三郎城)은 단군신화를 연원으로 우리민족의 국토수호의지를 드높인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고항쟁의 중심지였고, 병인양요 당시에는 프랑스군을 격전 끝에 물리친 민족자존의 현장이다.

이런 역사적 장소에 위치한 전등사는 한국의 예술 ·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10월 8~16일 개최한다. 올해 11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삼랑성의 역사 · 문화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촉구를 위해 시작됐다.

이번 축제는 '역사의 울림,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맞춰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8일 오후 7시 전등사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가을음악회에는 가수 김종서 박미경 정태춘 김수희 남성중창단 '비바보체' 팝페라 가수 한가영 박준서 인천시립무용단 퓨전국악그룹 '헤이야' 등이 출연한다.

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아도 화상 등 전등사를 창건한 역대조사들을 기리는 다례재가 열리고 오후 1시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가 열린다. 전등사 영산대재는 고려 원종 임금 행차 재현식을 비롯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형태의 장엄의식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시 ·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동안 '세계 민속악기전', 인천시의 시조(市鳥)인 두루미 사진을 전시한 '두루미 사진전', 한국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울림, 어울림전', 옛 기와에 전등사 전각의 탱화, 단청, 문양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古기와 그림전' 등의 전시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천연염색 도자기물레 짚풀공예 화문석 공예 칼라믹스 단청 목공예 등 각 종 문화체험행사와 먹거리 및 특산물 장터도 열린다.

8일에는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실기 대회 및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모듬북 화관무 요들송 가야금 설장구 은율탈춤 등 인천 · 강화 지역 초등학교 및 문화 활동단체가 공연을 펼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승석 스님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우리역사와 함께 한 강화, 삼랑성, 전등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로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간 축제로 성장했다"며 "온 가족이 와서 공연과 체험, 전시와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2)937-0125

해남 미황사, 통도사 博은 괘불탱화전

해남 땅끝 마을 미황사(주지 금강)는 8일 오후 1시 '제12회 괘불재와 미황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된 괘불탱화를 모시고 있는 미황사는 매년 불교회화 · 음악 · 음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불교종합예술제를 열고 있다.

미황사는 '미황사의 농사'를 주제로 20여 년 전부터 전남지역에 시작된 귀농 및 친환경 농가를 초대해 만물공양과 농산물전시, 농부들과 대화마당, 음악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황사 괘불재


전등사 영산대재 시연 모습

전등사, 다례재·영산재·글쓰기대회 등 다채
미황사·통도사 傳, 괘불탱화 선보여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오후 1시 시작되는 괘불재는 높이 12m, 폭5m인 대형 괘불탱화를 1년에 한번 공개하는 날이다. 괘불재에서는 전통방식으로 불단을 차리고 괘불탱화를 이운해 미황사 마당에 전시한 뒤, 참석 대중들이 1년간 마음을 모아 지은 농작물을 올린다.

오후 6시에는 전국 산사음악회의 시초이기도 한 미황사 음악회가 열린다. 남도의 들노래를 부르는 소리꾼들이 모심기 소리 귀농편지 농사꾼의 노래 판소리 '심청가' 등을 노래하며 전통 줄다리기와 강강술래를 선보인다.

농민들과 미황사 방문객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두레상 한 솥밥', 미황사 역사길 걷기, 해남 규방공예연구회의 조각보 전시인 '가을 나들이전', 해남지역 유기농 특산물 판매장도 눈길을 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이번 축제는 지역민이 주인공이 돼 타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민이 들러리가 돼버리는 다른 축제들에 비해 새로운 문화축제의 형태를 갖는다"고 말했다. (061)533-3521

수원 봉녕사는 사찰음식 대향연 열어

통도사(주지 원산)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5일부터 1층 중앙괘불전에서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을 연다.

매년 2회 특별전을 개최해 온 성보박물관은 제25회 특별전에서는 법주사 말사 청주 보살사의 괘불탱을 전시한다.

보살사 괘불은 국내에서 전하는 불화 중 4번째로 이른 시기인 1649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8월 보물 제1258호로 지정됐다. 이 그림은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로, 크기는 세로 530cm, 가로 401cm 이며 비단 바탕에 안료를 베푼 작품이다.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는 8~9일 '제3회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봉녕사는 행사기간에 당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여섯 마당을 주제로 ▷선재 · 적문 · 우관 ·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 ▷스님들의 탁발순례 ▷사찰음식 경연마당 ▷대가 스님들 일품요리 시연마당 ▷육법공양마당 ▷사찰음식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031)256-4127

타고르는 왜 붓을 들었을까

국박, 11월 27일까지 타고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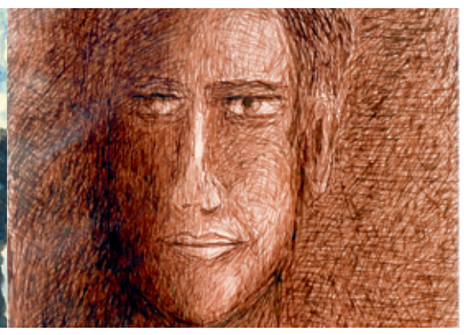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고르
삶의 마지막은 회화에 천착
49점의 회화작품 선보여

'인도의 시성' '동방의 등불'로 잘 알려진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는 시집 〈기탄잘리〉를 통해 1913년 동양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를 시인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타고르는 시, 소설 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무용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회화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대한민국-인도 우정의 해를 기념해 '타고르의 회화 - The Last Harvest' 전을 11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타고르의 회화작품 49점 및 타고르 관련 서적이 선보인다.


'풍경과 꽃' (종이에 유색 잉크, 1934년)


'얼굴' (종이에 펜과 잉크, 1939년)

타고르는 생의 마지막 예술분야로 회화에 천착했고 그의 사상이 잘 표현돼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화는 그에게 '삶의 마지막 수확(The Last Harvest)'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던 타고르는 동양미술,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사조의 흐름을 접하고 화가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타고르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고, 펜과 붓이 나가는 대로 그림을 완성했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 제목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 출품작 역시 제목이 없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시기별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을 기준으로 4부로 구성됐다. 1부 '상상의 동물들'에서는 현실세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명체를 소재로 했다. 2부 '풍경과 꽃'에서는 점차 자연의 형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타고르의 모습, 3부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인물과 극적인 장면'에서는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긴 그림을 볼 수 있다. 4부 '얼굴'에서는 그가 그린 다양한 초상화가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타고르의 회화는 인도 국내는 물론 서구에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지만, 출판물, 작품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타고르는 인도의 화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02)2077-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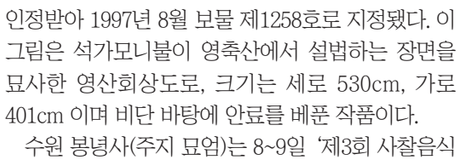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1~9/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3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6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7	경전숲길 (한 권으로 읽는 경전)	정운	조계종출판사
8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9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10	우리말 팔만대장경 (신편)	대한불교청년회	모시는사람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선문염송 17권 〉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결상
8각좌대 칠보부처님 전문업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칠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안리미 : 010-5595-8533
일하는곳 : 054)773-8533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10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10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732-8972

국화차 한 잔이면 찻잔 가득 가을과 건강 담는다



삽화=오영식

송이버섯차, 국화차, 무차, 골담초차

완연한 가을이다. 제철 음식이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을 더해 주듯 차도 제철이 따로 있다. 10월이 제철인 송이버섯차 국화차 무차 골담초차를 소개한다.

이경제한의원 이경제 원장은 "가을 같이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차 한 잔이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차가 몸의 따뜻한 기운을 북돋게 해 감기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특히, 가을 제철을 맞은 송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있고, 국화는 두통에 , 무는 소화 증진에 효과가 있다"며 추천했다.

참조〈사계절 우리 차〉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1. 송이버섯차

첫맛은 쓰고 뒷맛은 달콤

버섯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에리타데닌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 동맥경화에 좋고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 따뜻한 송이차는 기침감기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송이버섯은 오래된 소나무에서 서식하는 습성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소나무가 많은 경북 울진, 영주, 봉화와 강원도 등의 골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송이는 예로부터 강장약으로 귀하게 여겼다.

송이버섯차 만드는 방법

1. 송이의 흙을 털어내고 뿌리 쪽을 깎아낸 다음, 길이 방향으로 얇게 썰어 손으로 조각조각 찢는다.

2. 온돌방에 한지를 깔고 겹치지 않게 놓고 말린다. 1주일이면 완전히 마르는데 햇볕에 말리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

3. 말린 송이를 한지에 싸서 유리병에 담아 습기 제거제를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송이차를 즐길 수 있다.

송이버섯차의 특징

말려둔 송이버섯을 넣어 차를 만들면 화한 향기와 싸한 맛이 가슴을 뻥 뚫어주는 황갈색 송이버섯차가 완성된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그만이다. '이게 버섯 맛이야?' 할 정도로 음식으로 먹었던 버섯과는 사뭇 다른 맛과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송이는 한 번에 3번 정도 우려 마실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낸 잔은 차색과 향기가 첫 잔보다 엷어지지만 차 맛은 더욱 달콤하다. 마지막 세 번째 잔은 향기와 맛이 은은하고 담백하다. 차주전자에 남아있는 송이를 꺼내 죽염을 살짝 뿌리면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간식거리가 된다.

2.국화차

두통에 탁월한 효과

국화는 먹는 꽃이다. 튀김도 하고 술도 담그고 차도 만든다. 황금색 국화가 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맑은 유리 차 주전자에 말려둔 노란 단추 국화 10송이를 담고 따끈한 물을 붓는다. 또르르 말려있던 국화 꽃잎이 노란 꽃술을 드러내며 피어난다. 국화꽃 10송이를 마시는 기분. 가을엔 역시 국화차가 제격이다.

국화차 만드는 방법

1. 국화는 줄기를 없애고 꽃송이만 떼어내 흐르는 물에 꽃가루 등을 깨끗이 씻는다.

2. 씻은 국화를 뜨거운 김이 오르는 찜 솥에 살짝 쪄낸다. 이때 꽃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살짝 넣는다.

3. 채반에 꽃이 서로 붙지 않게 널고 그늘에 말려 유리병에 보관한다. 꽃이 서로 붙지 않게 해야 꽃 모양을 살릴 수 있다.

4. 찻주전자에 국화 10송이와 뜨거운 물 150ml를 붓고 1분 정도 우린 후 마신다.

국화차의 효능

국화는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됐다. 〈향약집성방〉에는 국화는 맛이 달고 오래 먹으면 몸 안에 원기와 혈액에 이롭고 몸이 가벼워지며 노화를 예방, 장수하는 약초라고 기록돼 있다. 〈본초강목〉에는 국화차를 오래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잘돼 몸을 가볍게 하며 빨리 늙지 않는다. 위장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암 작용하는 송이버섯차

혈액순환과 두통에 좋은 국화차

몸에 열을 내고 소화 돕는 무차

관절 통증 완화하는 골담초차

녹차와 구기자와도 잘 어울려

국화차는 국화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한 향기를 가지지만 녹화와 어우러지면 쌉싸래한 맛이 더해져 근사한 향차가 된다. 구기자를 넣고 우려 마시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다.

3. 무차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가을무는 인삼과도 견줄 만큼 건강에 좋다. 영양이 꽉 찬 가을무는 맛도 달고 영양도 풍부하다. 무차는 여름내 땀이 빠져나와 차가워진 속을 달래주는 차로 발그레한 색과 구수하고 개운한 맛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래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무는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무의 영양

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돼 있지만 비타민 무기질 디아스타아제 등 성분이 소화기능을 돕고 공복에 마셔도 부담이 없다. 또한 비타민B군과 비타민C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면서 만복감을 느낄 정도의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체내 노폐물 배설을 촉진 시키고 변비도 해소해 준다.

무의 효능

옛날에는 기침 천식을 다스리는 약으로도 사용됐다. 무의 매운맛 성분인 시니글린이 점액분비를 촉진해 기관지에 붙어있던 가래를 묽게 해주기 때문이다. 무는 날것으로 먹으면 소염작용을 해 몸을 차게 하지만, 열을 가해 조리해 먹으면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무를 생즙으로 갈아 마셔 열을 식히는데 활용하고 감기가 걸려 추운 날에는 어묵에 무를 같이 넣고 끓여 열기를 더해주면 좋다. 타박상에는 무를 날것으로 갈아서 붙이면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 만성관절염에는 데운 무를 갈아 붙이면 통증이 가라앉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무차 만드는 방법

1. 무를 길이 2cm, 폭 1cm 크기로 썰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바싹 말린다.

2. 말린 무를 방앗간에서 볶아온다. 뻥튀기처럼 튀겨도 된다.

3. 차주전자에 조각내어 튀긴 무를 3조각 넣고 뜨거운 물 150ml를 붓고 2분가 우려내 마신다.

4. 골담초차

욱씬욱씬 관절통에 으뜸

골담초는 꽃과 가지, 뿌리 모두 차로 즐길 수 있는 유익한 나무다. 5월에 피는 노란 꽃을 채취해 말려 두었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시는 골담초 꽃차는 여성의 대하증이나 이명에 도움을 준다. 뿌리는 늦가을에 재취해 말렸다가 달여 마시면 중풍을 예방하고 관절염에 이롭다. 골담초 부리는 술에 담가 오래 묵혀 두고 아침저녁으로 먹기도 한다.

특히 일조량이 많은 10월에 잎달린 가지를 채취해 자잘하게 썰고 채반에 살짝 쪄서 뜨거운 황토방에 말려 만드는 골담초차. 그 이름처럼 신경통과 골절로 쑤시고 아플 때, 삐거나 타박상 등 뼈와 관련된 약재로 사용된다. 부모님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면 미리 준비해 꾸준하게 드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골담초는 연두빛 차색과 담담한 맛에 질리지 않고 오래 마실 수 있다. 여러 차례 우려도 맛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골담초차 만드는 방법

1. 잎 달린 골담초 가지를 잘게 썰고 살짝 쪄서 1주일정도 바싹 말린다.

2. 은근한 불에 무쇠솥을 올리고 차를 볶아 수분을 완전히 없앤다.

3. 말린 골담초 두 스푼을 찻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 150ml를 부어 5분간 우려낸다.

꽃차를 만들 때 주의 할 점

모든 꽃을 꽃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꽃차를 마실 때 주의해서 마셔야 한다.

봄꽃은 대체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햇볕을 많이 받고 자라는 봉선화, 인동꽃 등은 독성이 있어 해독이 되는 약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면 꽃차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은 꽃차의 독이 걱정된다면 꽃 가운데 꽃술을 떼어버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꽃을 따는 시기는 이슬이 마르기 전이 좋다. 또,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따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솎아주듯 따는 것이 좋다.

꽃을 채집 할 때는 사람의 체온이 닿지 않아야 싱싱함을 오래 유지 할 수 있다.

〈기획PR〉

수행과 노동의 일체화를 통한 수행가풍의 실천

생산불교를 실천하는 아산 만주사 만주 스님



만주사 회주 만주스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청규 이래 예로부터 사찰에는 대중스님들이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산 만주사 만주 스님은 수행에 달리 형식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스님이다. 만주사에서 만주스님은 어느 농사꾼과 다름이 없다. 밭을 일구고 거두어 자급자족하고 약초를 캐어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장을 직접 담구어 판매도 하여 사찰 운영비로도 사용한다. 생산불교를 사찰 운영에서부터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 스님은 사찰 경제의 자생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님은 "받는 불교에서 나눠주는 불교로의 변화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의 자급자족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각을 통한 존재가치를 일상에 부여해야 합니다. 수행과 노동의 일체화로 새로운 수행가풍을 실천해 가야합니다"고 주장한다.

신도들의 보시금에 의존하는 사찰경제에서는 기복불교에서 탈피해 수행가풍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목소리다. 중국의 백장선사의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가풍을 현재의 한국불교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운력이란 대중 전체가 동참하는 일이며 작무란 개인 스스로 힘써 노력하는 것으로 운력과 작무가 자생력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노보살이 현몽으로 알려준 만주사는 아산 송악면 송학리에 위치해 있다. 인연처를 찾던 스님의 꿈속에서 현재 만주사 터를 알려주었고 찾아가 확인해 보니 '오래 전에 한 노파가 그 터에서 초막을 짓고 기도를 했으며 그 위로 올라가면 자연 석굴이 있는데 그곳 또한 노파가 기도를 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만주 스님은 자신에게 현몽한 노파가 바로 그 노파임을 알고는 그 즉시 땅을 매입해 불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의 만주사다.

만주사는 자족생활과 수행을 통해 자생력을 지향하는 생활불교 생산불교의 실천도량이다.

백년이 넘는 노송들로 둘러싸인 만주사는 자연 그대로 형성된 천혜의 도량으로 취나물, 머위, 달래, 쑥부쟁이, 고들배기, 미역취, 돌미나리, 약재용 마가목, 선인장등이 길러지고 있다. 바위 하나 하나 자연 그대로 배치된 모습은 스님의 소탈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도들에 의지하는, 또는 부담을 주는 사찰이 아니어서일까. 만주사는 사찰이라기보다 마을회관에 가깝다. 마을의 대소사가 논의되고 주고받는 격식 없는 곳이다.

모든 형식과 격식을 벗어던진 스님은 몸소 '모든 것은 하나'라는 만유동근(萬有同根)을 실천하고 있다. 출가자나 재가자 구분 없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으로 인연을 설명한다. '모든 것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진리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것이 곧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 아산 만주사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109-1
☎ 041)547-7792

“누군가 인정했으면 복종하라”

박웅현의 ‘공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강자라고 보십니까, 약자라고 보십니까?

현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강요하고, 여러분은 그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스펙을 쌓아도 취업은 잘 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되기 일쑤입니다. 사회는 그런 여러분들을 88만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약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약자는 많습니다. 나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고, 대학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지금도 어디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늘 강자로 남지도, 약자로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강자로서의 면모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자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인간의 독점은 심합니다. 번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에서 어떤 작은 동물이라도 한 종이 멸종되면 50년 내로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우리는 생태계에서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약자에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 밀림의 강자인 사자는 약한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지존인 인간도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광고인데, 보통 광고회사에서는 광고주를 속칭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들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금요일에 저희에게 오더를 주고 월요일날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강한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합니다.

광고 감독은 이들의 주문을 받아 광고를 만듭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독을 만날 때에는 광고주처럼 대하고, 광고주는 감독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덤블도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진짜 멋진 사람은 약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강할 수 있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의되지 않는 것에는 굴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 말에 동의됐으면 바로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는 권위를 강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말도 걸지 못하고,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왜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애플사에 놀러간 한 사람이 회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는데, 뒤 배경에 티셔츠 차림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걷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라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강한사람한테 강하려면 강요된 권위인지, 우러난 권위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권위에는 투사가 돼야 합니다.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가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라
공존을 위해서는 강약조절 필요
옳고 그름 판단하려면 실력 갖춰야
스스로 존중해야 결국 강해져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부처와 예수도 왜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에 두십시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핵심을 맞춰야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깐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행동은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반드시 이기는 법입니다.

2011 청춘 토크파티 – 서울시립대 편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2011 청춘 토크파티’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춘 더(The) 나은 세상을 상상하자’를 모토로 6명의 강연자들이 공존 정의 행복 변화 희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였다. 하지만 소신공양하신지 1주기가 됐어도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울하다”며 “과거 프랑스 6·8혁명 당시 젊은이들이 ‘상상력이 권력이다’라고 외친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거칠고 신명나게 쏟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월 22일 첫 강연이 열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는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미래를 재 정의하기 위한 조건, 공존을 상상하자’를 주제로 공존에 대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기획하자’를 주제로 정의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 이어 2부 세션에서는 100명의 청춘들이 10개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는 9월 27일 동덕여대에서 ‘행복과 변화’를, 9월 29일 동국대에서 ‘희망과 사랑’이란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정리=이은정 기자

“정의로운 사회구현 모두가 힘 모아야”

오연호의 ‘정의’



저는 83학번입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내놓은 슬로건이 바로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저의 꿈은 원래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 국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왕창 벌거나 권력을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문과에 진학해 보니, 돈을 잘 벌 것 같지도 않고 판검사가 되거나 정치를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설가 김유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유정처럼 농촌 생활을 반영하는 소설을 써서 농촌 부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보니 3개월 만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써있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요즘과 달리 당시 대학 내에는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친구들과 선배들이 한 명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소설을 쓰겠다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는 못하는 사회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실을 미화시켰습니다.

바르지 못한 세상은 과감히 비판
비판이 넘어서야 대안 만들어져
박원순 “정의는 강자 이익”
“약한 자 돕는 것이 정의 실천”

소설보다는 사실을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편소설을 여러 편 쓰고 있었는데, 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바로 유인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회를 비판한 졸업 작품으로 1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건 정의의 실천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이 넘어서 대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싫으면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환으로 대안 언론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졸감 후 저는 ‘월간말’에 입사해 심층취재 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또 보도지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대로 된 정의를 구현하려면 우선 저의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정보화·세계화로 흘러가는데, 월간지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능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지 비용은 일체 개인이 부담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뒤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생활하면서 진짜 대안을 만들어야만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도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무언가를 또 바꾸기 위해서 작년부터 서울대 조국 교수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함께 썼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박 후보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순: 현대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힘센 사람이 바로 정의가 됩니다. 제가 동의하는 정의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본래 찾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것을 막는 일 또는 힘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정의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또한 만인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 화장실 이용은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을 더 늘린 다거나, 여자에게 수영장 이용 가격을 낮추는 것 등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실질적 평등이 사회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이 '화'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이것을 살피고 있어야 한다.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나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인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수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마주 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나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바깥을 쳐다 볼 때조차도 나의 내부로 시선을 거둬들이려 애써야 한다. 무엇인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어차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들으며, 맛보고, 접하거나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일들에 초점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과정에 집중할 뿐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병으로 악화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든 병에는 그 치료제가 있다.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의무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든 정신이든 나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병으로 인한 고통의 외연은 타인에게로 확장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의 욕망과 자만에 의해서 타인을 재단하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잠깐만. 내 자신이 모든 일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타인의 질병은 나의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치료법을 찾아서 고치는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병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뿐이다. 만약 내가 입원한 병실의 옆 환자가 그의 약을 알맞게 복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힘내도록 격려할 수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내 치료에 힘써야겠다고.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살펴야 한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촉촉한 피부 가지려면 금연부터

우리나라는 4계절 기후에 뚜렷한 특징이 있으니 봄에는 바람, 여름에는 열기, 장마철(장하: 長夏)에는 습기, 겨울에는 한기, 가을에는 건조함이다. 기후의 변화가 인체에 악영향을 주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한의학에서 '육음(六淫)'이라 하는데, 건조한 기운으로 인해 생겨나는 병증을 '조증(燥證)'이라 한다.

건조한 기운은 오장육부 가운데 특히 폐의 음기(陰氣)를 잘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침, 감기, 기관지염, 천식 등이 잘 생기고 심할 경우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몸속의 진액, 즉 물기를 마르게 하여 입이 마르고 입술이 타며 피부가 바삭바삭해지고 마른기침과 살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폐계통에 속하는 코,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대장(大腸)도 건조해지므로 콧속이 건조하고 비염이 잘 생기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움증이 잘 생기며, 머리카락이 잘 빠지거나 비듬이 잘 생기고 변비가 나타난다.

건조한 기운은 신경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조한 기운이 음기 부족을 일으키고 이것이 간장에 영향을 주어 간장의 기가 맺히게 되면 옆구리에 통증을 일으키고 기, 혈, 담 등의 소통에 장애를 준다. 이렇게 되면 신경정신도 안정을 잃게 되어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며 가슴이 꽉 막힌 듯이 답답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치밀어 오르는 '울증(鬱蒸)'이 생기게 된다. 울증은 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특히 귀 뒤에 통증을 잘 느끼고 변비와 설사가 왔다갔다하며 생리통, 냉증, 가려움증, 두드러기,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인이 되면 점차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지므로 조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 만약 음기가 심하게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열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열을 '허열(虛熱)'이라고 한다. 허열이 머리에 올라오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중풍도 유발된다.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적당한 습기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음기를 보충하고 신경을 쓰는 것, 특히 화를 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물론 음식 섭취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매운 음식은 기를 발산시키므로 적게 먹고, 시고 윤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건조증에는 담배가 상극이다. 담배는 맵고 뜨거우며 건조한 성질이므로 피부의 물기를 말려버린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의 피부는 까칠까칠한 건성 피부가 되고, 머리카락도 건조해져서 푸석해지고 가늘어지며 잘 빠지게 된다.



조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꿀, 잣, 호두, 검은깨를 비롯하여 배, 더덕, 연뿌리 등이 있다. 한약재로는 지황(地黃), 맥문동,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등이 좋다. 이런 약재들은 음기를 보충해 주는 '보음제'로서 폐가 건조해서 생기는 기침, 천식뿐만 아니라 변비와 탈모에도 좋다. 처방으로는 지황을 위주로 백복령, 인삼에 꿀을 넣고 솔에 고아 만든 '경옥고(瓊玉膏)'가 좋다. 경옥은 아름다운 구슬이란 뜻으로서 연년익수(延年益壽), 불사강정(不死強精)의 효능이 있기에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체력을 보강하므로 '익수영진고(益壽永眞膏)'라고도 불린다. 음기를 보태주고 폐를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음기가 부족하여 열기가 위로 올라 폐의 기능이 약화되고 몸속의 물기가 말라서 마른기침을 오래 하고 목과 입이 건조하며 피가 뱉어 나오기도 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에 쓴다.

경옥고를 먹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잘 하는 분들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양기가 허약한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 마늘과 파, 무, 식초 등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경옥고가 좋은 보약임에는 틀림없으나 한의사의 진찰을 받아 체질이나 병증에 적합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3〉

그대의 보물창고는 어디 있는가?

"이상하다. 왜 없지!"

책상 위를 다 치워보고, 책상 서랍까지 죄다 열어보고, 법당이나 차방까지 다 뒤져 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혹 가방 구석에 끼어 있나 싶어 가방을 뒤집어 보고, 승복 호주머니에 있나(?) 싶어 근래 입었던 적삼 주머니를 다 열어 보아도 내가 찾는 물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아이구, 참으로! 얼마나 아끼던 것인데…."

1년 내내 수중에 갖고 다니며 좋아했던 보리수 염주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몇날 며칠을 찾아 헤매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찾았으니 염주에 대한 나의 질긴(?) 애착에 새삼 놀라웠다. 이제는 '나와 염주와의 인연이 다 되었나보다' 하고 찾는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번득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이 있었다.

'잃어버리고 진정 찾아야 할 것은 이런 물건이 아니건만 왜 물건 잃어버린 것만 가지고 찾아 헤매단 말인가?' 경전 구절이 생각났다.

바로 자신이 '보물창고'
본래 부처 바로 알아서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부처님께서 부루나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실라성에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니, 분명 어떤 얼굴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여기 거울 속의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의 얼굴이 어디 갔지? 내 얼굴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의 얼굴을 찾아 다녔다." 〈수능엄경〉

이 이야기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는 '장두멱두(將頭覓頭)'이야기다. 본성, 자성 그 마음자리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이 내 가슴팍을 헤집고 들어왔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연야달다가 자기 머리를 달고 있으면서 자기 머리를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처와 같은 참 성품, 진정한 참 본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중국 당나라 때, 마조(709~788) 선사에게 대주혜해라는 제자가 있었다. 대주혜해가 처음으로 마조를 친견했을 때이다. 마조가 먼저 물었다.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는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보물 창고를 집에 놔두고, 쓸데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불법 따위는 찾아서 무얼 하겠느냐?"

"제 보물 창고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지금 묻고 있는 자네가 바로 그 보물 창고라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또한 쓰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쓸 수도 있다."

여기서 '보물 창고'란 바로 연야달다가 찾아다닌 자신의 머리요, 참 성품을 지닌 불성이요, 본성이다. 우리 모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마음보석을 지니고 있다. 마조는 각자 자신이 원래 갖추고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부처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제자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구이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구나.
짚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찾아 헤매었네.
지쳐서 돌아와 우연히 뒤뜰을 거닐다 보니
매화꽃이 거기 피어 있더라.

본래의 그 자신을 떠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여의고서 부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참 본성은 자신의 정원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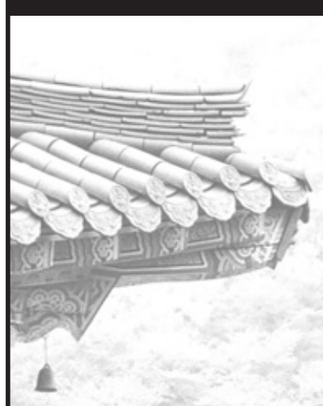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괴로운 문제를 생각해보자. 사람 문제이든 취직이든 시험이든 어떤 괴로운 것일지라도 자신 스스로 만들고 빚은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구제될 것인가. 누가 구제해줄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구제해줄 수 없다. 자신의 괴로워하는 마음자리에서 평온과 기쁨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잃어버렸다고 찾아 헤매는 바로 그 머리에서, 자신의 정원에서 매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의 본성도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

진정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 잃어버린 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참 본성을 만나기 위해 잠시 쉬어보자.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산병이다!
• 유산된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총장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율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장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불교,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춘양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대 출 안 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천도재영험
온 가족을
우유빛
명품피부로
바꿔보세요
상담☎ 0505)333-0008
FAX 0505)333-0009
홈페이지 sra.kr
스마트폰 mmww.kr
大韓佛教曹溪宗
양 평 사 리 암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이사 택일, 궁합,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인상학 수강생 모집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3~6시(3시간)
장 소 :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
2번출구 걸어서 15분
* 마의상법-수상-유장상법-수상
-신상전편-수상
* 낙산자락에서 관상(觀相)도,
수상(手相)도, 한문(文理)도 공부합시다.
다음카페(관상과 수상이야기) 참조
010-6743-486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배우자 구함
평생도반으로 지내실
여성분 (50-58세)을
원합니다.
010-7473-6886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명리학 음양오행 무료강의
강사 : 성은사 우리법사
일정 : 매주 수요일 11시
장소 : 성은사(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 종점 옆
010-9376-5633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7번출구 3분거리

조계종 산내암자 노승이
복원한 수행처 본종 비구니
자기 은사와 함께 평생동안
운영관리 약속하며 노승은
몸이 불편하여 수행자에게
맡기고자 함. 그리고 신심있는
공양주 속히 구함
(급여는 상담 후 결정)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
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 장 엄 론 경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010-4788-3346

사찰관리하며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거제
010-6815-9878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기문명리 • 육효
알때까지 책임지도,
현 학원장 대학교수
사주카페 전화상담 알선
(장소:방배동, 대림동)
특강 : 10월11, 12일 14~17시
010-8804-1668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강원도 삼척
010-9416-774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불교 석가여래종
불교 여래조계종
불교 종단법인 총연합회
불교 법인단체 총연합회
우리불교 법인
대승불교법인
011-412-8040 법 광

불 상 : 아미타불 좌대포함 석자반
후불탱화 : 5자*8자
신중탱화 : 5자*6자(유명탱화장 작품)
불단과 불기일체
(수제 목탁, 경상, 최고급제기 등 포함)
부산 010-6630-5304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성실하게
가족같이
일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안양, 50-60세 사이
031)471-6675

조그만 암자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부산
011-574-3303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돌맹이를 손에 쥐고 하는 기도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운영하실 분
사찰관리하시면서 노스님
시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전북 김제
063)543-5551
010-4427-2256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부산 기장군 일광면
010-3553-0993

신심이 돈독하신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부산
051)721-0449
011-579-64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중국동포 환영)
경기 성남
50~60세 초반
011-212-9110

미국 LA에서 부전
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미만)
제주 서귀포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010-5219-7021

금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부적 소장하실 분
소승은 시각장애자 68세 심안으로 금달마와 황금용주도 부적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있으면 안됩니다. 스승이 일러드리는데로 소장하시면 만사 평안하실 것입니다. 약간의 보시금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좋은인연이 되어 그 가정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망산 부처바위에서 기도중입니다. 기도에 가피를 바라시는 분 모십니다.
* 조용한 산속에 빈집 빌려 주실 분 찾습니다. 남은 여생 나를 시봉하실 보살님 약간의 후원도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후원계좌 : 농협 302-0007-1645-21 (예금주 장치범)
큰스님 직통 010-9003-7783 / 주문처 011-9957-2660 혜주 보살

한 국 불 교 대 학 편 입 생 모 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에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첨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빙의 · 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30년 빙의치료 대가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양파엑기스 1박스(50개) 판매가 3만원, 2박스 5만원
효능 : 혈당낮춤, 고지혈증, 혈소판응집억제, 거담, 합십증, 이뇨작용, 피로회복, 혈액순환촉진작용, 알콜해독, 아토피살균작용, 소화촉진, 해열, 진해, 관상동맥확장작용, 항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상승 억제작용), 방부작용, 항암작용, 고혈압, 불면증, 항혈전, 당뇨병, 만성폐병, 고혈병, 피부질환, 백내장예방, 신경질환, 신체허약, 주름살, 탈모증, 기관지염, 코감기, 건위, 피부병, 궤양성 피부염, 발모촉진, 장무력증, 장염, 이뇨, 빈혈, 소화촉진, 두통완화, 감기, 후두염, 죽상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천식, 기침, 비타민결핍증, 창상, 궤양, 부인질병, 트리코모나스질염, 설사, 변비, 동맥경화, 기억력향상, 대장염에 효험

부처골 지장선원에서는 양파엑기스를 노란껍질속에 쿼르세진성분(고지방분해) 함유를 보존하기위해 껍질채 내렸습니다 (배살이 빠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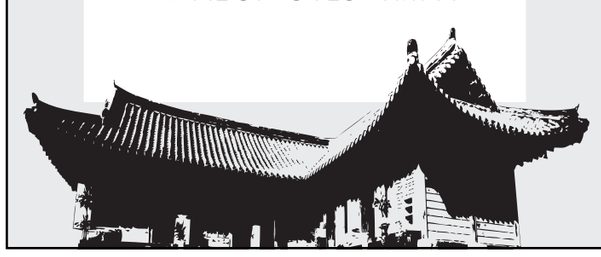
보급처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www.jijangsw.com

통 증 제 거 기 술 교 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좋은 인연 · 멋진 인생
▣ 전통 예술 : 대금, 단소, 태평소, 학춤, 한량무...
▣ 불교의식 : 예불, 범패, 바라무, 법고...
▣ 선무도, 태극권
▣ 출장지도 가능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실 도반을 모심니다.
선무도 양산 연수원 010-9314-0950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알라딘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 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856호 | 불 자 정 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 FAX 02) 737-0696

단독주택 (임법당)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4동
• 대지 : 39평
• 단독주택 23평
• 불심이 돈독한지역
• 가액 : 7천5백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3) 624-3691
010-5385-3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5분거리
• 부지 : 390평(종교용지) 137평(전) 527평
• 법당 : 33평 (철근콘크리트조)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 2)
• 기타 : 10평(야외화장실, 차고, 창고) CCTV 설치
• 가액 : 2억 8천만원
• 스님 건강관계로 저렴한 가액으로 인연있는 스님에게 양도
010-5488-3339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마산)시
• 대지 : 종교부지 140평 포함 임야 1300평
• 건평 법당 요사(방4) 합 약 40평
• 무학산 혈이 모이는 명당자리
• CCTV, 심야전기, 화재보험 개인소유사찰, 포장도로
• 가액 : 전세 1억 5천만원 (조정가)
018-560-383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2,200평
• 건평 150평(대웅전 33평) 70%공정
• 사찰허가필, 전기, 지하암반수
• 용도 : 사찰, 연수원, 명상센터, 납골당 등등
• 대구 도심에서 30분거리, 현재 터널 공사 중
• 가격 : 절충후 파격, 상담 : 주인직통
010-4512-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
• 법당 약 50평(대적전, 관음, 지장)
• 요사 약 100평(방9, 주방, 창고유)
• 요양원, 고시원, 종단설립 등 대작 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 사찰, 꼭 매입할 분 연락
• 즉시 몸만 오면 법회 가능함
• 가액 : 오억오천만원(절충가능)
010-9217-4911

사찰부지안내
• 위치 : 인천 강화 신현리
• 대지 547평, 건평 140평
• 법당 (20평) 상채 : 스님방2
• 아래채 : 공양방3, 입식부엌
• 법회실, 창고, 별채(쑥황토방)
• 가액 : 평당 1백만원
010-3114-13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시내 20분거리
• 부지 : 2700평 (종교용지 800여평포함)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 산신각등 ,부속건물유
• 가액 : 딱 15억 (중개인사절)
011-844- 3006

선 방 , 절 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 약 600평
• 가옥 5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 맑고 신선한 기운터로 인정
• 선방,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 3억5천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010-8582-010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대지126평, • 원룸포교원
• 시설 : 방10개
• 법당,사무실 16평
• 가액 : 1억 9천만원 (대출6, 7천만원가능)
• 답사후 조정가능
010-5317-7736

불자정보 26 | 856호 | 전면광고

2011년 10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부산외곽)
- 법당 : 20(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급매가)
- 즉시법회가능함

- 위치 : 경기가평외곽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5억

- 위 치 : 경남
- 법 당 : 25평
- 요 사 : 80평
- 부 지 : 1,000평
- 가 액 : 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최고 마산

- 총부지: 6,000평
- 목재법당(100년 역사)
- 전각 5동, 요사채방6칸, 대종각, 삼성각
- 가액 13억

울산 시내

- 총부지 : 2,600평
- 목재법당 30평(내9포 외5포) 산세 전망최고, 주차장 500평
- 아파트 5만 세대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북한산)
- 법당 20평
- 요사 50평(2동)
- 부지 약 500평
- 동쪽 수락산을 마주보고 있는 영험한 기도도량임
- 가액: 6억 5천만원

기도터(토굴)

- 위치:경기도 양평
-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청정계곡(해발 600m)
- 남향 토지 350평(사용할수 있는 국유림 700평) • 합 1000평
- 현재 농가주택 한 채 있음
- 심야전기 보일러, • 마당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2천

대 력 불 사
031)775-8110 /011-531-5562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잡고,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월10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무량광불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도량입니다

- 3층 55평 2000만원 월130 시설비 7천만원
- 주차장 넓음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010-9688-1629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임야 2만 3천 6백평
- 도량터, 약 1천평
- 현재 임법당 사용중
- 건물 조립식판넬(약 30평)
- 물소리 졸졸 납니다
- 현재 불사중
- 가액: 2억 4천만원

010-2055-8506

암 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599번지
- 평수 : 300평
- 요사채 기와 20평
- 기와 법당 15평
- 가액: 6억 (가격절충)

011-846-16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
- 건물 62평
- 법당 30평
- 공양간20평, 방2,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100평, 삼존불, 방4, 창고
- 월세 5만원
- 몸만오시면 됨
- 시설비 : 12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7476-900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평수 25평, 2층
- 모든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시설 A급,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70-4078-904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절만 분할판매 가능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8천만원대출)

010-3112-35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100평, 삼존불, 방4, 창고
- 월세 5만원
- 몸만오시면 됨
- 시설비 : 12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7476-9002

암 자 안 내

- 위치 : 포항
- 평수 25평, 2층
- 모든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시설 A급,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70-4078-904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362-1
- 대지 150평 사용, 법당 건물 40평, 요사채 40평
- 불상: 아미타불,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관음인등, 후불탱화3,감로탱화1, 신중탱화1
- 사물일체(몸만 오면 됨)
- 금액 7000만원(조절가능)

055)391-5770
010-5777-0011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 몸만 오시면 됨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
- 상가 건물 3층 중 2층. 33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법당, 방2개, 홀 겸 주방
- 전세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7307-957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개정리 성주고령 국도변
- 대지 102평, • 법당 2층 슬라브 15평
- 칠성, 산신, 삼존불, 아미타부처님
- 생활관 34평, 대중방 3개
- 공양, 주방, 다용도실, 스님방1
- 심야보일러, 석유보일러, 집기류일체
- 가액: 1억

011-9577-3779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3층 상가중 2층
- 평수 : 2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모든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010-9332-904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창녕군영산IC에서 7분거리) 부곡온천인접, 화왕산입구
- 대지종교부지 600여평|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60평, 방4, 화장실2개)석탑, 주차장, 창고(15평)텃밭
- 특장: 산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전기보일러, CCTV설치
- 가액: 3억8천8백만원,시세이하양도 (대지50~70만원-유동가격)
- 꼭 필요하신 분만 (장난전화 사절)연락 주세요

010-5614-3928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병리 산 1-1
- 대지 1,000평, 건물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산신각 3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3693-5543

사찰안내(암자포함)

경치가 수려하고 암자는 고찰터로경허선사 , 천태종 상월조사 공부터임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암자 30평
- 산신각 3평
- 가액: 15억

010-2713-6664

사 찰 안 내

- 위치:안산시신고잔동전철역5분거리
- 부지 :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 4개,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 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여 , 엘리베이터
- 가액: 3억 8천만원 양도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도심속현대식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도로 인접)
- 대지 : 132평
- 총건평수 300평 (지하1층, 지상4층, 2층 별채)
- 가액 : 몽땅 13억5천만원

010-4531-28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362-1
- 대지 150평 사용, 법당 건물 40평, 요사채 40평
- 불상: 아미타불,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관음인등 , 후불탱화3,감로탱화1, 신중탱화1
- 사물일체(몸만 오면 됨)
- 금액 7000만원(조절가능)

055)391-5770
010-5777-0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 평수 800평
- 대웅전 20평, 판넬조립식(도색완료)
- 요사채 20평(블럭 시멘트 제작)
- 산신각 3평(목조, 골기와)
- 주차장 100평, 조경완료
- 가액: 2억 8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3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지구
- 2층건물중 2층 (약 40평)
- 법당 주방 다용도실 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답사 후 상의 절충 가능

010-3693-5543

사 찰 (터) 안 내

- 충남공주시 유구읍 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 : 전 • 면적 : 20,03㎡(2필지)
- 가액 : 7,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 위치
- 도로, 토목, 전기공사 완료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유구IC 5분거리
- 조망 최고임, 암자, 기도처 추천

010-2429-20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동방동(시장부근)
- 각층24평(3층 대웅전, 2층 극락전 각 삼존불)
- 계단, 옥상단독사용, • 목탁,염불소리 주위에 무방
- 정진,수행처로 최적 청소, 주변 정리만하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없이 월25만원,시설비 3천5백만원 (답사후 상의 절충가능)

010-7284-2003
010-6368-65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3천만원

010-8585-138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대지 약 220평
- 법당 20평 . 삼존불 요사채(가건물) 창고
- 가액 : 7천만원

010-4786-8257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 약 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내부관리상태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백 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백 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 우다나 -

도대체 데비는 어떻게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아냈을까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9)



삽화 · 김홍인

무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 조각을 살폈다. 진주처럼 생긴 그것은 어둑한 방 안에서도 오묘한 색깔을 보이고 있었다. 무니는 집게손가락으로 그걸 비벼도 보고 튕겨보기도 하면서 궁리에 빠졌다. 그때 몸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 조각을 문지르던 손이 점차 투명해졌던 것이다. 무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번개가 얼굴 위로 번쩍하고 빛을 내뿜었다. 무니는 다시 자신의 손바닥을 살폈다. 여전히 손은 사라진 채, 검 조각만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사흘 째 비였다. 수아나 가족들도 차크라발라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이곳 사람들은 궂은 날씨 때문에 밭일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 될 법한데도 별 다른 근심이 없어 보였다. 하긴 애초에 '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곳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오히려 그들은 조에게 먹일 보리 겨가 잔뜩 쌓여있고, 빵을 만들 보릿가루도 넉넉하니 언제나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걱정'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모두들 자신들의 걱정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수아나가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보리밭의 물길을 살피러 간 오빠 수아킴을 찾아오겠다며 나간 것이 소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난다는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걸어 다니다가 창밖을 내다봤다. 컴컴한 바깥엔 세찬 빗줄기 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찾으러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난다가 나크를 통해 말을 전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수아나의 아빠가 결심한 듯, 수아킴을 보며 말했다.

"나가보자꾸나. 수아나는 아마도 너와 길이 어긋나 헤매고 있을 게다. 몇몇 형제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

부정적인 단어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도 금기시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해가 진 다음의 외출이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차크라발라에는 '밤은 악령들의 시간'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 왔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그들의 영역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악령은 인간들에게 무해한 존재였다.

"그래도 여보!"

수아나의 엄마가 비옷을 챙겨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려던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다. 얼굴엔 근심이 가득이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한 번 잡아주더니 다시 문고리를 잡았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난다가 나크를 통해 말했다. 가족 모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수아킴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난다에게 함께 가자는 고갯짓을 했다. 그렇게 남자 셋 그리고 정령은 낯선 비와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만에 열리는 경우는 없었다. 비 내리는 소리가 그만큼 세찼기 때문이다. 이웃들 모두 수아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의 유대관계는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구분 지어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수아나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였다. 그들 대부분은 부탁도 하기 전에 나갈 채비를 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다. 수아킴은 난다에게 그들은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며, 그래도 문을 두드린 이유는 모두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들에게만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난다는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섭섭해 할까 배려하는 수아나의 가족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몇몇 무리로 나뉘어 수아나를 찾아다녔다. 수아킴과 난다는 차크라발라 계곡으로 통하는 동굴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두운 동굴 속을 등불도 없이 익숙하게 걸어가는 것에 반해, 난다는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다. 보다 못했는지 수아킴이 "자!"하며 손을 내주었다. 난다는 그의 손에 의지해 어둠 속을 더듬어 걸어갔다. 터벅터벅하며 동굴 속을 살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다. 난다는 수아킴의 끈적한 손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누군가 자신의 옷깃을 스쳐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이어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난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애를 찾은 거야."

바로 옆에서 나크가 속삭였다. 수아킴은 벌써 난다의 손을 놓아버리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동굴의 입구 쪽인 듯, 어둠이 옅어진 지점이었다. 난다도 그곳을 향해 곧바로 달려갔다. 급한 마음에 발을 헛디딜 사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또 심장 한 곳을 아프게 찔렀다. 역시 나크의 말 대로였다. 동굴 입구의 커다란 바위 뒤에서 비를 맞으며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수아나였다. 사람들을 밀쳐내고 바위 옆으로 다가간 난다의 눈에 축 늘어진 수아나의 손이 들어왔다. 작고 따뜻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 난다는 그 손을 쥐어보았다. 차가웠다. 난다는 그 온도의 의미가 다시는 그 손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무니는 소란스러운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에서 깬 칸타카 역시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 살해당한 여자 아이의 장례 의식이 있는 모양이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난다는 무척 슬프고 지쳐 보였으며, 화가 나 있었다. 무니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다. 쎄라를 닮은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니는 무엇보다도 데비가 걱정됐다.

"도대체 누가 두 사람을 죽인 걸까, 칸타카?"

칸타카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그 자를 찾아야 이곳을 떠날 수 있을 텐데."

무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난다의 모습도 보였다. 수아나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무니의 마을에서도 죽음이라는 사건은 몹시 슬픈 것이었지만, 그 현상 자체에는 덤덤했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종말이라기보다는 단지 긴 이야기의 한 단락이 끝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은 이는 이웃의 손녀나 들판에 꽃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수아나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려 하지 않았다. 난다의 불만은 바로 이것이었다. 아마 수아나를 죽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니는 창고의 구석 쪽을 돌아봤다. 거기에 무니 자신 역시 이곳을 쉽게 떠나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잠들어 있었다. 세상 모르고 푹 잠 든 데비였다. 수아나라는 아이가 죽은 채 발견 됐다는 그날, 무니가 갇혀있던 창고를 두드렸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도대체 데비는 어떻게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아냈을까. 처음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는 바람 소리인 줄로만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나 난다가 밤중에 무니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방 "칸타카 거기 있어? 칸타카?"라는 데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니는 데비에게 칸타카와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설마 문 여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데비는 한참이나 문고리와 씨름을 했다. 또 다시 번쩍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창고 문이 활짝 열리더니 데비가 나타났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온 것인지, 거의 빗방울을 묻히지 않은 상태였다. 대신 옷 여기저기에 뭐가 튀었는지 얼룩덜룩했다. 그 오염물은 데비가 앞머리를 쓸어 올릴 때마다 이마와 코끝에도 흐릿한 흔적을 남겼다.

"너 이거 뭐냐?"

그 질문에 데비는 자신의 옷과 손바닥을 쳐다봤다.

"이거 피야.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애를 밀었어. 여자애가 그 사람을 몰래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머리에 피가 났어."

무니는 깜짝 놀라 데비에게 좀 더 다가갔다.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밀었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애를 밀었다고! 못 알아들은 거야?"

데비는 어느 새 칸타카 옆에 딱 붙어 서서 한심하다는 듯 무니를 쳐다봤다. 무니는 그런 데비의 표정은 무시하고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셨다. 손과 얼굴에 묻은 피부터 닦고 볼 일이었다. 어떻게 비에 젖지도 않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물어봤자 제대로 대답할 리도 없었다. 아무튼 지금 그 데비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쿨쿨 자는 중이었다. '속편한 녀석이라니까.' 데비는 누군가 그 소녀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는 분명 이 마을 사람이었다. 전체 주민을 불러놓고 자신이 본 사람이 누구인지 데비에게 고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 역시 데비를 봤을지도 모르니 어쩌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 세 명은 차크라발라에서 낯선 존재였다.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이 데비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지 의문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옷에 묻어 있는 피가 신경 쓰였다. 이방인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 지는 남카네 마을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오히려 그들이 범인으로 몰릴지도 몰랐다. 무니는 난다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꽉 쥔 그의 손 안에는 진주 모양의 세 번째 검 조각이 들어있었다.

856호 | 불자 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 가액: 3억 1천 만원

010-2637-61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경남 고성군 대가면 고성 IC 10분거리
- 평수 168평, 실평수 300평
- 조립식법당 20평, 삼존불
- 각종 탱화 시설완비
- 요사채 15평, 산신당 6평, 용왕당 4평
- 스님방 3평, 수도, 수세식 화장실 2개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4618-7063

전원주택 형 토굴암자 (급)
- 위치 : 충북 옥천. 대전에서 30분
- 대지 500평
- 건평 128평
- 2층 양옥 1채, 단독1채, 창고1채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 금강이 앞에 흐르고 경관수려

010-8677-28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터미널 앞 주공2단지 부근
- 평수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3240-3272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73-5번지(지하)
- 영등포구청 옆, 지하철 2~5호선 3번출구
-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산신4분
- 보증금 5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 합 천만원
- 월세 25만원, 수도비, 청소비 3만원 합 28만원
- 저렴하게 양도
- 평수 약 30평, 법당 , 방2개, 화장실, 주방

02)2671-7941 주지성곡합장
010-3266-93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 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도심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 의창빌라 상가 2층
- 평수 54평, • 방3, 및 주방 화장실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호신불100불
- 비구니스님도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8211-8590
010-8602-3990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 평수 330평. 전망 좋음
- 심야보일러
- 수행정진하기 좋은 곳
- 총가액: 5500만원

010-4144-684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자골산 부자골
- 대지 330평, 건물 70평
- 천신기도도량
- 마당 앞 바로 계곡 있음
- 가액: 상담 후 조절

055)573-8802
010-8904-92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기차역 걸어 10분)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 70평)
-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영단
- 연등LED 300구 냉, 온풍기(천정형)
- 방2개, 공양간, 남,녀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포함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함(현재 법회중)
- 모든 주방용품(130인분) 인계함

011-212-7709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90평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787-6624

임법당안내
- 위치: 강릉시 사천 해수욕장 뒤 (낙은동산숲속)
- 최고의 위치,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약 200평, 야채밭 약 80평(1년 도지 20만원)
- 법당외 방 4개, 화장실2, 목욕탕1
-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 일체
- 양도가액: 4350만원

010-2461-3014

농 가 주 택
- 대지: 35평
- 건물 11평
- 시골에서 살고 싶은 분은 선택하세요
- 가액: 1천 8백만원

054)982-4949
010-4534-49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태화동 782-2
- 지상2층 건물 2층 50평
- 법당, 공양실, 방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조절가)
- 주차장있음. 최고 위치

052)222-6023
011-858-030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북구 읍내동
- 2층 약 50평, 방3칸, 주방 ,욕실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199-7897
053)311-9686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달마의 눈꺼풀서 차나무 자랐으니

절로도해도(折蘆渡海圖)

달마 대사는 중국 선종(禪宗)의 시조이자 부처님 이후 28대인 보리달마(菩提達摩)이다. 5세기경 남인도 향지국(마두라스)의 왕자로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반야다라존자(般若多羅)에게 불법을 배우고 선을 선양하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선법을 전하고자 중국으로 왔다고 전한다.

달마 대사가 중국 땅에 온 시기는 남북조시대인 양(梁)나라 무제(武帝) 연간(520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중국에 들어 온 경로는 광저우[廣州] 또는 서역통로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는 이미 불교가 융성한 시대여서 양나라 무제는 수많은 절과 불탑을 쌓고, 많은 승려들을 출가시켜, 중국의 불교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후였다. 달마 대사가 인도로부터 입국하자 양무제는 자신이 지은 공덕을 자랑하면서,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물었다. 거기에 달마 대사는 "공덕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인도서 중국으로 법 전했던 달마
양나라 무제 물음에 선기로 응대
왕의 미움 받아 죽임을 당했으나
유유자적하게 왔던 인도로 돌아가

이에 기분이 상한 양무제는 달마 대사에게 은밀히 자객을 보내 죽인 후, 웅이산(熊耳山)에 묻었다고 한다. 그런데 송운(宋雲)이 서역에 사신으로 다녀오다가, 총령(蔥嶺)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다. 달마 대사는 짚신을 지팡이에 꿰고, 발은 그냥 벗은 채로 가니, 송운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다. 달마 대사는 "서쪽으로 간다"며 사라져 버렸다.

송운이 양무제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무제는 달마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어보았다. 시신은 없고, 짚신 하나만 있었다. 달마 대사의 부활을 알게 된, 무제는 군사를 파견해서 추격해 양자강 근처에서 발견하고 죽이려 했다. 이에 달마는 갈대를 꺾어서(折蘆渡江) 강을 건넜다고 전한다.

달마도는 모든 도석화(道釋畵)와 선화(禪畵)의 주제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주제로 많은 대가들이 즐겨 그린 그림이다. 일본에 특히 큰 영향을 끼친 조선 중기의 연담 김명국이 그린 '달마절로도강도(達摩折蘆渡江圖)'는 특히 달마도 계열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우리의 옛 기록에 의하면, 고려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공민왕은 평소 승련사의 각운(覺雲)스님의 도행(道行)을 존경해서 직접 '달마절로도강도'와 보현육아백상도(普賢六牙白象圖)를 그려줬다는 기록이 동문선(東文選)에 있다고 한다.


김홍도의 '절로도해도'

또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달마화상과 달마대사상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어, 이 시대에도 달마도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명 대사가 달마도를 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절로도해도는 한국 최고의 고화소장처인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된 세로 105.5cm에 가로 58.3cm 크기의 장지에 단아하게 그려진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작품이다.

기백과 힘 있는 필선으로 표현을 초월해서 활발발(活潑潑)한 선기(禪氣)를 보여주는 김명국(金明國)의 그림처럼 묵선이 대상(對象)의 윤곽을 묘사하면서, 마치 사자후(獅子吼)처럼 보는 사람의 귀와 눈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선비처럼 유려한 얼굴의 선과 지성(知性)이 빛나는 눈을 지닌, 담담하면서도 기백 있게 두 가지의 갈대에 서서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 아래로 뒤에 바랑을 매고 있는 줄을 띠고, 갈대가지까지 이르는 두 가닥의 매듭이 보이면서, 두 손을 맞잡고 바람을 가르면서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얼핏보면, 깊은 상념 속에서 미래의 불법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단원의 그림에선 달마의 눈썹이 짙으면서도 힘 있게 그려져 있는데, 일설(一說)에 의하면, 달마 대사는 선정에 들어 좌선하다가 잠들어 버린 것에 화가 나서, 눈꺼풀을 잘라내 버렸는데, 그 눈꺼풀에서 차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수행하는 우리 모두 그 찻잎을 따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간화선의 법맥을 이으면 어떨까 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아제아제바라아제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 '혹성탈출(2001)'에서는 원숭이가 인간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본다. 영혼이 없는 존재로 몰린 인간의 괴로움은 '기막힘'이었다. 그 기막힘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간은 죽도록 고생한다. '탈출'은 영혼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 영혼으로 인해 인간은 고단하다. 지금 당장은 '가을'이다. 차가운 바람은 뜨거운 눈물이 되고, 뒹구는 낙엽은 움직일 수 없는 언어가 되는 시간. 고독한 시간은 신앙이 되고, 망설이던 시선은 철학이 되는 시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쉴 새 없이 사는 것이다. 잠시도 쉴 수 없는 영혼, 영화에서처럼 영혼을 가진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 온전한 영혼의 존재로 돌아가기 위해 이 가을을 죽도록 살고 있다. 돌담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간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월저도안 선사의 '설령대에서 읊어 뜻을 말함[雪嶺臺口號言志]'

탐진치로부터의 자유로움

絶頂人來少 (절정인래소)
寒雲伴此生 (한운반차생)
空階有鳥跡 (공계유조적)
靜室絶塵情 (정실절진정)
六字時時學 (육자시시학)
三乘日日行 (삼승일일행)
百年惟我意 (백년유아의)
何事苦經營 (하사고경영)

산꼭대기 찾아오는 이 적은데
찬 구름은 이생의 도반이네
빈 계단에는 새의 발자국
선방에는 속세의 정이 끊겼네.
육자진언은 무시로 배우고
삼승은 날마다 행하네.
백년이 오직 내 뜻대로 인데
무슨 일을 괴롭게 경영하리요

위의 시는 조선후기 보편적인 수행방법인 삼문수업(三門修業)을 행하고 있는 월저도안(月渚道安; 1638~1715) 스님 자신의 일상을 특별한 수사 없이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스님은 석가의 부절인 염송(拈頌)을 통해 삼매가 당장 이뤄진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간과 천상, 보살의 종자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 가치를 부여했다. 염불에 대하여는 "참선을 못할 바에야 염불이 마땅하다"고 하여 정토는 하열한 근기를 위해 시설됐으며 정토가 곧 선(禪)이라는 사상을 보였다. 스님이 〈염송집(拈頌集)〉을 개간하고 염불책 1000권을 인출 배포한 것과 화엄종주(華嚴宗主)로 명성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다. 새들의 자취로 가득한 인적 끊어진 도량을 통해 선정 속에서 속세의 정이 끊겼음을 끌어 왔다. 육자진언은 염불 수행하는 것이며 삼승은 〈법화경〉의 성문·연각·보살의 방편으로 일승의 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일상을 참선과 간경·염불로 보내니 자연히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출가의 본원이 이루어지니 할 일을 다 해 마친 무사인(無事人)의 여유가 시의 전편에 흐른다.

언지(言志)를 시의 형식에 사용하여 자신의 출가한 뜻을 제대로 보인 이 시는 자신의 수행법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한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새집증후군·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 식물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치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보균자(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항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습도표시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5만원)

현불샵 02)2004-8215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중생들부터 조복을 받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또 하실 게 있어요? 허허허.

질문자2(남):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우리 불자들이 큰스님 친견이 있어 새벽부터 왔습니다. 또 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전방과 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건 못 오건, 우리 모든 군인들에게 한마음 크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그럽시다. 허허허. 부처님의 마음은 저 좁쌀 알갱이만한 데다가 넣어서 천 리든 만 리든 가깝고 먼 것도 없이, 빛보다 더 빨리 추진한다면 거기서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천 개도 되고, 만 개도 되고 헤아릴 수 없이 허공을 뒤덮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법을 꼭 배우시도록 하세요.

질문자3(남): 대구 신안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동안 큰스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대구 경북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낙동강 수원이 말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로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서, 저희들 힘으로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께서 한마음을 내시어서 낙동강 유역의 모든 생명들을 건져 주십사 하고 간청드립니다.

큰스님: 글쎄요.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원한의 마음들로 똘똘 뭉쳐진 사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들을 잘 내신다면은 거기도 풍족하게 비가 내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생각을 내는 것이 용입니다, 용! 물속에 들어 있는 용이 용이 아니고, 기다란 구렁이가 용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는 것이 용입니다, 그대로.

질문자4(여): 스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복이 있어서 이렇게 스님을 뵙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절이라는 데를 갔고 인연 따라서 죽 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말에 제 인연 있는 보살님에게 『한마음요전』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음요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스님이 지금 현생에 계시구나. 나도 뵐 수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은 법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따로였는데 지금은 제 생활 속에서 늘 기쁨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직장에서도 선원에서 나오는 책들을 다 같이 나누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전달하고 이러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인데, 그런데 정작 저의 가까운 인연들에게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저의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대구에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제가 그런 걸 너무 몰랐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마음을 관해야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셋째 딸은 이탈리아로 한두 달 후에 가는 모양입니다. 가기 전에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큰스님: 나무로도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요, 밥 먹을 때라도 항상 "엄마 아빠가 감사하지?" 이렇게 물어봐서, "감사하다." 하면 "엄마 아빠, 내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게 하구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음부터 잘 가르쳐 놓는다면 바로 자기 마음의 보배를 주는 것이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 돌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아주.

질문자4(여): 그런데 스님, 저랑 같이 동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큰스님: 괜찮아요. 마음으로는 가깝고 멀고가 없어요, 부처님 법은. 내가 여기 있고 미국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찰나에 통할 수 있죠. 이 지구가 한 방으로 돼 있습니다. 한 방! 그러니까 한 방에 전구가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전구는 다를지언정 전력은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질문자4(여): 저 혼자라도 할까요?

큰스님: 예.

질문자4(여): 그렇게 말로 얘기하구요?

큰스님: 예, 그럼요.

질문자4(여): 네, 스님.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은연중에 전달이 되고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질문자4(여): 딴 나라로 가도요?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책 같은 거, 회보 같은 걸 좀 보내 주세요. 카세트 같은 거.

질문자5(여): 큰스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요, 큰스님 요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들어 보면 자기 중생을 먼저 제도해야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중생이 먼저 깨어나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 몸뚱이 속에 의식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있죠? 그런데 그 생명들은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그 부모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금 차원이라면 바로 금방에 탄생이 될 거고, 또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전에 무쇠로 탄생이 될 거고, 넝마라면 넝마전에서 넝마로 탄생이 될 거고 이렇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이 바로 내 몸뚱이 속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탄생시켜 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부처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은 많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업식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넣어 놓은 그 입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시 되집어 넣으면서', 이것은 내가 주인공에 되놓으라고 항상 하는 소립니다. 되나오는 거를, 잘 나오는 거는 '응, 참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 하고 놓고, 또 잘못 나오는 거는 '너만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가 되넣는 겁니다. 되입력을 하는 거죠. 되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무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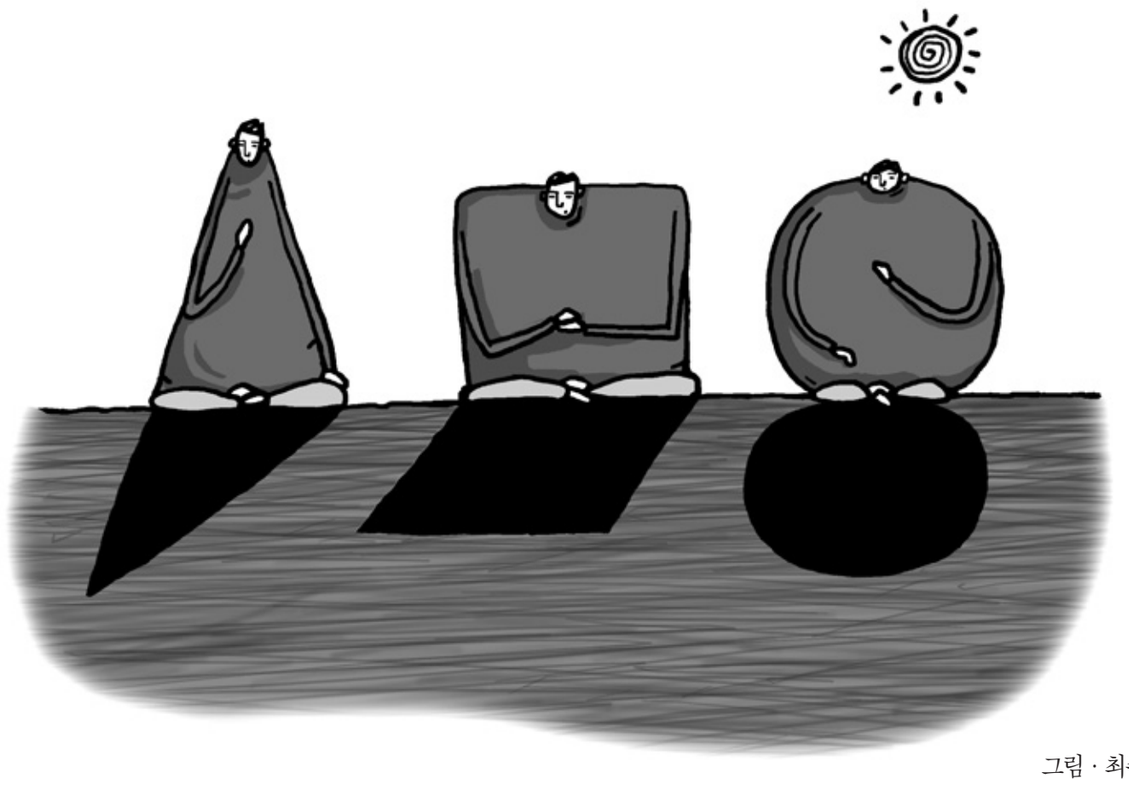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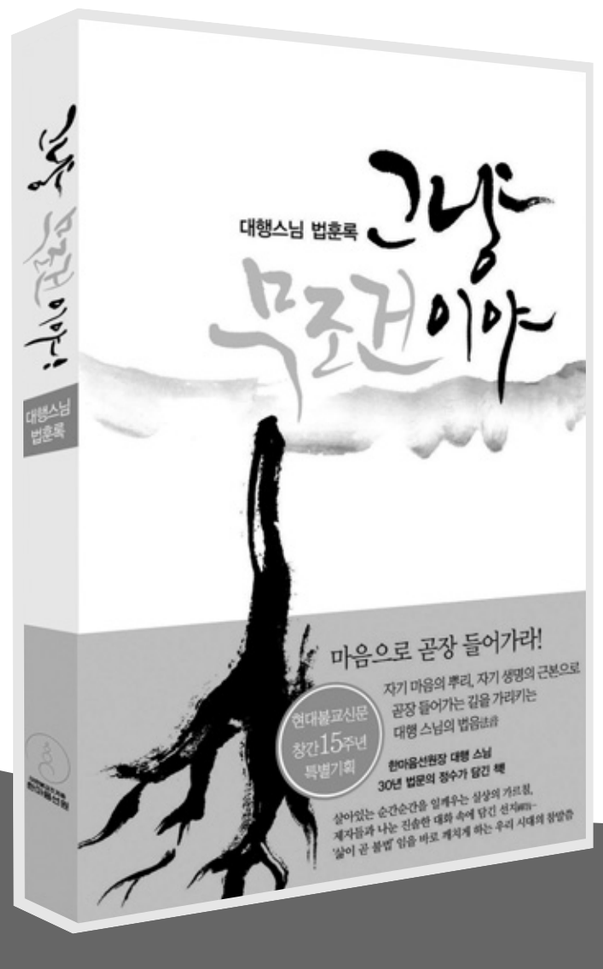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너지게 됨으로써 이 나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중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 항복을 받아라 이 소리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항복을 받는 건 항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나오는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이 다시 입력이 돼서 그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되놓으라는 것, 지금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관법이 그대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내면의 자생중생들부터의 그 의식이 마음의 선장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배가 지나가는데도 뒤집히지 않듯이. 하하하. 파도가 쳐도, 아무리 뇌성벽력이 쳐도 배는 잔잔히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이 몸뚱이가 그렇게 잔잔하고 편리하고 평등하게 잘 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리송합니까? 하하하. 아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 보세요. 자기 차원은 자기가 알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알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차원은 자기가 자꾸자꾸 알아집니다. 그저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아휴, 참 저런 사람 무척 답답하다.' 이럭할 때 벌써 자기 차원이 높아진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질문자5(여):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왜 하고 싶은 말 안 하세요? 하하하….

질문자5(여): 스님, 제 앞에 보살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저한테는 딸은 많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마음공부를, 제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큰스님: 그거는 부모가 공부를 해서 능히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뿌리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해서라도 '너를 끌고 다니는 너를 진짜로 믿어라.' 이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건 안 놓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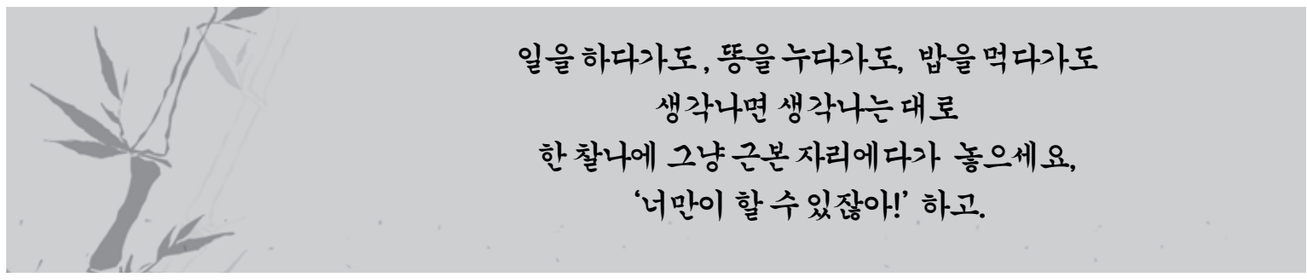
질문자5(여): 네, 그럴까요? 그리고 '마음의 불씨' 같은 것도 읽어 보라고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방 읽고서는 알았다고 그래요. 읽고 알았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큰스님: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모든 거를 묵묵히, 알지 못한다 해도 아니 되고 안다 해도 아니 되고, 그런 사이에 그냥 묵묵히 이쪽 전깃줄과 이쪽 전깃줄을 맞대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당신 주인공에다 '저 애도 자기 주인공의 밝은 등불을 찾게끔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벌써 걔 마음속에 등불이 켜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질문자5(여):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자6(여): 감사합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왔어요. 몰랐는데요, 친구 하나가 여기 가 보라고 자꾸 그래서 왔는데 저는 아픈지가 한 15년 됐어요. 이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아프고 저리고 그렇거든요. 속도 답답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큰스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뜻밖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요, 뜻밖에 첫날 이렇게 만난다고 나보고 아주 운 텄다고 그래요, 지금. (대중 웃음) 감사합니다. 첫날 이렇게 큰스님 만났다고 다들 나보고 운 텄다고 복 많다고 그래요, 지금요.

큰스님: 정말 운 텄네요. 하하하…. 그 관하는 법을 여기 스님네들한테 잘 알아 가지고 가시면요, 차차 낫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여기서는. 자주 오세요. 한 번 한 발자국을 떼었는데, 여기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발자국을 뗄 수 있겠더라. 또 한 번 올 때에 세 발자국 뗄 수 있겠더라. 이러면 낫는 거죠, 뭐.



질문자6(여):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니까 어떤 못된 인간이 나를 엄마라고 하고 다니다가 나한테 사기를 쳐 갔어요. 돈 조금 있는 거 몽땅 다 가지고 도망가서 제가 이렇게 거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 홧병인지 속에서 불이 나고 그래요, 이렇게 땀이 나고….

큰스님: 그것도 보살님의 욕심이에요. 내 자식이 없는데 뭘 그거를 거기다 믿고 그러세요?

질문자6(여): 아니, 자기가 자꾸 엄마 엄마 하고 다니니까 난 또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뒀죠. 뒀는데 누가 이렇게 훔쳐 가지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큰스님: 보살님!

질문자6(여): 네.

큰스님: 예전에 빚을 져서 그냥 빚 갚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질문자6(여): 안 오겠죠? (대중 웃음)

큰스님: 글쎄,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한 생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미운 생각도 없어지고요. 그럴 때 진짜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부터 가다듬으세요.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쪽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알았죠? 속으로 가면을 쓰고 속으로 어떠한 문제를 조작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미운 마음, 복수심 이런 게 있으면 그 상대방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질문자7(여):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까도 처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경북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포항지역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경북지역이 돌아가면서 불이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났는데 올해는 진짜 식수가 너무 모자랍니다. 진짜 포항지역에 물이 너무 모자랍니다. 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북이도 살려 줬는데 왜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공치사하지 마세요. 공치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귀찮게 한 거지 그게 살려준 겁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너무 아프게 다뤄서 목 한 부분은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좋은 일 했다구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을 그렇게 내신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되겠죠.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어디서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 도리를 모르겠으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알게 돼요.

옛날에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많이 났는데 해마다 불이 나서 수십 명씩 사람이 죽고, 그냥 패가망신을 하고, 모두 장사를 하다가 다 망해 버리니까 기가 막히고 그런 일들이 해마다 생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날더러 하는 소리가 "지금 불이 나 가지고 모두 장사를 하다가 못하고, 애들은 여럿이고 살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지역이 군인들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입디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이 부모자식지간인데도 부부지간인데도, 죽으면 왜 마음이 저렇게 다른 게 돼 버릴까.' 이렇게 생각되는 실례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부모가 몸이 막 부어 가지고, 흠집이 나 가지고 죽었는데 자식이 또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한단 말도 못하죠. 하하하…. 참 이상스러워요. 하여튼 인연만 떨어졌다 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남이 되는데 왜 정성스럽게 부모 조상을 믿으라느냐,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느냐 이러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자식들도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완성을 자기가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듯이 유전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 원주 얘기 하다가 말았죠? 그때에 답십리 보살이라고 남편이 교육청에 다니는 사람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쌀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도 그냥 방석 하나 보고선 자기네들끼리 거기다 절 해도 그냥 재꺽재꺽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땐. 그때는 남을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꾸 실험하는 도중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몇십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왔다가 갔는데 그러면 일들이 재깍재깍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방에다가 쌀 가마니를 치쌓아 놓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걸 공개하고 나누어 주면 이 사람네들이 기가 막힐 거란 말입니다, 또 생각에. 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 보살을 통해서 몇몇 지게꾼을 사서 집마다 밥에 몰래 쌀 한 가마니씩 져다가 처소 앞에다가 돈하고 같이 갖다 놔 줬어요. 밤새도록 갖다 놔 주고 나니까 아이, 닭이 울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덕허덕하면서 새벽에 왔어요. 그래, 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는 쌀은 다 나가고 돈도 다 나가고 그랬지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뭐를 다 주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면 아주 가볍고 좋아요, 저는요. 허허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받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 돈으로다 장사를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잘살게 됐고, 한 사람은 지금 아주 빌딩을 짓고 잘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걸 묻기에 난 그런 사이 없다고, 딴 데 가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게 그 악연들이 전부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 죽은 군인 영혼들이 다 천도가 되니까 해마다 불나던 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공부인가. 그러니까 내 집이 주인이 없고 비었으면, 임제(臨濟)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되 집이 비었으니까 갖은 영계들이 다 들락날락거리고 네 집마저 망가질 수밖엔 없느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 만법의 근원을…, 참, 이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의 조복만 받는다면 그 조복받은 의식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요.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요. 화해서 한 생각을 하면 그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즉 말하자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가 돼 가지고 전부 나가서 원자로 화해요. 그래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거는 한울의 일체제불의 마음으로서 해인(海印)을 받는 건데, 해인의 도장을 받는 건데 그 도장의 열쇠를 받을 때 거짓이 있다면 어찌 그 도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놔야 다 얻을 수가 있고, 다 얻을 수가 있어야 다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도록 하시되…,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사람이 참, 3년 4년을 연구를 해 오다가, 아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연구를 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만 연구를 하니까 영 비집고 나갈 틈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설법을 듣는 순간 '옳지, 그거다.' 하고 터득해서, 이제는 연구가 다 돼서 정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막론해 놓고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그걸 믿고 거기에 붙여서, 사업이라든가 뭐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이라면 나도 작은 그릇이고,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면 나도 큰 그릇이고, 여러분이 모른다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안다면 나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서 우리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사회자: 큰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훌륭한 법문을 들었습니다마는 큰스님께서는 땀을 많이 흘리시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땀의 보답으로 저희들은 용맹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내가 더워서 그래요. 내가 3년 전만 해도 샤쓰를 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얇은 거를 겨울에 입어요. 그래서 더워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anmaum Choir Festival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Sat 5pm -13 Sun 3pm, 7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Sejong Cente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은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2011 한마음음악제」를 2011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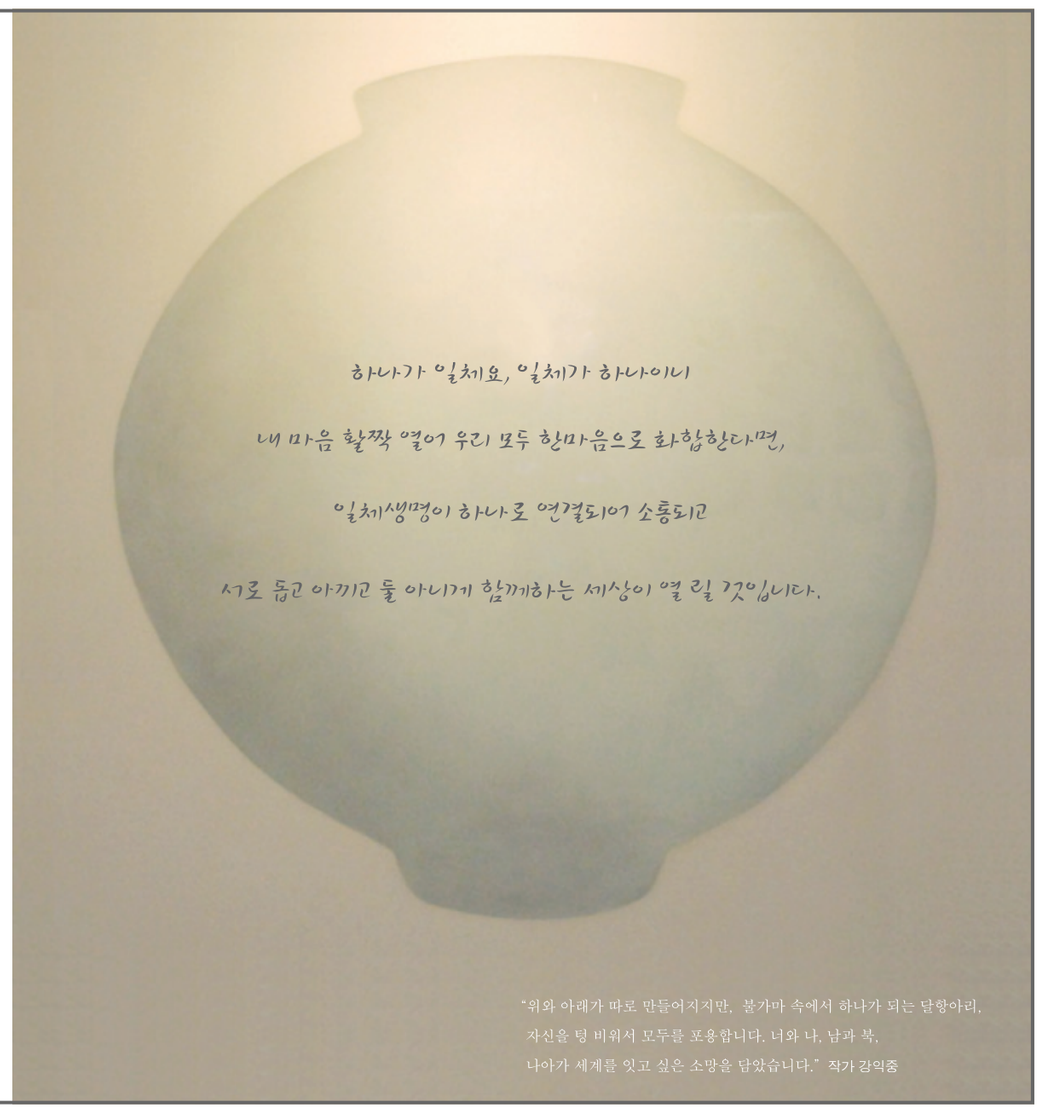
공생실천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마음선법합창단이 '너, 나 하나라네',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등 선법가를 노래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합니다.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더프라미스의 국제구호사업과 뷰티플마인드의 장애우 문화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마음선원 031)470-31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류정필,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불자 세상보기

'유연함'이 남북 갈등 해소의 비법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불교계 연이은 방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 낳아
내년 정치 일정 고려할 때
정부 대북관계 안정화 나서야
"

최근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초청으로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의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방북해서 남북불교교류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종교인들의 방북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을 계기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당국간 대화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지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전면 차단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비핵화회담이 두 차례 열리고 남측 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방향 조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前 대통령실장이 통일부 장관에 취임했다. 류 장관은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야구에 비유하면 직구 위주에서 커브나 유인구를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측은 북측이 야구방망이가 아닌 총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공을 던질 수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대북관과 정세관을 바꿔야 한다. 북한 불량국가론과 급변사태론을 유지할 경우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체제변화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급변사태가 임박했다고 북한정세를 판단할 경우 대화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압력만으로는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국제체제로 들어와야 변영을 누릴 수 있다는 유인, 체제전환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기약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개방촉진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대북전략이 시급하다.

내년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도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론에 매달리기보다는 남북관계 안정화 쪽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 안정화와 북핵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개최국으로서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010년 11월에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과가 북한의 연평도포격으로 한순간에 날아간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하면 북핵문제 해결노력은 주요국 권력교체와 맞물려 장기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社說

간화선 대중화하려면 信心부터

간화선은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화선은 어렵다"고만 말한다.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화선을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이 같은 여론을 또다시 증명해주는 행사였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오늘날 선원에서는 간화선을 한다고 하면서 오직 편안한 가운데서 태평선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했다. 모두 간화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간화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분명 이들의 의심보다 더 큰 불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믿음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수행법인 간화선도 화두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 화두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다다른 선지식들에 대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안된다.

종교는 믿음이고,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심에서만이 가능하다.

9월 29일, 프랑스 떼제공동체의 수사들을 만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사들의 밝은 표정이 어린 아이 같다"며 극찬한 것도 그들은 하심을 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실천 중이기 때문이리라.

간화선에 대한 갑론을박은 좋다. 화두를 들고 무작정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다면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

또 다른 '끌로드 로베'와의 만남을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9월 27일~10월 2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이다.

방문 기간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프랑스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을 열었고, 세계 문화정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했다.

범기독교 수행단체인 떼제공동체를 방문해서는 이웃종교와의 화합과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계종 대표단은 연간 방문객 10만명이라는 단일 수행단체로는 쉽지 않은 떼제 만의 노하우를 템플스테이에 적용시키고자 고민도 하고 왔다.

대표단은 수차례 사찰음식을 소개하면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의 사찰음식이 채식문화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한 예가 2012년 세계 최대의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에 한국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것이다.

음식비평가 끌로드 르베 씨는 사찰음식에 매료된 나머지 대안 스님이 선물한 단주를 꼭 차고 다닌다. 그는 라파예트 백화점에 한국사찰음식 코너가 만들어지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조계종의 이번 프랑스 방문이 프랑스인(佛人)들의 마음에 불성(佛性)을 돌아보게 했다고 믿고 싶다. 이번 방문이 제2, 제3의 끌로드 로베 씨의 출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달이 고깔 모양이라니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
금타화상, 〈우주의 본질과 형량〉서
달이 원뿔대 모양 주장
현대 과학으로도 밝혀져
수릉엄삼매는 108삼매 중 최고
"

올 추석은 흐린 날씨여서 보름달을 볼 수 없었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야 조금은 이지러진 달을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볼 수 있었다.

매년 높아진 가을 하늘에 걸린 한가위 달을 보노라면, 적당히 살갗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명징하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곤 하였다.

달은 친절하게도 밤길을 걷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밝혀준다. 어릴 때 달밤을 걸으면서 달이 따라오는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이다.

달이 둥글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나에게, 금타 대화상의 저작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서 달이 원뿔대(고깔) 모양이라고 기술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가 보는 달의 면은 원뿔대의 넓은 밑면이라는 것이다. 대화상은 당시의 최신 과학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고, 100항으로 된 우주론 내용의 체계가 빈틈이 없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올 8월 〈네이쳐〉지에 "45억년 전 지구가 생성된 후, 화성만한 행성이 지구를 들이받아 지구의 내부물질이 튕겨나가 두 개의 달이 되었다. 그들은 각각의 궤도를 가지고 지구를 공전하다가, 7000만년 후 작은 달이 몇 시간에 걸친 저속 추돌로 큰 달에 합체되었고, 그래서 달의 뒷면은 솟아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렇다면 달이 거의 원뿔대의 모양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셈이다.

금타대화상의 저작은 청화 큰스님이 은사이신 금타(金陀) 대화상의 유고들을 보존하다가, 〈금강심론(金剛心論)〉으로 처음 엮어 펴낸 것이다. 이 때가 1979년 5월 15일이다. 이 중에 제4편으로 들어간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의 저술일이 1942년 6월 9일임을 감안하면, 저술 후 37년 만에 햇빛을 본 셈이다.

청화 큰스님은 백양사 운문암(雲門庵)으로 출가를 해서, 큰방에 금타대화상의 수릉엄삼매도가 걸린 것을 보고 환희심이 났다고 전한다.

가난한 절살림에 부목하랴, 공양주 하랴, 또 공비도 출몰하는 등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안되겠구나. 다른 데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수릉엄삼매도가 욕심나서 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 행자인지라 협착하고 누추한 뒷방에서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서, 그것도 밖에 비치면 어른 스님들한테 꾸중을 들으니까 해어진 모포로 창을 가리고서 삼매도를 베꼈습니다. 나중에는 금타 스님께서 직접 그려서 복사한 수릉엄삼매도 3장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게는 아주 인연 깊은 수릉엄삼매도 입니다"라고 법문 중에 술회하신 적이 있다.

1985년 태안사에서 청화 큰스님에게 '금강심론'을 처음 받고, 지금까지 꾸준히 읽어왔으니, 25년이 넘게 읽은 셈이다.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를 모두 포함한 만다라인 '수릉엄삼매도'의 해설인 '수릉엄삼매도결 상편'은 금강심론에 실려 있으나, 공부가 짧아 아직 이해 못한 부분이 많고, 나머지 하편 절반 해설은 저술 자체가 없으니 스스로 알아내야하는 숙제이다. 청화 큰스님 법문집 〈원통불법의 요체〉에 〈금강심론〉 중 '수릉엄삼매도결 상편'과 '우주의 본질과 형량' 개략을 쉽게 풀어놓은 부분에 힘입어 그나마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금강 도반들과 함께 천착하고 있다.

수릉엄삼매는 108삼매 중 최고의 삼매이면서, 건상(健相)과 건행(健行) 곧 건강하고 유익한 모습과 행동을 지속해가는 것이니, 최근에 웰빙 이후 추구되는 로하스(LOHAS)를 포함하는 삼매라 하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의 이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다.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듦을 자초하려고 하는가 - 선림보훈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컬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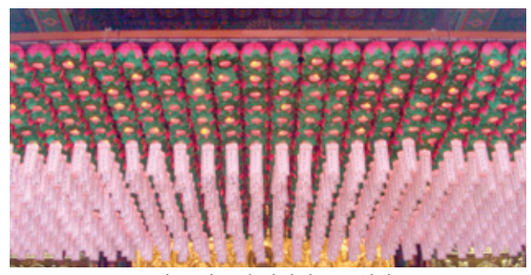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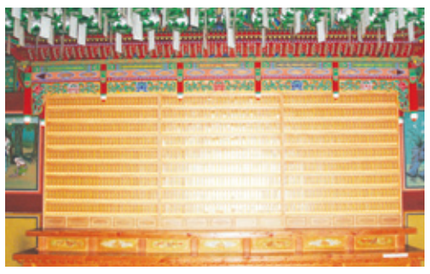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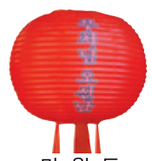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만 월 등



종 등



오색공단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안전과 사고예방 축원불공마쳐!

호신불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